

기록인

정보가 모이는 곳 역사가 숨 쉬는 곳 미래가 보이는 곳 **국가기록원**

ISSN 1976-5754 2011 SUMMER + Vol.15



기획특집 _ 메모광 CEO의 기록스토리

휴(休) – 강(江) 소재 가요는 ‘역사의 한 시대 증언’

이슈와 현장 – 문화재청의 기록관리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들

기술동향 – 모바일 시대에서 기록정보 서비스를 말하다

소개합니다 – ‘오늘의 날씨입니다’ – 기상청 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의 발견 –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진속 생활역사 : 조선 궁궐 이야기

발간 등록 번호
11-1311153-000111-08



기록IN은

기록 및 기록관리 관련 정보와 지식이 모이는(IN) 공간입니다.

기록人은

기록 및 기록관리에 관심있는 모든 이(人)들을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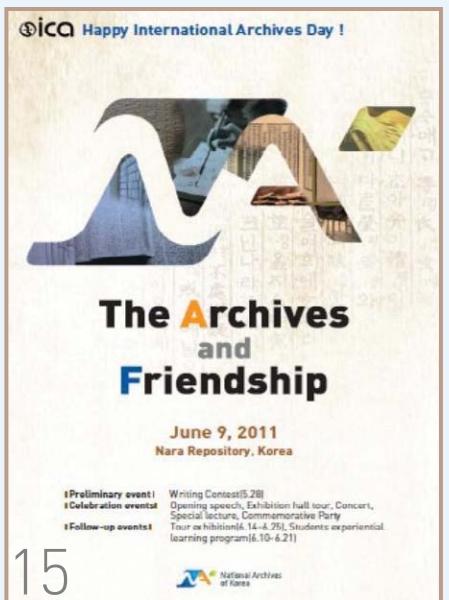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담기는 이 시대 기록 및 기록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나의 우리 역사가 될 것입니다.



CONTENTS

2011 SUMMER Vol.15



- 4 특별기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자료 기증
한국의 치산녹화 / 고건
- 8 칼럼 조선 최고의 메모광 다산 정약용 / 정민
- 12 화보
제4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세계기록의 날」 기념행사
- 16 기획특집 메모광 CEO의 기록스토리
오늘도 아이패드 자판을 두드린다 / 윤병철
기록 –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이끄는 힘 / 윤종용
기록을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 배영호
나의 기록스토리 / 정이만
메모 _ 덤으로 얻는 평화 / 구자열
- 38 휴(休)
강(江) 소재 가요는 '역사의 한 시대 증언' / 왕성상
- 46 이슈와 현장
기록물 검색도구 서비스의 성과와 과제 / 이젬마
대전 근대 애카이브즈 포럼과 대전 / 고윤수
문화재청의 기록관리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들 / 김계수
- 64 휴(休)
귀한 존재 양반 그리고 그 그늘 / 허인욱
- 72 기술동향
모바일 시대에서 기록정보 서비스를 말하다 / 김재평
자료 수집과 보존의 체계화를 위한 예술정보화의 방향 / 이호신



- 84 소개합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 기상청 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 정석권
만화기록의 재발견 한국만화박물관 in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심현필
- 100 기록의 발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진속 생활역사 : 조선 궁궐 이야기 / 백승우
'연평도의 봄' 보도사진의 기록 / 강윤중
나의 기록인생 추억여행 / 양해광
- 118 휴(休)
넷띠 5기, 그 첫 발을 떼다 / 박선희
제4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수상작
"참여와 체험의 기록문화 한마당 축제"
- 124 정보광장
국가기록원 소식
국내 기록관리 소식
해외 기록관리 소식
새로 나온 책들





한국의 치산녹화

▣ 고건 기후변화센터 명예 이사장

약 10년 전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금강산에 다녀간 남한사람들이 북한의 산이 헐벗었다고 하는데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특사로 북을 다녀간 1972년 만해도 북한의 산이 더 울창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건 사실이다. 바로 그때 1972년에 남한은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추진했고,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산을 깎아 계단식 다락밭을 조성했다. 필자는 1970년대 초 한국정부의 새마을사업 실무책임 국장으로 일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했었다. 우리는 이 계획에 따라, 1973년부터 「國民造林, 速成造林, 經濟造林(국민조림, 속성조림, 경제조림)」의 치산녹화사업을 새마을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인공조림으로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치산 녹화(治山綠化) 10개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고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1972~75년 당시에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직접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경과에 대해 「기록인」을 통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한다.

“국토조림녹화 10년계획을 수립하라”- 대통령

1970년대초 한참 일에 열정을 불태우던 젊은 부이사관 시절, 새마을 담당관으로 있던 필자에게 경남과 경북의 도계(道界)에 있는 東大本山(동대본산)에 사방사업을 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동대본산은 月城郡 外東面(월성군 외동면)과 蔚州郡 農所面(울주군 농소면) 사이에 있는 큰 산이다.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영공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산이 제일 먼저 눈에 잡힌다. 지금이야 녹화가 잘되어 푸르지만 당시에는 헐벗은 민둥산이었다. 이 민둥산이 울창한 일본의 산을 내려다보며 날아온 방문객에게 처음 비춰지는 한국의 산이라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방사업의 설계자 겸 현장감독이 되어야 했다. 현지에 가보니 동대본산은 정말 악산이었다. 몇 년간 사방사업을 했지만 거듭 실패했다고 한다. 비가 오면 흙이 곤죽이 되어 무너져 버리는 특수토질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다가 부산의 어떤 토목과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았더니 일반 사방방식으로는 안되고 ‘特殊砂防工法(특수사방공법)’을 써야한다고 했다.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 수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대로 특수사방공법으로 설계하고 시공했다. 정말 대성공이었다.

청와대에 결과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주재하는 經濟動向報告會(경제동향보고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직접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나무가 꽤 자라난 일년 뒤에는 전국의 시장, 군수를 현장에 모아 녹화교육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실적이 있어서인지 ‘第1次 國土造林綠化 10個年計劃(제1차 국토조림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막중한 과제가 필자에게 맡겨졌다. 원래 농림부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내무부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두어 달 전국의 산지를 다니며 밤낮없이 매달려 계획을 만들었더니 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 입안자가 직접 보고하라는 대통령지시가 떨어졌다. 보고 날짜가 결정됐다. 차트사를 붙잡고 보고 전날 밤 한 숨 암자고 일을 했지만 보고시간 10시에 임박해서야 겨우 차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정신없이 차트를 들고 청와대 회의장에 도착하니 보고 시간은 이미 10분이나 지나 있었고 박 대통령을 위시해서 총리, 장관 모두가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낭패스럽던 생각을 하면 몇십년 지난 지금도 등에 식은땀이 난다. 당황스러운 속에서도 심호흡을 하고 보고를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녹화 10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국민조림, 속성조림, 경제조림의 세 원칙을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훔쳐보니 대통령의 눈빛이 빛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휴-하고 안심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제서야 준비한대로 찬찬히 브리핑을 진행할 수 있었다.

▶ 고건 전 총리(오른쪽)와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왼쪽)

▼ 치산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소장하고 있던 책자, 슬라이드 필름, 보고서 사본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였다. (2011. 3.)



보고 중간 중간 대통령은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같이 산림녹화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느껴지는 말씀이었다. 사단장 시절의 에피소드도 이야기하셨다. 부대 순시 길에 플라타너스 가지를 지팡이 삼아 꺾어 짚고 다니다가 무심코 거꾸로 꽂아놓고 귀대하셨던 모양이다. 나중에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다보니 거꾸로 꽂힌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더란다. 나무의 생명력에 감탄을 했다 하시며 박장대소를 하셨다. 그때 웃으시는 대통령 입안에 덧니를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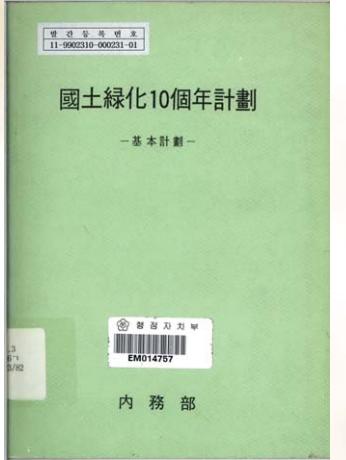
이날 보고된 조림녹화 10년 계획의 내용은 이 자리에서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었고 조림녹화사업을 새마을운동에 의한 국민조림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소속의 산림청을 새마을 주무부인 내무부로 이관하는 방침도 이 자리에서 결정되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대통령의 지시로 「國土造林綠化計劃(국토조림녹화계획)」이 「治山綠化計劃(치산녹화계획)」으로 계획명칭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리고 바로이어 전국 시·도지사, 시장, 군수, 산림관계관 회의를 수원에 소집하였고 필자가 10개년계획의 내용을 설명(시달)하면서부터 10개년계획의 추진이 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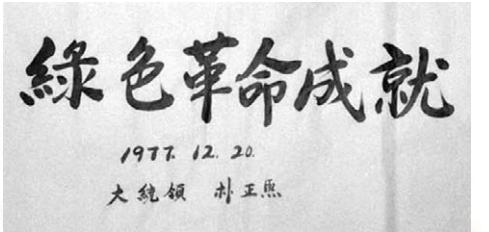
그 뒤 지방국장으로 승진한 다음에는 대통령을 자주 뵙 기회가 있었다. 매달 한 번씩 청와대에서 새마을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유일한 안전인 새마을 사업 추진상황을 주무국장으로서 보고 드리곤 했었다. 특히 74년과 75년 식목일을 앞둔 3월달에는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추진상황,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중점 보고하였다. 두 차례의 3월달 보고를 포함해 모두 21번 새마을 월례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매 회의마다 박 대통령이 우리 농촌과 국토에 대해 가졌던 뜨거운 애정을 느끼면서 빙곤했던 우리의 역사에 대한 恨(한)에 가까운 치열한 심정, 그리고 빙곤을 극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하려는 치열한 집념에 숙연해지곤 했다.

국토의 녹색혁명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養苗·造林·燃料·所得(양묘·조림·연료·소득)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통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선순환을 위한 「統合的 計劃(통합적 계획)」은 성공의 필요조건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계획의 추진 전략은 강력한 최고위 리더십과 새마을운동의 국민적 에너지 그리고 치밀한 행정력·기술력의 뒷받침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킨 시스템 계획에 있었다. 「통합적인 시스템」이 성공의 충분 조건이었다. 한해에 10만헥타르(ha)가 넘는 대대적인 국민식수운동은 새마을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한번 심은 나무는 한그루 每木検査(매목 검사)로 수억 그루의 活着(활착)을 확인하고 成木(성목)이 될 때까지 육림관리책임을 제도화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전국적인 행정력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매년 10만헥타르(ha) 이상을 조림하고 3~4천개 마을의 마을 양묘를 성공시킨 것은 임업기술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 국토녹화 10개년계획문서(국가기록원) 1973년부터 1982년까지 '모든 국토를 녹화한다'는 목표로 수립된 국토녹화 10개년계획서이다. 목표 및 방향, 추진방침, 세부추진 내용 등이 나와 있다. (국가기록원)



▶ 박정희 대통령 휘호 녹색혁명 성취 (국가기록원)

대통령의 비탁 카테일

그 뒤 나는 전남지사를 거쳐 청와대 행정수석이 되었다. 1979년 1월 3일에서 10월 26일 돌아가시기까지 열 달 동안 바로 옆에서 대통령을 모셨다. 이 시절에는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과의 저녁 회식 자리가 잦았다. 그전에는 잘해야 한 달에 한번 정도 만찬이 있었는데, 이 시절에는 매주 한번 이상이 될 정도였다. 영부인이 돌아가신 뒤 외로우셔서 그러셨으리라 짐작한다. 박대통령은 저녁에 곁들여 반주를 드시곤 했다. 막걸리 아니면 양주였다.

막걸리도 특별한 것이 아니고 고양군 일반양조장에서 만든 보통 막걸리였고, 양주는 시巴斯 리갈이 고작이었다. 반주를 드시면서 옛 이야기도 자주 하셨다. 그러다가 가끔 흥이 나시면 '비탁' 카테일을 만들어 돌리시곤 했다. 비탁이란 맥주 한 병을 탁주 한 주전자에 섞은 박 대통령 비장의 카테일이다. 비탁 카테일을 "조제" 하시는 대통령에게 옆에 앉았던 내가 "조제는 제가 하지요"하니까 "어이, 이 사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배합비율을 모르지 않나" 하시면서 젓갈로 비탁을 휘휘 저으시고는 우리들에게 비탁 카테일의 유래를 들려주셨다. 일제하 대통령이 문경국민학교 선생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젊은 선생들이 '기린 비루'를 마시고 싶기는 한데 워낙 박봉이라 마음 놓고 마실 형편은 못되었다 한다. 그래서 추렴한 돈으로 비루(맥주) 두어 병을 사 탁주 한말에 부어 함께 돌려 마시곤 했다는 것이다.

그 뒤로 나도 비탁 카테일을 몇 번 만들어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해도 박 대통령이 만들어 주시던 그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살게 된 탓에 내 입맛이 변한 것인지, 배합비율의 비결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그 둘 다 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한 것은 1970년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헐벗었던 우리 국토에 녹색혁명을 이루해 냈다는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다. ▶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대 초부터 30여 년 동안 전문행정가로 일해왔다. 전라남도지사,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교통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제22대 서울특별시장과 제2기 민선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제30대, 제35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또한 국회 의원과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가, 정치가, 교육가로써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2009년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기후변화센터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다.



▶ 1972년 경상북도 시·군 산림관계관 회의 참석자 선서 (국가기록원)



▶ 새마을 나무심기 계획 문서 (국가기록원) 1972년 생산된 문서로 '4월 한달을 나무심는 달로 정하여, 새마을가꾸기 사업 대상마을 뒷산에 유실수·연료림 등의 협업단지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내 집·내 직장·각급 학교에 일상적인 식수를 권장하여 나무 심는 습관을 생활화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



조선 최고의 메모광 다산 정약용

◆ 정민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생각이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은 종류가 꽤 많다. 곰곰이 따져하는 생각[思]이 있고, 퍼뜩 떠오른 생각[想]이 있다. 떠나지 않는 생각[念]이 있는가 하면, 짓누르는 생각[慮]도 있다. 좋은 생각은 키우고, 나쁜 생각은 지워야 경쟁력이 붙는다. 생각은 힘이 세다. 나쁜 생각은 영혼의 축대를 금가게 하고, 정신을 피폐케 한다.

좋은 생각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조적 에너지를 공급한다.

사람은 생각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은 쉬 달아난다. 달아나기 쉬운 생각을 붙들어 두려면 메모의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그때 바로 적어야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운다. 메모하지 않으면 기억의 저장고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만다. 생각은 메모를 통해서만 싹을 틔운다. 메모의 습관은 꾸준한 연습 없이는 몸에 잘 붙지 않는다. 밥 먹듯이 메모하고, 숨 쉬듯이 메모해야 습관이 된다.

메모는 창의력의 원천인 동시에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저 적어둔 메모가 세상을 바꾼다. 무심코 기록한 일기가 사료가 되고, 한 시대의 소중한 증언이 된다. 말은 항상 떠돌지만, 기록은 남기는 자를 통해서만 보존된다. 기록되는 순간 그것은 비로소 제 생명을 갖는다.



옛사람의 메모벽은 자못 유난스럽다. 책을 읽다가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메모지에 옮겨 적었다. 바쁘면 책 여백에도 적었다. 생각이 달아날세라 급하게 메모했다. 이렇게 생각이 달아나기 전에 퍼뜩 적는 것을 질서(疾書)라고 한다. 질주(疾走)는 빨리 달린다는 뜻이고, 질서는 잽싸게 메모한다는 의미다. 성호 이익 선생은 자신의 저작에 일제히 '질서'란 말을 붙였다. 『시경질서(詩經疾書)』, 『논어질서(論語疾書)』 같은 이름을 붙인 책이 여럿 있다. 모두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책으로 묶은 것이다.

옛사람들의 책상 곁에는 메모지를 보관하는 상자가 으레 따로 있었다. 메모가 쌓여갈수록 공부의 깊이도 더해갔다. 그러다가 틈이 나면 메모지를 꺼내 정리했다. 책 내용을 옮겨 적고 그 끝에 자신의 생각을 부연한 것도 있고, 스쳐가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고적거린 것도 있다. 메모지를 분류하고, 주제별로 정리하면 그 자체로 한권의 훌륭한 책이 되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이나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叢說)』 같은 책들은 모두 독서 메모를 모아 갈래 지워 정리한 책이다.

박지원은 젊은 시절 파리 대가리만하게 쓴 작은 글씨로 된 메모가 나이 들어 시력이 나빠지는 바람에 읽을 수 없게 되자, 이를 버리며 몹시 안타까워 한 기록을 남겼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바삐 쓴 것이어서 다른 사람은 판독할 수가 없었다. 이 메모를 잘 살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그의 글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심심하면 심심해서 메모했고, 바쁘면 바쁜대로 적었다. 한가로움을 깨려고 적었다는 뜻의 『파한집(破闕集)』은 고려 때 이인로가 심심해서 당시 고려 문단의 풍경을 떠오르는 대로 메모한 내용이다. 그걸 본떠 최자는 『보한집(補闕集)』을 지었다. 이 두 기록 때문에 우리는 당시 고려의 문단이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홍석주는 벼슬길의 바쁜 와중에도 퇴근 후에 매일 공부에 대한 생각을 메모로 남겨 『학강산필(鶴崑散筆)』이란 멋진 책을 남겼다. 짤막짤막한 글이지만, 세상을 보는 눈, 학문과 예술에 대한 그의 안목과 만나려면 이 책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귀양 가 있던 허균은 제대로 된 먹거리 하나 없던 유배지에서 예전 서울 있을 적에 맛나게 먹었던 요리를 하나하나 떠올려 메모해서 『도문대작(屠門大嚼)』이란 음식 책을 남겼다. 자기 위로 삼아 쓴 책이지만, 오늘날에 와서 뜻밖에 훌륭한 요리서의 구실도 한다.



메모의 위력을 가장 잘 알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다. 그는 가히 조선 최고의 메모광이라 할만하다. 틈만 나면 적었고, 떠오르는대로 기록했다. 젊어서 정조에게 『시경』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일이다. 정조는 날마다 엄청난 양의 숙제를 내줬다. 남들이 다 짤짤맬 때, 다산만 혼자 척척 해냈다. 그 비결은 평소의 메모 습관에 있었다. 그는 보통 때 주제별 공책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곤 했다. 임금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공책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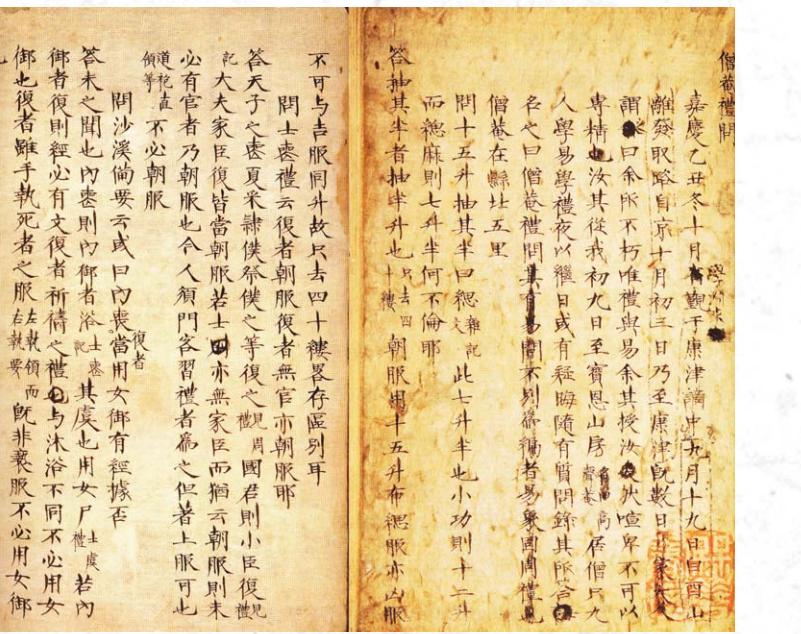
그저 적어둔 메모가 세상을 바꾼다.
한 시대의 소중한 증언이 된다.
무심코 기록한 일기가 사료가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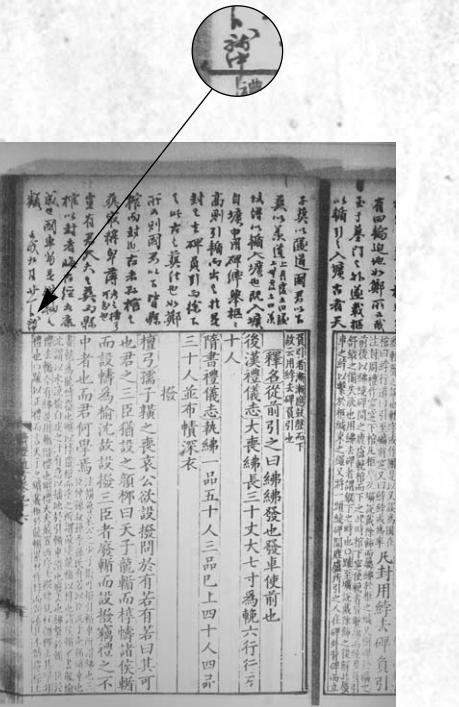
다른 사람과는 애초에 경쟁이 되질 않았다. 시험을 볼 때마다 그는 1등을 독차지 했다. 그는 뒤에 정조가 넘 800개가 넘는 작은 질문과 자신의 대답을 묶어『시경강의(詩經講義)』라는 책을 엮었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시 공부의 광경이 생생하게 되살아 날 뿐 아니라, 다산의 폭넓은 섭렵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그런데 그때 함께 공부한 여러 신하들 중에 다산처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뒤에 모함을 받아 금정찰방(金井察謗)으로 좌천되어 갔을 때도 재미난 일화가 있다. 갑작스레 떠나 책 한 권 가져갈 수가 없었던 그는 이웃에서 반만 남은『퇴계집(退溪集)』한 권을 겨우 얻었다. 제자나 벗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부분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반쪽짜리 책에 실린 퇴계 선생의 편지 한 통을 아껴 읽었다. 아침에 읽고는 오전 내내 그 내용을 음미했다. 생각을 가다듬고 키워서, 점심 식사 후에 오전 내 정돈한 생각을 책의 여백에 빼곡하게 메모했다. 다행히 그는 금방 중앙으로 복귀했다. 서울로 올라갈 때 그는 이때의 메모를 모아『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이란 작은 책 한권을 지었다. 퇴계 선생을 사숙(私淑)한 기록이란 뜻이다. 서문에서 지치고 심란했던 당시에 퇴계의 편지를 통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 와서 자식과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메모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제자가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그 질문과 대답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 제자가 무엇을 물으면 말로 먼저 설명해주고 나서, 아예 그 문답을 한편의 글로 써주곤 했다.『승암예문(僧菴禮問)』은 아들이 유배지로 아버지를 찾아오자, 고성암(高聲菴)이란 암자에 올라가 한 겨울을 나면서, 자식과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을 아들을 시켜 정리하게 한 기록이다. 공부 습관을 배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켰다.



▶ 다산이 강진 고성암에서 아들과 공부한 문답을 정리한『승암예문』첫면



▶『독례통고』 상단에 적힌 다산의 메모. 끝에 '병중' 이란 글씨가 보인다.

아들이 닦을 기른다고 편지를 쓰면, 대뜸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 가지 농서(農書)를 찾아서 닦에 관한 내용을 옮겨 적어라. 닦을 기르면서 네가 보고 들은 내용도 빠짐없이 메모해라. 때때로 닦의 정경을 시로 묘사해 기록으로 남겨라. 그것들을 차례 지워 정리하면 훌륭한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책의 이름은『계경(鷄經)』으로 붙여라”. 다산은 무슨 일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메모하고 기록하게 했다.

다산이 강진 시절에 늘 곁에 두고 읽었던『독례통고(讀禮通考)』라는 책이 있다.

중국 학자가 예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방대한 내용이다. 다산의 손때 묻은 이 책을 보면 다산의 메모벽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책의 여백마다 다산 특유의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 있다. 메모 끝에는 어김없이 기록한 날짜와 장소를 적었다.

이 메모만 봐도 다산이 이 책을 언제 읽기 시작해서 언제 끝마쳤는지 알 수가 있다. 어떤 메모 끝에는 ‘병중(病中)’이라고 쓴 것도 있다. 귀양지에서 아픈 중에도 그는 메모를 쉬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메모가 바탕이 되어『제례고정(祭禮考訂)』과『상례사전(喪禮四箋)』같은 방대한 예서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 유명한『목민심서(牧民心書)』도 따지고 보면 메모와 정리의 결과다. 제자들을 시켜서 역대의 역사기록 중에 목민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 항목 카드에 메모하게 했다. 나중에 이것을 갈래별로 분류하여 정리시켰다. 다산의 5백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엮어진 편집서들이다. 다산은 조선 최고의 메모광이었을 뿐 아니라 편집왕이었다. 어떤 정보든지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무질서하게 흩어졌던 자료들이 일목요연해졌다. 평소의 메모습관과 생각관리 훈련이 귀양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놀랍게 꽂피운 것이다. 더 대단한 것은 다산이 자신의 작업 과정을 제자의 훈련 과정과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메모와 정리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후에 제자들도 나름의 역량을 갖춘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생각은 힘이 세다. 힘센 생각은 메모에서 나온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야. 생각은 금세 달아난다.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적어라. 위대한 천재들의 놀라운 성취 속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메모의 습관이 있었다. IN

필자 소개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 한국한문학을 전공하였다. 한국18세기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다산선생지식경영법』,『한시미학산책』,『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미쳐야 마친다』,『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외에 여러 책이 있다. 현재 18세기 조선의 지성사와 문화사를 횡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4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2011.5.28. 정부대전청사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생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개최되었으며, 매년 2,0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01 행사 포스터

02 기록문화 홍보 영상을 관람하는 참가자

03~04 백일장 기념행사로 진행된 2009년 수상작 전시회



05 백일장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경옥 국가기록원장

06 개회식장 입구 홍보 현수막

07~08 백일장 부대행사로 진행된 전통민속놀이 · 페이스페인팅 · 우드크레프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기는 참가자

09 행사 도우미로 참여한 제5기 나라기록넷띠와 함께한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오른쪽에서 4번째)

10~13 '우리의 기록사랑 이야기'란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에 열중하는 참가자



「세계기록의 날」 기념행사

2011. 6. 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는 세계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ICA 창립기념일인 6월 9일을 「세계기록의 날」로 제정하고 회원국 기록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01 기념사를 하는 이경우 국가기록원장

02 대통령실 김영수 연설기록 비서관의 축사

03 마틴 베렌(Martin Berendes) ICA 의장
축하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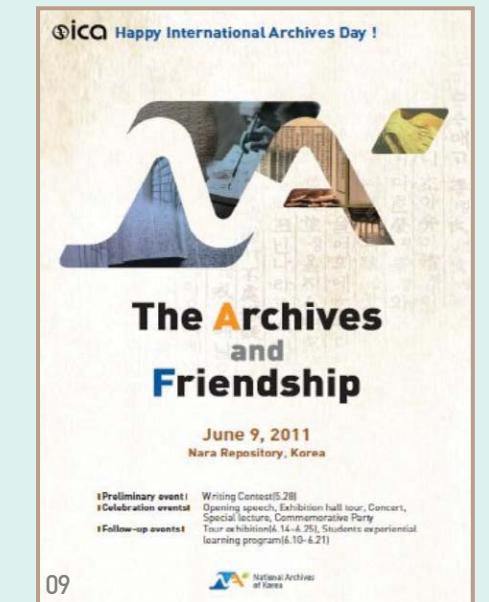
04 다카야마 마사야(Takayama Masaya)
EASTICA 의장의 축하메시지

05 기록사랑마을 주민과 '기록의 달인' 등 국민들의 「세계
기록의 날」 축하메시지와 2016년 ICA 총회 유치 기원의
염원을 영상으로 소개

06 기록관리 유공자로 선정된 정연경(이화여대 교수), 이강모
(국토해양부 기록연구사) 등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감사패
증정

07 '국가기록원 윤리규약' 낭독

08 김진현(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장) 위원장의 특강



09 「세계기록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10 국가기록원 풍물패 동아리 '기라성'의 축하공연



메모광 CEO의 기록스토리

오늘도 아이패드 자판을 두드린다

- 윤병철 한국FPSB, 한국FP협회 회장

기록 –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이끄는 힘

-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기록을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 배영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나의 기록스토리

- 정이만 한화63시티 대표이사

메모 _ 덤으로 얻는 평화

- 구자열 LS전선 회장



오늘도 아이패드 자판을 두드린다

▣ 윤병철 한국FPSB, 한국FP협회 회장



요즘 한 달에 두세 번은 조찬 모임에 나간다. 내가 관여하는 단체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최근 흐름과 분석,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그럴 때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 폰을 꺼내 강연 요지를 메모하고 때로 내 생각도 덧붙인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쟁겨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둔다.

책을 읽다가도 기억해 두고 싶은 대목,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글귀, 다음에 인용하면 좋은 구절 등을 아이패드에 기록한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도 신선한 생각이 떠오르면 빠짐없이 메모해 두려고 노력한다. 메모는 어느 새 내 생활의 일부가 됐다.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나를 ‘메모 광(狂)’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수첩이나 노트에 기록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스마트 폰과 아이패드로 바꾸었다. 첨단기기에 메모를 하다 보니 기록해둔 것을 언제든 꺼내 볼 수 있고, 주제별로 정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점이 많아서 만족한다. 메모에 있어서 ‘신세대’로 변신을 시도한 셈이다.

50년간 금융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메모한 수첩과 노트는 분량이 꽤 된다. 가끔 그것을 들춰 보노라면 내 영혼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기록물이란 생각이 든다. 그 때 그 시절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수첩과 노트는 정확하게 일러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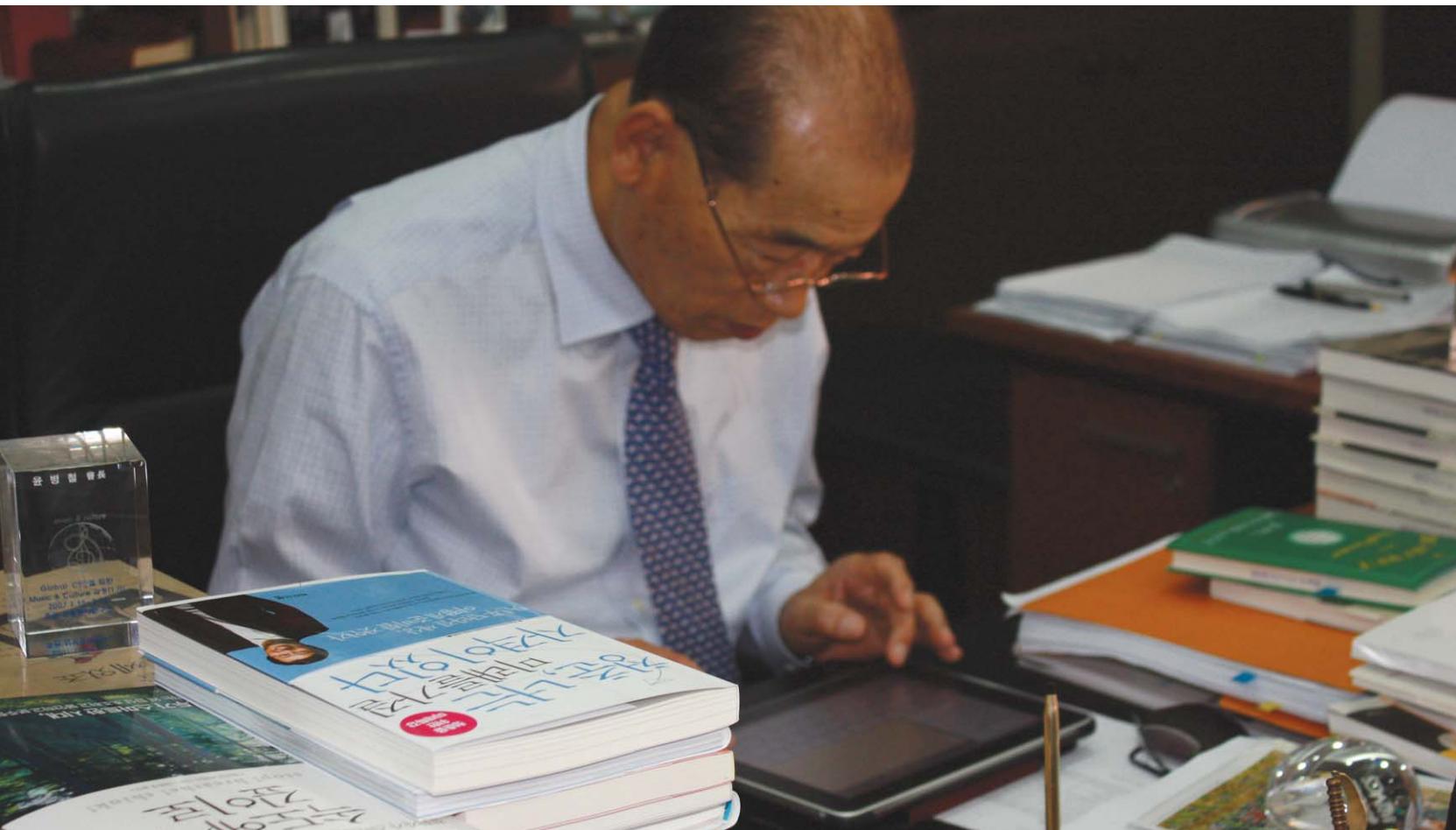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은 어려울 것” 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일을 여러 차례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단기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을 하나은행으로 전환시킨 일, 부실 데어리인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금융지주를 정상화시켜 뉴욕증시에 상장시킨 일, 미국에서 탄생한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 정착시킨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에는 기록의 힘이 작용했다.

내가 노력한 것은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을 눈여겨 보고 그 속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맥락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런 맥락을 찾아내고 기회를 붙잡는 일에 메모는 커다란 힘이 됐다.

하나은행장 시절 ‘유로머니’ 지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하나은행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운이 좋았다”고 했다. “그럼 운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길래 “주변 사람들이 성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기회를 잡는 것이 운이며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정리를 해서 내가 공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 기회는 스쳐가는 바람과 같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잡을 수 없다. 평소에 촉각을 예민하게 가다듬어 두어야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붙잡을 수 있다.



▶ 우리금융지주는 출범 2년 반 만에 뉴욕증시 상장이란 목표를 이뤘다. 윤병철 초대 회장(가운데)이 2003년 9월 29일 뉴욕증권거래소 벨 데스크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상장을 알리는 벨을 누르고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고민이 많을 때 지난 날의 메모장을 들춰보면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있다. 메모는 순간순간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 정보들이 맥을 이루게 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열어주며, 자칫 지나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 남들이 어렵다고 한 일,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손을 대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메모와 기록의 도움을 받아 세상과 금융과 경영의 흐름에 대한 맥락을 짚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머리 속에 담아두는 기억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쉬 잊혀지고, 감성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슴 속 깊이 새겨두고 있는 꿈, 희망, 의지 같은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슴 속에 심어놓은 꿈과 포부는 희미해지기 쉽고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겨둔 꿈과 포부를 시시때때로 들여다 보면서 그 꿈을 가꾸어 나간다면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일본의 한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미래의 포부를 적어서 책상 앞에 붙이게 한 뒤 날마다 이를 소리 내서 읽게 했는데 훗날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젊은이들이 속속 나타났다고 한다. 기록이 주는 위대한 힘의 한 예라고 하겠다.

그런 점을 감안해 하나은행장 시절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새해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봉투에 넣은 뒤 연말에 개봉해서 꿈과 현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내가 메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습관화하게 된 것은 1963년 전경련 조사부에 근무할 때부터이다. 당시 김입삼 사무국장은 대정부 정책 건의서 등을 만들 때 토론을 시킨 다음 공동으로 집필하게 했는데 이 때 요령있게 핵심을 잡아서 메모하는 방법을 익혔다. 이후 전경련 회원사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개발금융공사 등이 합작으로 설립한 한국개발금융에서 일할 때 훗날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김진형 사장이 기업경영과 조직관리 등에 관해 많은 깨우침을 주었고 이를 틈틈이 메모를 해둔 적이 있다.

이 메모는 훗날 내가 최고경영자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다. 개인적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기록 문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내가 한국개발금융에 근무하던 시절 미국인 고문이 20여명에 불과한 직원의 급여 지급을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수작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직원이 200명이 됐을 때 전산화하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큰 프로젝트가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조직의 기록은 하나의 시스템이자 소중한 자산이란 생각을 갖게 됐다.

조직이 하는 일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고 그것이 모여 조직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을 기록해두면 훗날 비슷한 상황을 맞았을 때 과거의 일이 노하우가 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맡아보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조직의 업무는 점점 개선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조직 차원의 기록문화이다. 문서의 전산화가 고도로 발달한 요즈음 웬만한 기업에선 업무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거의 다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처리의 노하우, 조직의 변천사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를 시스템화해서 조직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가 한국투자금융과 하나은행을 이끌 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직을 만들어 지원하기도 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조직 차원의 기록문화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오늘도 아이패드의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린다.

몇 줄의 문장 속에 나의 관심사, 나의 정신 세계가 담겨 있고, 훗날 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IN

필자 소개

1937년 경남 거제에서 출생하여 부산대 법대를 나와 1960년 농업은행에 입행하면서 금융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한국개발금융 부사장, 한국투자금융 사장, 하나은행 초대 행장과 회장, 우리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0년 한국FP협회를 설립하여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재무설계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 하나은행 설립 스토리를 담은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다(1996)」가 있다.

기록 –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이끄는 힘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인류 역사시대는 기록으로부터 시작

기록은 인류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자를 발명하고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을 통해 인류가 가진 정보, 지식, 경험, 지혜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초의 문자는 기원전 3000년 경 이집트의 신 토프가 만들었다는 이집트 신성 문자와 기원전 2850년 경 중국의 왕 복희가 만들었다는 한자로 알려져 있다. 이후 그리스 문자, 로마자, 한글 등 다양한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문자는 스타일러스(Stylus–오늘날 필기구의 기원이 된 뾰족한 도구들)나 갈대펜, 붓 등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거북이 등 껍질이나 동물의 뼈, 그리고 점토판에 기록을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파피루스, 양피지 그리고 비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이동이나 보관이 쉽지 않은데다 가격도 비싸며 구하기도 쉽지 않아 일반 대중이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2세기 중국 후한 때 채륜에 의해 종이가 발명되고, 8세기 당나라 때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기록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제지기술과 인쇄술이 유럽에까지 전파되면서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나 책 같은 인쇄물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었다. 이른바 정보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인류가 가진 다양한 지식과 생각, 사상, 지혜가 공유되고 발전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만약 기록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시대도, 오늘날과 같은 인류 문명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 전자·전기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전기전자기술 협회(IEEE)가 선정한 '2008 IEEE 명예회원' 선정 장면 (2007. 12.), 윤종용 상임고문은 한국인 최초로 IEEE 명예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기록문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뛰어난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은 총 238건인데 그 중 우리나라는 「직지」,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의궤」, 「승정원일기」, 「훈민정음 해례본」,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등 총 9건으로 세계에서도 우수한 기록문화 국가이다.

이외에도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많은 우수한 기록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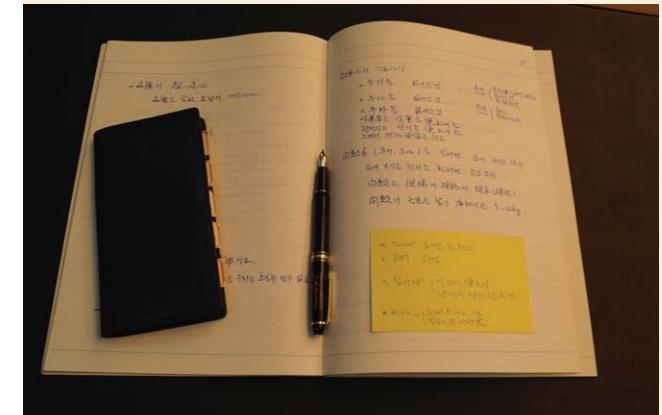
하지만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 6·25사변 등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기록문화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내가 오랫동안 몸담은 삼성전자도 40여년 전 최초로 생산한 라디오나 TV, 그리고 우리의 독자기술로 개발해낸 VCR 원형 제품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몇몇 사진과 문서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러한 기록이라도 없었다면 삼성전자 사사(社史)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9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조금씩 안정되어 가면서 국가 차원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윤종용 상임고문의 메모노트

나의 기록 습관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경영이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기록은 대단히 중요하다. 나 역시 삼성전자에 40여 년간 몸담으면서 CEO까지 오르는데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큰 힘이 되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앞서 경험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현재의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나의 경우 일정을 정리하는 다이어리와 함께 주제별로 노트를 이용하여 기록을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해온 노트가 족히 백 여 권은 넘는다.

CEO는 숫자감각이 매우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매출, 손익 등 중요한 숫자는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기록은 매우 유용한 기억의 저장창고이다. 기록을 하다보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느 순간 떠오른 참신한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기록은 사람의 두뇌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만들어 준다.

나는 한학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백부는 고향(경북 영천)에서 이름난 한학자였다. 여섯 살 꼬마 시절부터 백부께 중국 고전이나 역사, 성인군자들에 대해 배워야만 했다.

외가도 서당 집안이었던 까닭에 어머니께도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이런 친가와 외가 양쪽의 가풍은 메모광, 독서광이라는 나의 인생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던 스무 살 무렵부터 평생에 걸쳐 늘 곁에 두고 읽어온 책이 있다. 유교의 4대 경서인 사서(四書) 중 〈대학(大學)〉, 〈중庸(中庸)〉이 그 책들이다. 특히 〈대학〉에 나오는 구절인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을 깊이 살펴 지혜를 얻는다)’는 일생의 좌우명이 되어왔다. 좌우명과 함께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50년 넘게 귀를 열고 적고 또 적었던 축적된 메모습관이라 하겠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에서 강의하는 윤종용 상임고문



기록 –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이끄는 힘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유일한 흔적이고 실제의 기록이다.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살아왔고, 어떻게 새로운 도구와 기술이 발명되었고, 또 어떻게 산업과 사회 그리고 문화가 발전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력과 통찰력 그리고 선견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올바른 의사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에게 있어서 기록 습관은 삶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완료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개선·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잊지 않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록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기록을 생활화하여 개인의 역사, 더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IN



Yun Jong-Yong
Samsung Electronics
1996-2008
South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Insider CEO
MBA: No
Country-Adjusted TSR: 1.559%
Industry-Adjusted TSR: 1.458%

2

\$127 B

▶ 2009년 미국 하버드대 경영전문지인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최고경영자(CEO) 2위로 윤종용 상임고문을 선정하였다. HBR는 “윤 상임고문은 CEO가 되기까지 30년간 삼성에서 일했다”면서 “재임기간 삼성을 메모리칩 제조사에서 디지털 신기술 선도업체로 바꾸어놓았다”고 평가했다. 1위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선정됐다.



▶ 빌게이츠와 윤종용 상임고문

필자 소개

윤종용 상임고문은 평범한 엔지니어로 출발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대표 최고경영자라는 최고봉까지 올라간 삼성 신화의 주역이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전자 도쿄지점장, 종합연구소장, 전자부문 부사장, 삼성전기·전관 사장 등을 두루 거쳐 2000년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삼성전자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공학 한림원 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록을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 배영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다산 정약용 선생은 교육학자, 행정가, 사학자였고, 정치학, 국방, 토목공학, 기계공학, 지리학, 의학, 법학, 언어학에 능통한 전방위 지식인이었다. 모름지기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릴 만하다. 그가 쓴 저작물은 당대는 물론이며, 후세에도 큰 영향을 남겼다. 이러한 저작물은 특히 18년 간의 유배 생활동안에 쓰인 저서들이 많아 흥미롭다.

저작물을 쓰기에 부족한 자원과 자료, 여건 속에서도 수백 권의 저작물을 남겼다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겠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에 탁월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결과물의 원천은 메모습관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저술들의 대부분은 한 번에 서술된 것이 아니다. 그때 의미 있는 기록들을 메모해 놓은 뒤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적은 것들이다. 다산이 『서암강학기』, 『곡산북방산수기』 등의 기행문을 작성할 때는 가는 장소마다 일일이 지명을 묻고, 심지어 만난 사람의 이름도 물어 이를 메모했다고 한다. 또 여러 번 방문한 곳도 갈 때마다 기록을 달리해 저작물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자료로 썼다. 이러한 기록의 파편들이 밀거름이 되어 그의 수많은 뛰어난 저작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가히 기록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보홍수의 시대에서 기록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만만치 않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메일, 핸드폰 등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종이에 필기구를 놀려가며 꼼꼼히 기재한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연필로 놀려 쓰든지, 핸드폰으로 저장해 놓던지 간에 기록의 중요성은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여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넘치는 정보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지식관리의 시작이며, 그 시작점은 메모에서 나온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통한다. 아무리 첨단을 겉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록의 중요성 자체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의미다.

기록은 신뢰와 성공의 원천

필자는 1970년 코오롱에 입사한 이래 현재는 대표이사로 경영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평사원 시절부터 적자 사업부서에 배치되어 사업회사생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는 적자 회사 및 성장이 정체된 회사를 연달아 맡아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실현해 왔다. 그 덕분에 코오롱그룹 내에서 ‘최장수 CEO’, ‘구원투수’,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자부심이다.

현재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덕목 중 신뢰를 가장 큰 가치로 여겨왔다. 신뢰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직장상사,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록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는 효과적인 도구다. 신뢰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것이다.

철두철미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직원 시절부터 빼곡히 기록해 온 나의 메모노트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손때 묻은 다이어리에는 그 동안 고민을 해 왔던 경영아이디어, 전략, 사업철학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 수시로 과거의 노트들을 보면서 지금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음은 물론이다. 이것들이 현재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

다이어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회의내용에 대한 메모다. 크고 작은 회의 때마다 안건 메모는 기본이고,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받은 사항들은 번호를 매겨가며 꼼꼼하게 따로 기재해 놓고 있으니 웬만해서는 업무 진행 사항을 놓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 없다’는 믿음을 주는 건 사업의 기본이며, 이를 위해 기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사장이 꼼꼼하게 메모를 하다 보니 가끔 직원들이 고달프다고 하소연 할 때도 있다. 언젠가 한번은 직원 하나가 몰래 필자의 집무실에 들어와 메모되었던 지시사항을 지워놓고 간 일화도 있다. 사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직원이 그 사실에 대해 꾸지람을 들을까봐 벌인 짓이다. 그 사실이 발각된 후 그 직원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았음은 물론이다.



“ 어느 자리에서나
팔방미인이 되고 싶으면
좌중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래, 골프, 유머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
집에 가서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다.”



가정 대소사부터 유머 수집까지 기록으로

기록은 회사 밖에서도 유용하다. 가정과 관련된 일에서도 메모 습관은 많은 도움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가정에서의 성공도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의 도움을 받는다. 필자의 포켓 다이어리에는 부모, 아내, 자식과 형제는 물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포함한 처가 식구의 생일 및 행사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 매년 새로운 다이어리를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년치를 표시해 두니 한 번도 대소사를 잊어버린 일이 없다. 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들의 신뢰와 지지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이야 말로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나의 다이어리 달력에는 열흘 간격으로 표시된 동그라미가 있다. 그 날은 바로 이발을 하는 날이다. 대표이사가 되고 난 이후 내가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니 외모 관리도 중요하게 느꼈다. 하지만 일정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매번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이를 잊지 않기 위해 생각해 낸 나만의 방법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생각 하겠지만 간단한 표시로 외모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유용하다.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필자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다이어리에 기록 한다. 직원 모임이나 외부 모임에서 노래방에 갈 때 부르려는 노래 제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노래책을 가지고 찾지 않고 바로 번호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층 더 부드럽게 흘러간다. 같은 이유로 농담이나 유머 에피소드들도 꼼꼼히 기록해 놓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15년 정도 모으니 약 500여개가 된다. 가급적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많이 기록해 놓는 게 좋다. 유머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경향이 바뀔 뿐 더러 오래 전 이야기는 남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팔방미인이 되고 싶으면 좌중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래, 골프, 유머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 집에 가서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다.

특히 CEO가 되면 모든 만남에서 자기 자신을 남에게 잘 기억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유머와 관련된 메모 활용이 효과적 일 때가 많다.

수사차록법(隨思劄錄法)

그렇다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할까?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이 있듯, 결국 기록이라는 것도 각자의 개성에 따르는 것이 편하고 맞는 방법이다.

하지만 메모 습관을 처음 가지려는 입장에서는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또한 어떤 방법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인지 처음에는 알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다산이 썼던 방법으로 ‘수사차록법(隨思劄錄法)’이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적는다는 뜻으로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기록하던 습관을 표현한 말이다. 결국 다산의 기록법은 ‘수시’와 ‘즉시’의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생활에서 수사차록법을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어디에나 메모지를 두는 것이다. 필자는 주로 붙였다 뗄 수 있는 메모지를 이용하는 데 특히 침대 곁 협탁에는 이 메모지를 항상 비치해 놓는다. 번쩍이는 아이디어는 심신이 편안할 때 생각이 많이 나는 편인데 침대가 이에 꼭 맞는 장소다. 메모한 내용은 떼어 수첩에 붙여놓거나 간단히 옮겨 적기만 해도 온전한 나의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다.

작은 메모지여도 좋고,
휴대폰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이를 통해 휘발성이 강한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잡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기록,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

굳이 다산의 예가 아니어도 역사적으로 볼 때 천재들은 지독한 메모광이거나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많았다. 우수한 지능에 풍부한 기록까지 더해지니 성공을 향한 밑거름은 풍부한 셈이다.

사업 아이디어, 행사, 약속, 개인적인 일, 일기 등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먼저 기록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작은 메모지여도 좋고, 휴대폰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이를 통해 휘발성이 강한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잡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기록이라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만이 가지는 전리품이며,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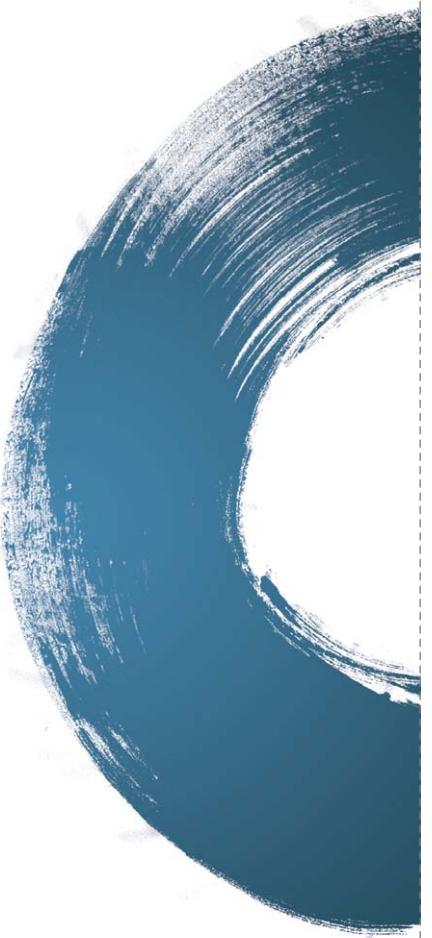
정보과잉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지식의 망망대해에서 당신을 구해줄 가장 중요한 무기로 지금부터 기록을 활용한다면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데 한발 더 다가갈 것이다. “탁월한 머리보다 무딘 연필이 앞선다.”는 격언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다. IN

필자 소개

배영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섬유 공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코오롱에 입사한 이래 코오롱 구미공장장, 코오롱유화 사장, 코오롱제약 사장, (주)코오롱 대표이사 사장, KTP 대표이사 사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적자기업 구원투수’, ‘소방수 CEO’라는 별칭이 말해 주 듯 열정과 뚝심의 경영인으로 대통령표창, 한국의 존경받는 CEO 대상,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 등을 수상하였다.

나의 기록스토리

◆ 정이만 한화63시티 대표이사



일본인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메모를 한다고 한다. 메모와 기록에 대한 일본인들의 습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일화이다. 나는 구매과장 시절에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사람들과도 많은 상담을 하였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일본 종합상사에 근무하는 일본인 매니저였다. 그 사람은 상담을 하면 그 내용을 꼼꼼히 노트에 기록을 한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깨알같은 글씨로 기록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상담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대충들 잊어버리고, 원래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도 그것을 캐묻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인 매니저는 달랐다. 저번 상담할 때의 노트를 꺼내놓고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조목조목 물어온다. 대충 둘러대고 싶어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메모의 힘, 기록의 힘을 그 일본인 매니저는 느끼게 해 주었다.

나는 해외출장을 가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메모장을 꼭 가지고 간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밥을 먹으며, 일을 하며, 버스를 타며, 여행지를 둘러보며 그때 그때 특이한 점, 느낀 점 등을 메모 해 놓는다.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 바로 메모 해 놓아야지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잊어먹기 때문이다. 여행이 끝나면 메모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와이프에게 그 메모를 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얘기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꼭 업무시간에만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과 얘기 중에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일수록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잠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형광등이 번쩍 들어오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 옆에도 꼭 필기도구와 메모장을 갖다 놓는다. 어떤 때는 잠결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불을 켜서 메모지에 적자니 잠결인지라 많이 귀찮을 수가 있다. 그럴 때면 그냥 벽지 위에다 괴발 개발의 글씨로 중요한 단어만 적어 놓는다. 그 다음날 정신이나서 그 글씨를 읽어보아도 무슨 생각으로 써 놓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느 날 골프장에 나갔는데 상사의 전화가 왔다. 통화를 해보니 이것은 내용을 잘 기록해서 조치를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급한 김에 캐디에게 스코어 카드용지와 볼펜을 빌려서 메모를 시작했다. 그런데 통화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같은 팀 멤버들은 그냥 보내버리고 나는 페어웨이 옆 산중턱에서 계속 메모를 했다. 통화내용이 복잡하고 통화시간이 길어지면서 스코어 카드는 앞뒤로 빽빽이 채워졌다. 더 이상 메모할 곳이 없어졌다. 이를 어찌나? 이럴 줄 알았으면 스코어 카드를 몇 장 더 구해 놓았을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보니 내가 신고 있는 골프화 중 하얀 부분이 눈에 띠었다. 나는 신발을 벗어서 골프화의 하얀 부분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통화는 다행히 골프화 두 짹의 하얀 부분을 다 채울 때쯤 끝이났다.

나는 메모한 내용을 깨끗이 정리하여 후속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팀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그들은 예외없이 웬 미친놈인가 하며 나를 보고 수근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서비스업종의 서비스 수준도 결국은 기록의 산물일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호텔 식당에 가면, 그 호텔의 단골손님이라면 이 손님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고, 고기는 Medium인지 Well done인지, 술은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 담배를 피우는지 안피우는지,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지 등등을 세세하게 기록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식당 매니저가 바뀌어도 한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매니저가 바뀌었다고 모든 걸 처음 온 손님처럼 해버리면 그 고객은 더 이상 그 식당을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번은 회사의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인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얘기였다.

마음 같아서는 수첩을 내놓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 몇 마디 빼고는 다 잊어먹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뛰어대고 화장실에서 중요한 단어 중심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였다. 그날 본의 아니게(?) 화장실을 여러 번 드나들어야 했다. 그 분도 저 친구는 화장실을 자주 드나드는구나 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나는 그 메모 덕분에 나중에 충실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나의 룰모델은 나폴레옹이다. 나는 성경, 삼국지, 나폴레옹 평전을 각각 50번 이상 읽었다. 이 3권의 책은 내 인생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나폴레옹은 독서광이었다.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면서도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독서광이 되려고 했다. 일주일에 한권, 일년에 50권, 10년에 500권, 20년에 1,000권, 30년에 1,500권의 책을 정독하여 읽었다.

나폴레옹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버릇이 있었다.

나도 나폴레옹을 본받아 책을 읽으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별도로 메모해두고, 책을 읽은 소감문도 같이 써둔다.

결국 이렇게 읽은 책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얘기한다. 사장되려면 책 1,000권 읽으라고.

나는 평생일기를 쓴 사람이다. 초등학교 때는 숙제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니 평생을 일기를 쓴 사람이 된 것이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일기장은 이사를 다니면서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에 업무일지 1권에 쓴 일기장은 모두 가지고 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으니 30여권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는 애장품으로 이 30여권의 일기장이 신문에 기사화된 적도 있다.



일기를 쓰면 무엇이 좋은가? 우선 개인의 역사가 기록된다. 이 일기장에는 지난 30년간 나의 모든 이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일종의 사초이다. 나는 나중에 이 일기장을 바탕으로 소설, 에세이, 리더십관련 책 등을 집필할 꿈을 가지고 있다.

일기를 쓰면 또한 문장력이 탁월해 진다. 문장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만 문장력이 키워진다. 일기만큼 문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일기를 쓰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부하직원은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지만 웃직임으로 올라갈수록 조직의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결국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것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자발적 복종을 일으킬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자발적 복종은 부하의 마음을 얻을 때 가능하다. 부하의 마음을 얻으려면 인격과 인품이 훌륭해야 한다. 이 인격과 인품을 배양하려면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기는 자신을 돌아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씩 CEO편지를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줄곧 써왔으니까 7년이 넘게 CEO편지를 쓴 셈이다. 덕분에 '편지쓰는 CEO'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CEO편지에는 회사의 중요한 이슈들과 그에 대한 CEO의 생각을 담아왔다. 그래서 우리직원들은 회사에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 CEO는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와 회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CEO와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 CEO메일로 모아 만든 서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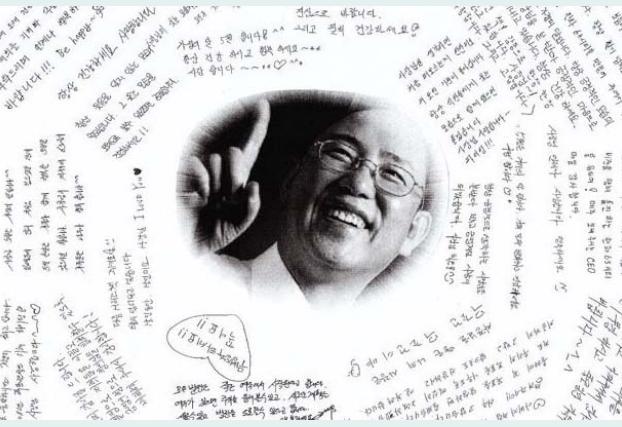
또 그 내용에 대한 부하직원들의 생각도 여과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회사의 하나의 역사책이 되고 있다.

회사의 중요한 이슈들이 모두 CEO메일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요즈음 지속가능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해 투명경영, 윤리경영, 환경영영, 정도경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위아래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경영 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CEO메일도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니다. 그 메일을 읽고 교훈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얘기와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늘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고 해서 끊임없이 CEO메일에 소재가 되는 자료들을 모아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료들에 대한 메모를 꼼꼼히 해 놓아야 한다. 언제 어느때나 쉽게 편하게 뽑아쓸 수 있게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자료준비가 잘 될수록 임팩트있는 CEO메일이 쓰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은 내가 살아오면서 메모나 기록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적어보았다. 새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기록하는 좋은 습관을 키워나가려 한다. IN

필자 소개

'편지 쓰는 CEO', '평범한 직장인에게 꿈을 주는 최고 경영자(CEO)', '감성경영 CEO' 등 정이만 대표이사를 이야기할 때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수식어이다. 정이만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한국화약에 입사하였으며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경영팀장, 홍보팀장을 거쳤다. 이후 광고대행사 한컴과 63시티, 한화개발(서울프라자호텔)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하였으며 현재 (주)한화63시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서울역사 사옥에서 보내온 어버이날 편지



▶ 직원에게 그려준 그림

메모 _ 덤으로 얻는 평화

◆ 구자열 LS전선 회장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사업과 제품 특성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2003년 초 LS전선에 최고경영자로 부임하면서 회사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PI(Process Innovation)와 동종 업계에서는 최초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임직원들이 반대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반대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였다.

그 즈음 우연히 옛 수첩을 뒤적거리게 되었다. 그 때 젊은 시절 급하게 갈겨쓴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장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놀라서 달려온 임원들 앞에서 나는 칠판에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No Innovation, No Future” (혁신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이것은 제가 1980년대 뉴욕에서 일할 때 적었던 문구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 호황기를 맞은 80년대 뉴욕은 정말 빠르고 바쁘게 변화하는 도시였다. 내로라하는 기업과 인재들이 매일같이 벌이는 치열한 각축전에 살벌함마저 느껴졌다.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처음 느낀 시절이었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공유해야 할 정보도 너무 많았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 없어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늘 메모를 해야만 했다.

그 당시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도태된다는 압박감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적어놨던 말이었다. 특별한 말은 아니지만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당시의 느낌이 되살아났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로 나가려면 ‘과거청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반대 의견을 끝까지 설득했고, ERP를 비롯한 전 부문의 혁신을 추진했다. 예전에 우연찮게 적어 놓던 짧은 메모 한마디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현재 LS전선은 세계 3위의 전선업체로 성장했다.

메모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알게 된 것은 국민학교 다닐 때였다. 아버지가 쓰시던 가죽 수첩 앞에 적혀있던 ‘memo’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 본 것이다.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돋기 위하여 짤막하게 글로 남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기억을 돋기 위한 도구라는 개념에 난 매료됐고, 그 단어를 수첩 제일 위에 크게 적어 놓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연필에서 만년필로, 수첩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상은 변했지만 나의 메모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메모하기를 좋아했던 내가 메모를 할 수가 없어 아쉬웠던 적도 있다.



2002년 아디다스 주최로 독일에서 열린 ‘트랜스알프스’에 아시아인 최초로 참가하여 완주했을 때다. 7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막상 해발 3,000m를 넘어가자 몸에 신호가 왔다. 엉덩이는 짓무르고 다리는 감각조차 없었다. 하지만 머리만큼은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달리면서 쉬면서 갖가지 재미있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웬만 있었더라면 팔뚝에라도 적어놓을 텐데……’

대신에 나는 머리 속으로 메모를 했다. 중장기 회사 발전 계획도 세우고, 차기 신제품 개발 진척도 점검해 보고, 서울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건지 끊임없이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자전거 달리기를 멈추면, 저녁을 먹고 한숨 돌린 뒤 메모를 했다. 또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머리 속의 지난 기억들을 비우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만든 계획들을 세우고 메모하고 비우면서, 점점 힘든 레이스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

이런 메모의 의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LS전선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보고를 받아야 했고, 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고, 더 빠른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했다.



▶ 직원들과 산악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구자열 회장

이때마다 난 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메모를 했고, 그 메모들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단순하게 사실을 적거나, 지시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것을 심사숙고하고 머릿 속에서 경영상황을 늘 시뮬레이션하면서 거기서 얻은 중요한 인사이트(insight)를 정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과 중요한 M&A들을 진행하였고, 나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이때부터 메모는 내 사색의 친구가 되었다.

아무리 서투른 메모라도 총명한 기억력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둔필승총(鈍筆勝聰)이라고 했던가! 기록의 힘이다.

메모는 자세한 분석이나 멋들어진 문구가 아니어도 좋다. 찰나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통찰력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해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메모는 생각을 살리는 작업이고 과거를 끌어오는 마중물과 같다. 손수건이든, 손바닥이든 심지어 휴지이든 어디든 좋다. 위대한 순간의 거룩한 기록인데 어딘들 어찌랴!

현재 회사의 CEO를 맡고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만큼 챙겨야 할 일도, 기억해야 할 것도 많다 보니 그때그때 메모를 하지 않고서는 일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제는 메모는 필요가 아니라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되어버렸다. 메모는 내 인생의 순간마다 그 의미를 바꾸면서 내 주변에 있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난 중요한 순간에 메모를 할 것이고, 어려운 판단을 할 때 메모를 확인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메모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쩐지 손으로 직접 적는 것만 못하다.

손으로 적은 것을 보면 같은 말이라도 당시 상황이나 느낌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술자리에서 내일 딸아이의 생일을 쟁겨 줄려고 손바닥에 적어놓고 지금 질까봐 주먹도 쥐지 못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에게 메모란 기억력의 극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메모를 하면서 메모하는 그 순간의 평화를 덤으로 얻기 위한 것은 아닐까? IN

“
메모는 생각을 살리는 작업이고
과거를 끌어오는 마중물과 같다.
손수건이든, 손바닥이든
심지어 휴지이든 어디든 좋다.
위대한 순간의 거룩한 기록인데
어딘들 어찌랴!”

필자 소개

구자열 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 LS전선 회장을 맡고 있다. 'No Innovation, No Future'를 모토로 LS전선을 글로벌 No. 3로 키워내, 대한민국 전선 산업의 수준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혁신 전도사'다. 대외적으로 국제전선협회 상임이사,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베트남 명예 영사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江) 소재 가요는 ‘역사의 한 시대 증언’

◆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취재본부장



강은 삶의 터전이자 문화·문화의 소재지다.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소양강 등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 지금의 도시로 발전했다. 거기엔 역사가 흐른다. 이처럼 강은 생명의 젖줄이요 생활현장이다. 자연히 강과 관련된 문화가 발전했다. 소리문화인 노래도 예외가 아니다. 그 속에 만남, 사랑, 이별, 눈물, 즐거움이 담겨 있다. 특히 대중가요 속의 강은 역사의 한 시대를 증언하기도 한다. 강을 소재로 만들어진 노래 사연과 강 이야기를 짚어본다.



● ‘눈물 젖은 두만강’, 독립투사 남편 잃은 여인 소재

강을 배경으로 한 가요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눈물 젖은 두만강’이다. 작고한 원로가수 김정구 선생의 간판곡이다. 대한민국 대표 국민가요라 해도 손색이 없다. 김용호 작사, 이시우 작곡으로 KBS 제1라디오의 최장수프로그램인 ‘김삿갓 북한방랑기’ 시그널음악으로 북한에서도 다 안다. 4분의 2박자로 흥겹다. 노래의 배경지역은 두만강 하구.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 있는 옛 나루터다.

노래 사연은 7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란강으로 유명한 용정에서 작곡가 이시우씨가 공연을 마치고 여관방에 묵게 됐다. 거제 출신인 이씨는 일찍 고향을 떠나 만주에서 대학을 나왔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극단생활을 했다.

어느 날 그가 용정공연을 끝내고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옆방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그는 여인을 만나 “어젯밤 왜 그리 슬프게 울었느냐”고 물었다. 수십이 가득한 그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얘기를 들려줬다. 독립투사로 일본군에게 끌려가 숨겼다는 것이다. 이씨의 머릿속엔 여인의 흐느낌과 애닮은 사연이 오랫동안 떠나질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여인의 구슬픈 사연을 오선지에 담았다. 여기에 작사가 김용호 선생의 노랫말을 붙인 게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이다. 1938년 OK레코드사를 통해 음반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는 지금 까지 애창되는 ‘국민가요’가 됐다.

노래가 유명해지자 가수 김정구 선생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노래비까지 섰다. 김 선생의 별세 2주기에 맞춰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구 훈춘시 두만강변에 비가 세워진 것이다. 두만강변 옛 나루터는 합경북도 남양시가 바라보이는 곳이다. 한국가수협회 선·후배가수들이 뜻을 모아 세운 이 비는 고인의 통일염원을 기린다는 취지로 제막됐다. 김 선생의 고향인 원산에도 노래비를 세우고 미국에 있는 고인의 유해를 모셔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전우야 잘 자라’… 낙동강, 한강에 전쟁 애환 담아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이 부른 ‘전우야 잘 자라’는 6·25전쟁 때 숨진 전우에 대한 슬픔과 낙동강까지 밀린 국군이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북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 추풍령, 한강, 38선으로 이어지는 국군의 진격방향을 잘 보여준다. 노래에서 낙동강과 한강은 민족의 비극이 서린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조성된 현인광장

4절까지로 된 이 노래는 1951년 국방부 연예중대에서 근무하던 유호씨가 작사하고 같은 중대의 박시춘 씨가 작곡했다. 4분의 4박자로 행진곡 풍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이 9·28서울수복 뒤 38선을 넘어 북진할 때 만들어진 진중가요다. 비장하고 애조 띤 곡조에 폐부를 찌르는 듯한 노랫말이 6·25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 등골이 오싹해진다. 전쟁기간 장병들 심정을 노래한 ‘전선야곡’과 함께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준 이 곡은 일명 ‘북진의 노래’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노래가 히트하기까지 에피소드가 많다. 셋째 소절의 ‘적군’(敵軍)은 원래 ‘적구’(赤狗)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군’으로 바뀌었다. 초기 ‘적구’와 ‘적군’ 발음이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적군’ 이란 용어에 익숙해 당연히 ‘적군’ 일거라고 생각해 부른 게 굳어져버렸다. 이 노래는 한때 금지곡이기도 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란 가사가 전쟁 중이던 군인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노래는 1963년 만들어진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주제가로도 유명하다. 원곡은 현인 선생이 불렀지만 영화주제가는 남성 노래그룹 ‘별 넷’이 힙창했다.

이동현 작곡, 김용환 작사, 김정구·이인권 등이 부른 ‘낙동강 칠백리’는 생명의 젖줄로서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가요다. 삶과 역사현장인 낙동강의 의미를 되새겨주기에 충분하다. 강을 배경으로 사랑을 읊조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곡은 다르다. 강의 미덕을 노래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

● 떠난 임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의 애달픈 마음

'영산강 처녀'는 천지엽 작사, 송운선 작곡, 송춘희 노래로 1964년 발표돼 히트했다. 이 곡엔 때 묻지 않은 청춘남녀의 사랑과 이별이 녹아 있다. 임을 그리는 마음이 영산강을 무대로 펼쳐져 있다. 서울로 간 님의 연락도 없고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자 애탠하는 영산강처녀의 그리움이 담겨있다. 오작교라도 놔서 어서 오길 기다려보지만 서울서 색시와 만나 정을 나누기라도 하는 것인지 임이 오지 않아 눈물의 한이 서린다고 했다. 2000년 전남 화순 너릿재공원에 '영산강 처녀' 노래비가 섰다.

**영산강 구비 도는 푸른 물결 다시 오건만 / 똑딱선 서울 간 님
똑딱선 서울 간 님 /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 / 못 믿을 세월 속에
안타까운 청춘만 가네 / 길이 멀어 못 오시나 오기 싫어 아니 오시나
/ 아~ 아 푸른 물결 너는 알지 말을 해다오~**

1956년 악극단에서부터 노래를 시작한 송춘희는 황금심·황정자를 잇는 민요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김부자, 조미미, 김세례나가 그의 후배이다. 1937년 10월 8일 평북 영변에서 8남매 중 맨딸로 태어난 그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포교사로 불심이 깊다.

한편 지난해 11월 19일 영산강이야기를 테마로 한 '2010 영산강 스토리 페스티벌'이 광주시 광산구 원당산공원 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주제는 설화, 역사, 예술작품, 생활에 얹힌 영산강 이야기. '영산강처녀', '엄마야 누나야', '부용산기' 등 영산강 관련 노래들이 공연되고 맛깔스런 지역음식들도 선보였다.

'영산강 처녀'와 함께 최규창 시인의 작품을 노래로 만든 '영산강'도 있다. 이대현의 '영산강'은 강에 의지하며 살아온 옛 사람들 삶의 풍경과 애환을 짐작케 한다.

영산강 상류 어느 마을 강가에서 빨래하던 어머니를 떠올린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옛날 빨래하던 자리에 앉아보니 물 위에 어머님 모습이 어른거린다. 강을 통해 어머니를 추억하고 강을 통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만든다.



● 6·25전쟁 중에 나와 히트한 '한강'

한강과 관련된 노래는 ▲1950년대 '한강' (심연옥)
▲1960년대 '한강소야곡' (박재란) ▲1970년대 '제3한강교' (혜은이)가 있다.

'한강'은 최병호 작사·작곡, 심연옥 노래로 1952년 발표됐다. 서울지역 노래 중 가장 많이 리메이크됐다. 18번이나 다른 가수들이 취입했을 정도다. 6·25 전쟁 중 취입해 히트한 '한강'은 동족끼리의 전쟁 아픔을 노래했다. 원래 유성기음반을 통해 노래만 녹음(취입)했지만 훗날 이 노래 앞부분에 성우(여자 사미자, 남자 이창환)들의 내레이션이 들어갔다.

**한 많은 강가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 어제 밤 이슬
비에 목 메여 우는구나 / 떠나간 그 옛님은 언제나
오나 / 기나긴 한강 줄기 끊임없이 흐른다**

노래를 부른 심연옥은 1929년 서울서 태어나 1947년 KPK악단에서 가수로 뛰기 시작했다. 그 때 KBC레코드에서 '한강'을 취입했다. 그녀는 전쟁이 터지자 피난지 대구의 오리엔트레코드에서 '아내의 노래'를 취입했다. 전쟁 후 도미도레코드에서 손로원이 가사를 바꾼 '한강'을 발표했다.

신인가수였던 심연옥은 1955년 인기가수 백년설과 결혼했다. 1978년 백년설, 심연옥이 친일가수라 하여 로스앤젤레스로 이민 갔다. 백년설은 1980년에 세상을 떠났고 심연옥은 미국에 산다.

1965년에 나온 '한강소야곡'은 한강을 통한 서울의 희망과 꿈, 경제성장을 노래하고 있다. 소야곡은 세례나데로 가벼운 느낌의 저녁노래란 뜻이다.

'한강소야곡'은 1960년대 제2한강교(1965년 준공, 양화대교) 주변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1960년대 '팔도강산' 류의 정부정책 홍보성 영화에도 이곳이 자주 등장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뉴스의 단골장면이었다.

'제3한강교'는 길옥윤 작사·작곡, 혜은이 노래로 1979년에 소개돼 히트했다.

이 노래는 얼마 후 가사가 바뀌었다. 원래가사는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 이 밤이 새면은 첫차를 타고 /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였으나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 이 밤이 새면 첫차를 타고 /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로 달라졌다. 그 때 우리 사회에선 처음 만난 사람과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사회윤리적인 입김이 작용했다. '이름 모를 거리'가 갖고 있는 모호함도 용납될 수 없어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말 고고장에 이은 디스코장, 디스코클럽의 최고 인기곡이었다. 노래 중간에 가수 혜은이가 '하!' 하고 외치는 부분이 나온다. 이 대목에선 모든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높이 들고 치르는 흥내를 내기도 했다.

이 노래는 1969년 제3한강교(한남대교)가 완공된 지 10년이 되던 해에 만들어졌다. 한남대교는 서울의 강남·북을 잇는 가장 짧은 다리다.

일제강점기 때 선조들은 한반도엔 '한강'을 중심으로 5대 강이 있다고 했다. '오대 강 타령'도 그래서 나왔다. 1934년 7월 김능인 작사, 문호월 작곡('노들강변' 작곡가), 이난영 노래로 오케레코드를 통해 발매됐다. '오대 강 타령' 노랫말이 재미있다. 지리책을 보는 듯 강의 특징과 역할이 잘 그려져 있다. 한강의 옛 이름은 노들강, 아리수(阿利水)다.

**북쪽은 압록강 뗏목 실어오는 물 / 물우(위)에 자고
일고 몇 밤이려나 / 동쪽은 두만강 간도 살이 가는
물 / 고향을 떠나갈 때 눈물은 피 빛 / 서쪽은 대동
강 여울 경치 좋은 물 / 모란봉 돌아올 때 갈매기
너울 / 중앙은 노들강 역사 자취 깊은 물 / 한양 땅
오백년에 몇 구비 쪼나 / 남쪽은 낙동강 곡식 실려
가는 물 / 이 쌀을 실어다가 님께 드리리**

**"강 소재 가요는 '역사의 한 시대 증언'
삶, 만남, 사랑, 이별, 눈물, 즐거움이
담겨있다"**



● 동원훈련기다 악상 떠올라 만든 '북한강에서'

'저 어둔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릴 짓누르고...
강가에는 안개가'로 나가는 노래 '북한강에서'는 가수 정태춘이 불렀다. 1984년 발표된 이 노래 속의 북한강엔 새벽이 있었고 물안개가 자욱했다. 노랫말에 묻어나오는 회색의 절규는 듣는 이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엇갈린다.

이 노래는 시위와 항쟁의 198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자들 집회현장에서 인기였다. 1980년대 초 3년간 북한강 인근 군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오가며 느낀 심경을 시로 쓴 뒤 노래로 만들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트럭을 타고 군부대를 향해 북한강 새벽강가를 달리던 정태춘의 악상이 노래가 된 것이다.

1979년 모 방송사 신인가수상을 받은 그는 잇따른 음반실패의 좌절감을 물안개가 자욱한 북한강에 실어 노랫말로 만들었다.

'북한강에서'는 최루탄 냄새를 맡아본 세대들에겐 가슴 뭉클하게 하는 뭔가 있다. 평택 태생인 정태춘은 바다는 봤지만 강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북한강에 대한 느낌도 남달랐다. 정태춘은 강, 하늘, 구름 등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으로 북과 팽과리를 들고 음반의 사전심의 철폐를 위해 온몸을 던졌다.



● 가수지망 춘천아가씨 소재로 한 '소양강 처녀'

'소양강 처녀'는 누구나 즐겨 부르는 국민가요다. 노래가 첫 선을 보인 건 1969년. 마산출신 작사가 겸 가수인 반야월 선생(본명 박창오)이 노랫말을, 이호 선생이 곡을 만들었다. 노래는 여가수 김태희가 불러 히트했다.

4분의 2박자 트로트풍인 이 노래엔 반 선생과 춘천아가씨 사이에 얹힌 사연이 있다.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명보극장 앞 네거리에서 을지로 3가 쪽으로 10여m 가다보면 '한국가요반세기 가요작가 동지회' 사무실이 있었다. 그 땐 명보극장과 스카라극장 주변이 스카라 계곡이라 불리며 영화·쇼·가요관계자들이 정답을 나눴던 곳이다.

작가동지회 사무실엔 윤기순(尹基順)이란 소녀가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가 일하게 된 건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가수 꿈을 안고 서울로 온 강원도 출신의 가난한 집안의 막딸로 가사를 돋는데 책임이 큰 처녀였다.

반 선생이 한국가요작가협회장으로 있을 때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왔다. 그는 다소곳이 인사한 뒤 자신을 소개했다. 나이는 18살, 고향은 춘천, 희망은 가수였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서울로 왔다"며 음반취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반 선생은 난감했다. 음악적 자질이나 능력,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까닭이다.

반 선생은 소녀의 집념이 워낙 강해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배려했다. 그녀는 성실히 일했다. 가요작가 김종한 선생도 짬짬이 개인레슨을 해주며 가수 꿈의 한을 풀어주려고 힘썼다. 교습비도 제대로 못 낸 윤기순은 노래공부를 하면서도 죄송스러워 했다.

그래서 그는 묘안을 냈다. 스승인 김 선생, 반 회장과 작사가 고명기·류노완·월경초 선생 등을 소양강댐 상류의 고향집으로 초청한 것이다. 그녀는 부모에게 "가수가 되기 위해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잘 대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려 승낙을 받았었다.

일행은 날을 잡아 춘천으로 갔다. 윤 양의 아버지는 소양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서울손님을 정성껏 맞았다. 귀한 손님이 왔다면 민물고기 매운탕을 끓여내고 토종닭도 잡았다.

소양강변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윤 양은 반 선생에게 "회장님! 저기 갈대숲이 보이죠? 거기다면 경치도 좋고 놀기가 참 좋아요. 저 섬으로 가요!"하고 청했다. 일행은 나룻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 노는 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바람이 몰아쳤다. 천둥번개가 쳤고 이에 놀란 윤 양은 "어머 무서워!"하면서 바로 옆 반 선생에게 달려가 안겼다. 둘은 졸지에 포옹(?)을 하게 돼 짜릿함을 느꼈다. 10여분 뒤 햇살이 비쳤다. 일행은 물으로 나와 젖은 옷을 말린 뒤 서울로 돌아왔다.

반 선생은 그때 소양강변에서의 황혼과 18살 소녀, 멀리 보인 갈대밭 등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메모해뒀던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을 만들었다. 엉겁결에 일어난 18살 딸기 같은 춘천아가씨와의 포옹 때 느꼈던 감정과 전경을 노랫말로 엮어낸 것이다.

이듬해인 1969년 봄 반 선생은 가사를 들고 오아시스레코드를 찾았다. 신곡으로 쓰라며 내어주자 그 회사 문예부 상담역이었던 작곡가 이호 선생이 작곡을 자청했다. 노래를 부를 사람은 가수지망생 김태희(본명 박영옥)로 정해졌다. 편곡은 밀양출신 음악인 박시준 선생이 먼 친척뻘 되는 김태희를 위해 힘썼다. 그렇게 탄생된 노래가 '소양강 처녀'다.

음반이 나오고 방송을 타자 노래는 순식간에 떴다. 30만장 이상 음반이 팔리며 대히트한 것이다. 김태희 아버지는 담례로 반 선생에게 양복을 선물했다.

레코드사엔 대박이 터졌다.

세월은 흘러 가수 김태희는 그 후 이렇다 할 히트곡을 못 내고 인기대열에서 멀어져갔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92년 여가수 한서경이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된 '소양강 처녀'를 리메이크해 인기를 끌었다. 원래 없던 3절 가사까지 넣은 노래는 '노래방 최고인기곡', '가요 베스트10'이 되기도 했다.

그 뒤 춘천시가 소양강 입구 주차장에 노래비를 세웠다. 노래 덕에 지하샛방에 살던 편곡자(강 모씨)가 집을 사고 작업실도 차릴 수 있었다는 뒷얘기와 노래주인공 행방도 흥미롭다.

소양강변의 윤 양 집은 이사 간지 오래돼 춘천시가 경찰청에 협조를 얻어 찾아냈다.

컴퓨터 조회 결과 광주광역시에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취입곡 하나 없는 50대 중반의 '무명가수 윤미라'로 밤무대를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7년만인 2006년 4월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하는 식당 일을 돋고 있다.



▶ 소양강 처녀 동상



▶ 소양강 처녀 노래비

● 금강을 소재로 한 '백마강'과 '꿈꾸는 백마강'

금강인 백마강도 노래소재지가 됐다. '백마강'과 '꿈꾸는 백마강'이 대표곡이다. 두 곡 다 부여 일대를 흐르는 금강과 관련된 노래다.

손로원 작사, 한복남 작곡, 허민 노래의 '백마강'은 멸망한 백제의 안타깝고 애달픈 마음을 그렸다. 4분의 2박자 트로트로 1~3절 맨 끝 부분에 삼국시대 의자왕 때 낙화암에 떨어져 죽었다는 삼천궁녀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삼천궁녀'란 가사는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다. 삼국시대 백제관련 기록에 삼천궁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숫자를 나열한 게 없다. 삼국유사에서 낙화암에 궁녀 일부가 떨어져 죽었다는 내용이 전해올 뿐이다.

삼천궁녀란 말이 나온 건 조선시대 때 어느 선비가 낙화암 부근을 지나다 '삼천궁녀'란 말이 붙은 시를 짚게 되면서부터다. 여러 선비들이 이 내용을 끌어다 쓰면서 퍼졌다. 시에서 말하는 삼천은 숫자 3000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성인 삼천을 말한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표현이 좋은 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아픈 현실과 삼천궁녀란 단어의 감정이 맞아떨어져 가요로 퍼지게 됐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꿈꾸는 백마강'도 금강과 옛 백제를 노래했다. 김용호 작사, 임근식 작곡, 이인권 노래로 4분의 2박자 트로트곡이다. 이인권 선생의 대표곡들 중 하나로 첫 작사가는 월북한 조명암이다.

몰락한 백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노랫말에서 흐른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때 널리 사랑받았지만 일제가 망국의 설움을 노래하는 것을 불온하게 여겨 부르지 못하게 했다.



▶ 부여 구드래유원지에 위치한 백마강 노래비

● 처녀 뱃사공, 낙동강 함안 악양나루 배경

1960~70년대 많이 불렸던 '처녀 뱃사공'은 낙동강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윤부길 작사, 한복남 작곡, 황정자 노래로 4분의 2박자 트로트곡이다. 경쾌하면서도 듣기기에 따라선 애잔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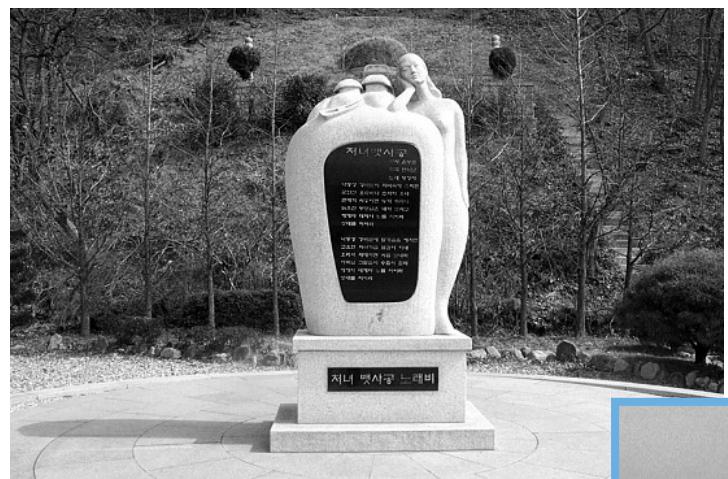
1959년 소개돼 심금을 울린 이 노래는 배를 젓는 처녀사공의 사연이 담겨 있다. 노래 배경지는 함안군 대산면 악양나루.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 군인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 / 큰 얘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 에 헤야 데 헤야 노를 저어라 / 삶대를 저어라

'처녀 뱃사공'이 만들어진 사연은 이렇다. 6·25전쟁 휴전협정이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1953년 9월 유랑극단장이었던 윤부길씨가 가야장공연을 마치고 대산장으로 가던 중 악양나루에서 쉬고 있었다.

함안군 가야면과 대산면엔 5일장이 섰고 그때 전국을 떠돌던 유랑극단이 장에 모여든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던 것. 노래와 춤, 연주, 만담 등으로 대중들을 즐겁게 해줬다.

유랑극단 단원들은 전쟁과 가난으로 뱃사공의 집이 폐허가 됐으나 평화로운 전경이 마음에 들어 지친 몸을 풀 겸 그곳 나루터 뱃사공집에서 묵기로 했다.



▶ 처녀뱃사공 노래비



윤 단장 일행은 군에 입대한 오빠(박기중/6·25전쟁 때 전사)를 대신해 박말순(작고/당시 23세), 박정숙씨(당시 18세)가 강바람에 치마를 휘날리며 교대로 노를 저어 지나는 길손들을 건네주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루터 뱃전에서 처녀뱃사공의 이런 사연을 듣고 봤던 윤 단장은 군에 가서 소식이 끊긴 오빠를 애태개 기다리는 23살 처녀의 애절함을 '낙동강 강바람에...'란 노랫말로 갈무리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악양나루의 아름다운 모습과 처녀뱃사공을 잊지 못해 노랫말을 만든 윤씨는 1959년 한복남씨에게 작곡을 의뢰해 탄생시킨 노래가 '처녀 뱃사공'이다.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 처녀뱃사공(박말순)은 꽂다운 나이였지만 집안사정상 사공노릇을 하며 집안생계를 돋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뒤 오래 살지 못하고 별세했다.

동생인 박정숙씨는 창원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작사를 한 윤부길 단장, 작곡가 겸 가수인 한복남 씨는 오래 전 세상을 떠났다. 윤 단장은 가수 윤항기, 윤복희씨 아버지로 유명한 음악인이다.

악양나루는 1997년 악양교가 놓이면서 생명을 다했다. 함안군은 2000년 10월 2일 대산면 남강변 악양나루터에서 함안군민의 날 및 제14회 아라제 행사 때 노래비를 세웠다.

낙동강을 배경을 한 노래로 '낙동강 칠백리'도 있다. 1936년 신민요가수 김복희와 이규남이 불렀다. 이 노래로 김복희는 인기정상의 신민요가수로 인정받았다. 왕평 작사, 김용환 작곡의 이 노래는 김정구가 재취입해 국민애창곡이 되기도 했다.

● 녹음기사 출신 가수 손인호 히트곡 '한 많은 대동강'

실행민들 아픔을 그린 '한 많은 대동강'도 강을 소재로 한 노래에서 빼놓을 수 없다. 북한출신의 한복남씨가 만년에 무대에서 즐겨 불렀다. 이 곡은 야인초 작사, 한복남 작곡, 손인호 노래로 4분의 2박자 트로트다.

이 노래 또한 에피소드가 적잖다. 한씨가 이 노래를 작곡해놓고 3년을 기다리다 손인호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도미도레코드사로 끌어들이면서 부르게 했다. 오아시스 전속기간을 몇 개월 남긴 1958년 어느 날 악극단(K.P.K)시절의 인연과 같은 고향임을 들어 줄기차게 손짓하던 한복남 사장의 스카우트로 전속회사를 도미도레코드사로 옮겼다.

소속사를 옮긴 손씨는 '한 많은 대동강'을 취입, 크게 히트했다. 재미있는 건 이 노래가 담긴 음반의 타이틀곡이 '청춘 등대' 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아니었다. 맨 위곡 '청춘 등대' 보다 맨 아래 9번째로 깔았던 '한 많은 대동강'을 최고로 쳤다. 레코드회사에선 소동이 벌어졌다. 서둘러 앨범 속의 타이틀곡을 바꿨다. '한 많은 대동강'을 머리 곡으로 하고 '청춘등대'를 부 타이틀곡으로 했다.

노래가 히트하자 같은 제목의 영화도 나왔다. 최인현 감독이 만든 이 영화엔 김지미, 남궁원, 최무룡, 박노식 등 인기배우들이 출연했다. 1966년 1월 개봉된 이 영화는 남녀사랑과 6·25전쟁을 소재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신민요 '노들강변', 반야월이 작사한 '금호강 아가씨', '나루터 고향', '눈물의 압록강', '한강', '한 많은 낙동강' (이재호 작곡, 손인호 노래)도 있다. 손석우 작사의 '고향의 강' (원이부 작곡, 남상규 노래), '물새 우는 강 언덕' (박시춘 작곡, 백설희 노래), 월견초 작사의 '대동강 편지' (임종수 작곡, 나훈아 노래) 등 강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많다. IN

필자 소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언론학 석사)을 졸업하고 1979년부터 언론계 생활을 하고 있다. '남인수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865호)에 등록, 글을 쓰며 가끔 무대에 선다. '이별 없는 마산항' 등 여러 곡을 취입했다.

기록물 검색도구 서비스의 성과와 과제

이점마
국가기록원
사서사무관



I. 기록물 정리와 기술(記述) – 그 개념을 찾다

필자는 지난 2007년 정부 국외훈련 과정으로 영국 던디대학교(University of Dundee)에서 6개월가량 기록관리 인턴쉽과 전문가 과정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영국 아키비스트 협회 교육분과 간사로서 아키비스트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었던 던디대학교 아카이브의 주임 아키비스트 Caroline Brown을 잊지 못한다. Caroline에게 지도를 받았던 6개월 간 그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바로 정리와 기술이었다. 서고에 입시 보관되어 있던 이관기록물 박스를 꺼내와 커다란 탁자위에 기록물을 펼쳐놓고, 분석하며, 유형별로 또는 시기순으로, 기타 다른 공통점을 찾아 1차적으로 분류한다. 대학기록물, 회의록, 인터넷, 기타 자료를 통해 생산자에 대해 조사한다.

생산자는 왜 이 기록물을 생산했는가, 당시의 어떤 사회적 이슈나 계기가 이 기록물을 생산하게 했는가? 생산된 기록물과 관련된 단체, 개인은 없었는가? 기준에 소장된 기록물 중에 관련된 기록물은 없는가… 등을 조사하면서, 어떤 생산배경 때문에 어떤 기록물들이 함께 묶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결정에 따라 분류체계가 형성되면, ISAD(G) 기술규칙에 의거 기술함으로써 인벤토리(검색도구)를 만들어낸다. 즉, 흔히 말하는 컬렉션, 시리즈, 파일, 아이템 계층구조를 만들므로써 아무런 질서 없이 이관되었던 기록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비로소 기록물이 생산된 의미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리와 기술의 개념이라는 것을 짧은 기간이나마 필자는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이후 필자는 서구의 문화적·사회적·역사적 환경 속에서 태생한 ‘기록관리학’(Archival Science)이라는 학문을 그들과는 환경이 너무나 다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라 말하는 ‘정리와 기술’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 정리와 기술은 기록관리의 시작이며, 기록관리의 종결이며, 기록관리가 다시 시작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록관리의 어느 부분 정리와 기술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토록 중차대한 업무가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뿌리

내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어서어서 성숙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한 순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제 필자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정리·기술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결합되어 정책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적어보려고 한다.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리·기술이 정말 ‘왜’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II. 국가기록원의 정리와 기술 – 체계구축과 검색도구의 개발

국가기록원은 2006년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국민에게 친숙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해 주제별 분류에 기록물을 연결하는 주제별 기록물 서비스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주제별 서비스는 누구나에게 익숙한 주제에 의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에 근접하기 위한 가장 순수한 방법이었으며, 정리·기술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장기록물을 국민에게 가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기록물 철/건 등록이 가져온 생산맥락에 따른 기록간의 관련성 단절이라는 문제점과 이러한 고객중심 서비스 시책에 발맞추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에 도입된 BRM(정부기능분류)의 적용, 또는 소장기록물 고유의 분류표 제정여부 등 분류체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거쳐, 정리·기술체계는 결국 소장기록물의 출처·내용에 따라 군-계열-철-건의 4단계 계층구조를 가진 집합기술체계로 확정짓게 되었다.

기록물군과 기록물계열의 분류를 위해서는 생산기관의 변천에 따른 기능의 이동과 관련된 이력정보의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생산기관 연혁정보(단체 전거레코드)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 기록물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록물을 검색하거나 기록물에 색인어를 입력할 때 일관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록물 검색어사전(시소리스) 구축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히, 기능 검색어 사전은 조직이나 기능의 변천에 관계없이 기록간 기능연계가 가능한 기제(機制, mechanism)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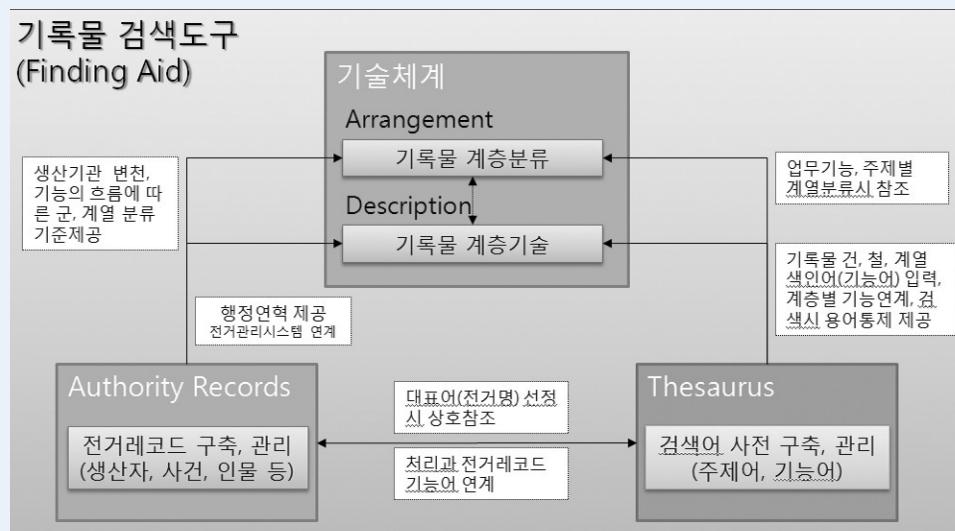
이로써 출처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검색지원이 가능한 소장기록물 정리·기술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듬어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간 구축되어온 국가기록원의 정리·기술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록물의 물리적 통제와 지적통제 도구가 분리되면서, 소장기록물의 분류체계는 검색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 나라기록관 완공에 따라 RFID 도입, 기록물의 잣은 이동 등의 문제로 서가 배열을 기능별 분류체계로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기록물 형태별/생산기관별/보존기관별/일련번호순 배열의 원칙이 결정된 것이다. 즉,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는 기록물의 물리적 위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분류행위로서, 기록물군-계열-철-건 4레벨의 기본구조를 가진다. 기록물군(하위군 포함)은 생산자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생산기관이나 조직으로, 계열(하위계열 포함)은 기록을 생산하게 한 기능, 활동, 주제, 유형 등으로, 철은 동일사안으로 함께 묶여진 문서들의 편집단위로, 건은 낱개의 사안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수집방법이나 기록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컬렉션의

개념으로 조선총독부 기록물, 해외기록물, 구술기록물, 민간기록물 등의 컬렉션 단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류된 기록물을 식별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기 위해 국제표준기록물기술규칙(ISAD(G))의 7개 영역과 27개 기술항목을 적용하여 2008년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고, 2011년 현재 그간의 실무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은 공공표준으로, 기록물 기술에 필요한 일반적인 원칙과 규칙을 제시하며, 중앙·지방·헌법기관 등 공공부문 기록물의 통일된 기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국가적 기록물 통합검색의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가기록원의 정리·기술체계는 군/계열/철/건을 기본구조로 하는 기술체계(계층분류/계층기술), 생산기관 연혁정보 등 전거레코드의 구축과 검색어 사전(시소스)의 구축·관리라는 3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시스템 기반 하에 구축되고 관리된다. 3개의 영역은 고유의 역할과 상호간 주고받는 영향을 통해 정리·기술의 궁극적 목적인 검색도구¹⁾ 역할을 하게 되며, 이들의 연계구조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III. 국가기록원의 정리와 기술 – 검색도구 서비스 정책으로 표출

2005년부터 다져온 정리·기술 업무체계는 3개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업무로 발전되도록 하였으며, CAMS를 통해 시스템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경험의존적·일시적·비능률적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시초부터 차단하는 주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생산 기록물에 대한 계층분류 및 기술, 「소장기록물 가이드북」 발간은 거의 無에서 有를 창조함으로써 정리·기술체계 서비스를 위한 전초단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군, 계열의 과도한 세분류에 의한 기록물 분산, 관리이력·접근/이용환경 등과 관련된 충실한 기술정보 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웹 서비스는 잠시 보류되었다.

2010년에는 우선 그간 과도하게 세분류²⁾되었던 기록물군/계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27개 기술항목을 최대한 충실히 기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을 좀 더 중점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이관이력, 평가·폐기·처리일정정보 등 누적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정확한 기술이 곤란한 경우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이러한 데이터가 시스템을 통해 빠짐없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정리·기술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인 기관의 경우만 기록물군으로 설정하고, 특별행정기관(대검·고검 예외), 기관장 '나'급 이하 소속기관 및 지검은 하위군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록물군 분류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각 부처 공통업무 계열은 행정지원 계열로 통합하고, 그 하위로 감사, 인사관리, 기획, 재산관리, 회계, 법무, 법인관리, 기록관리, 운영지원의 9개 하위계열을 두도록 하되 기록물 양(量)이 과도하게 많거나, 기록물 내용상 꼭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하위계열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간행물은 간행물의 특성상 각 부처업무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제나 기능에 의해 분류하기보다는 '정부간행물' 계열을 생성하여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물론 주요업무 보고자료,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등 고유계열 분류가 필요한 간행물은 해당 계열로 분류하였다.

공통업무 계열 정비 결과

기능 시소스	기존 계열명	변경된 계열명	참조코드
감사	감사	감사	S1-1
인사관리	인사관리	인사관리	S1-2
민원관리	민원	민원	S1-3
재산관리	재산관리	재산관리 (청사 및 시설관리)	S1-4
조직관리	조직관리	조직관리	S1-5
청사관리	청사관리	청사관리	
후생복지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 후생복지	
기록관리	기록물 관리	기록물 관리	
법무	법규	법규	
홍보	홍보	홍보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	
	회계	회계	
기획	국회업무	국회업무	
비상계획	법인관리	법인관리	
비서업무	소송	소송	
성과관리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운영지원	회의관리	회의관리	
행정관리			

1) 검색도구(finding aid)는 소장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기록물에 대한 물리적·지적통제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록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 할 수 있다. (SAA 용어사전, 기록학 용어사전 참조)

2) 2007년부터 구축된 기록물군/계열의 수는 중앙행정기관 373개 기록물군, 3,300여개의 계열로 거의 주제 단위로 세분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록물이 통합되기보다는 분산되는 양상을 가져와, 관리적인 측면이나 서비스적 측면에서 비효율성 초래가 우려되었다.

또한, 고유계열 대해서는 향후 이관될 전자문서가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의해 생산될 예정이나 동일 기능 분류의 명칭 자체가 부처마다 상이하고, 표현의 일관성이 없으며, 기능명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국가 기록원에 소장된 과거에 생산된 기록물들을 현 시점의 기능분류명에 끼워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대, 중 수준의 포괄적 분류를 사용하여 계열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생성된 계열은 공통업무, 정부간행물, 고유업무(고유업무 중 기타업무는 가장 하위에 배열)순으로 배열 원칙을 정하여, 관리자나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2010년 작업결과 기준 373개 기록물군, 3,301개 기록물 계열은 357개, 2,472개 기록물 계열로 축소, 정비되었으며, 이 중 나라기록 포털을 통해 서비스 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다시 군/계열분류와 기술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중앙행정기관 총 355개 기록물군(139군, 216개하위군)과 2,347개 기록물계열(1,681계열, 666하위계열), 총 156만여권의 기록물이 나라기록포털 기술계층별 검색을 통해 서비스되었다.

분류된 기록물군은 주로 식별영역, 배경영역을 주요 관리 항목으로 설정하여 기록물 수집·보존 등 관리이력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기록물 계열은 내용과 구조, 접근과 이용환경, 관련자료 영역을 주요 관리항목으로 설정하여 동일 정보의 중복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하여 현재시점에서 기술이 무의미하거나, 충실한 기술정보를 생산하기 곤란했던 일부 항목은 현 시점에서 서비스는 보류하되, CAMS를 통해 기록관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축적되고 모아져서 기술파트에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기술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 부서 협조와 CAMS 기능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본격적인 작업은 금년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록물군/계열별 기술항목

영역	기술항목	기술내용	군	계열
1. 식별	참조코드	기술계층을 나타내는 참조코드	○	○
	제목	기록물군/계열명을 기술	○	○
	일자	분류된 기록물의 생산년도의 범위	○	○
	기술계층	기록물군/하위군, 기록물계열/하위계열을 기술	○	○
	기술단위 규모와 유형	기록물 매체유형별 수량	○	○
2. 배경	생산자명	기록물군의 생산기관, 기록물계열의 생산부서(실국수준) 기술	○	○
	행정연혁/개인이력	생산기관의 연혁정보	○	○
	기록물 이력	기록물 보존이력 및 수집이관이력을 기술	○	○
	수집이관의 직접적출처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이관, 수집, 기증 등)을 기술	○	○
3. 내용과 구조	범위와 내용	분류된 기록물의 개략적인 내용과 주요 기록물 기술	○	○
	색인어/기능어	일반주제 시소러스와 기능시소러스에서 선택	○	
4. 접근과 이용환경	접근환경	기록물 접근여부 및 법적근거, 규정 등에 대한 정보	○	
	이용환경	기록물의 저작권 등 2차적 활용조건을 기술	○	
	자료의 언어	한국어, 한자, 영어 등으로 열거식 기술	○	
5.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기록원내 원본기록물의 보존위치 자동기술	○	
	사본의 존재와 위치	타 기관의 사본의 존재와 위치 기술	○	
	관련 기술단위	관련된 기술단위(계열) 선택 입력	○	
	출판물 설명	기록물을 이용한 도서 및 웹 출판사항을 기술	○	

출처주의 원칙에 따라 생산자의 기술을 위해 그간 계속 구축되었던 생산기관 연혁정보는 2008년 정부의 조직개편 이후 2010년 8월까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 총 1,705개 기관(부/처/청)과, 22,605개 조직(실국/처리과)에 대한 기관명, 존립 기간, 기관연혁, 기관변천흐름도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변천에 따른 업무기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생산된 기록물과도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처와 연계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생산기관 연혁정보 사이트뿐만 아니라 기술계층별 검색을 통해 생산기관 및 수집이관 기관에 링크되어 있는 기관의 변천연혁으로 손쉽게 이동하고, 해당기관의 변천에 따른 생산기록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였다.

검색어 사전(시소러스)는 2005년부터 시작된 일반주제어, 기능어 시소러스 구축이후 매년 신규용어에 대한 추가구축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 일반주제어 46만, 기능어 약 4만 6천 용어가 구축되어 있으나, 신규 생성용어는 매년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의 추가 구축보다는 그간 구축된 시소러스를 외부로 서비스하여 검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다만, 구축된 용어를 무리 없이 서비스하기 위해서 용어 설명 등에 대한 정비 등 보강을 추진하고, 검색시스템 연동을 위해 CAMS 검색메뉴에 용어확장 기능을 탑재하여 시소러스의 조회·선택·적용 등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2011년 하반기에는 일반주제 시소러스부터 나라기록포털 검색에 용어확장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기록원이 다른 나라의 National Archive와 견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록관리 제도와 정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지만, 이용자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검색도구의 제공 여부일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 왔던 검색도구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이를 더 진보시키기 위한 정책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의 발상이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 검색도구의 우선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기록물군/계열 계층단위의 조정과 채우지 못했던 기술항목의 처리방안, 기술체계가 검색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산기관 연혁정보와 검색어 사전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밀도 있는 연계구조 확립이 핵심 포인트임에 틀림없었다.

IV. 검색도구로서의 정리와 기술 – 앞으로 가야할 길

필자는 중앙행정기관 기록물을 분류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그간 숨어있었던 주요 기록물들, 각 기록물군별로 소장된 기록물의 양상, 각 부처별 기록물의 구성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정리·기술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어떤 기록물을, 얼마나 소장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현재 기록물철/건 기술을 대체하고 있는 기록물 목록등록에서 발생하는 생산의도에 따른 관련성 단절이라는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록물군/계열 분류와 기술은 현재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기록관리 원칙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지적통제를 중심으로 정착된 국가기록원의 정리·기술 체계는 그야말로 기록물을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물의 물리적 관리보다는 검색도구로서 기록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 원칙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인적·물자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기록물 정리·기술 체계의 확립과 검색도구의 구축은 몇 년 전만 해도 꿈꾸기 어려웠던 선진 기록관리의 모습,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어떻게 보면, National Archive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그 일을 이제야 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이제라도 다른 National Archive처럼 기록관리 원칙에 따른 검색도구를 만들어 서비스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정말 큰 자긍심을 느낀다.

하지만 기록물의 생산에서부터 관리·보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담기고, 이 역사가 다시 피드백 되어 모범적인 기록관리의 단초를 제공해야 하는 정리·기술은 안타깝게도 기록물의 편철, 나아가 보존상자 편성, 서가위치 결정, 기술내용 피드백을 통한 기록관리 발전이라는 물리적 기록관리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형성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적 참조번호가 물리적 서가번호가 일치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기술이 기록관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통일된 기록관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기록물의 가치, 매체수록, 공개여부 평가 등의 프로세스가 대폭 축소된 현재 상황에서는 유사한 기록물 집합에 대해 기존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었는가에 대한 참조는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의 적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추가수집, 정리체계, 접근환경 등도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서비스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과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리·기술이 가진 한 가지 목적을 더 이루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별로 정리·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CAMS를 통해 각 프로세스가 기술파트와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보다 견고한 기술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정리와 기술 – 커다란 나무 그늘을 기대하며

국가기록원의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이 일을 맡아 할 수 있었다는 게 필자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확신하듯이 정리·기술은 기록관리의 핵심영역이자 기록관리가 다른 학문과 대별될 수 있는 가장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소장기록물 정리·기술은 이제 막 짹을 틔우기 시작한 것 같다. 새순이 돋아나 큰 나무가 될 때 까지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정리·기술의 토대를 보다 더 굳건히 하고, 진보된 서비스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우리 기록관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선에서의 더 많은 고민과 정책개발, 인적·물적 지원, 해외사례의 지속적 벤치마킹, 최신 연구 동향 등에 대한 학계의 아낌없는 조언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기술은 관상용으로 키워지는 멋진 나무이기 보다는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 그 아래 큰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써, 다양한 새싹들을 틔우게 하는 것, 그 아래서 다양한 기록관리의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IN

필자 소개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국가기록원 평가분류과, 기록정보화과를 거쳐 공개서비스과 소장기록물 정리·기술 업무를 총괄하였다. 현재 표준협력과에서 기록관리 표준 업무 기획 및 제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전 근대 아카이브즈 포럼과 대전

고우수 대전광역시 학예연구사



▶ DMAF 콜로키엄



▶ DMAF 콜로키엄

대전시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종무문화재과에게 작년 2010년은 악몽 같은 한 해였다. 충남도청(등록문화재 제18호)을 활용한 국립박물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한국전쟁기 국무회의 장소로 쓰이기도 했던 대전의 오랜 근대 문화재인 ‘대사동 별장’이 소유주에 의해 흔적도 없이 철거되었다. 또한 등록문화재 337호인 ‘대흥동 뾰족집’이 개발 조합 측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되는 참사를 겪었다.

주로 근대 건축물들이 수난을 당했는데, 그 배경에는 등록 문화재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한계와 함께 도심 재개발에 항상 따라붙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해묵은 갈등까지,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함께 제도를 넘어선 보다 급진적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문화재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 삶 안에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까지를 폭넓게 고민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바로 “대전 근대 아카이브즈 포럼(Daejeon Modern Archives Forum, DMAF)”이다.

DMAF는 현재 대전시와 목원대학교가 진행 중인 “대전 근대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체이다. DMAF는 ‘대전 근대 건축 보존 연구회’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결성되었으며, 주 구성원은 대전시의 문화재 업무를 맡고 있는 학예연구사들과 근대에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 역사, 건축, 미술, 사진 등을 전공하는 젊은 연구자들이다. 2010년 1월에 결성되어 대전은 물론 국내외 근대건축 답사,

정기적인 콜로키엄 등을 통해 내공을 쌓아온 DMAF는 2010년 9월 지자체와 지역대학, 시민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는 문화부 컨설팅 공모사업에 “대전 근대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컨설팅”이라는 사업신청서를 내 당선되었다. 사업기간은 1년,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6천만원이며 우수사업 평가를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아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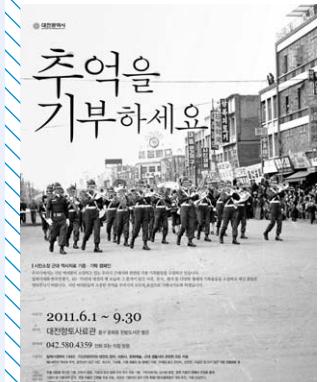
대학이 주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목원대학교가 대전시와 함께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근대 건축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해온 김정동 교수(63. 건축학부)가 최고 연구책임자로 사업을 진두지휘해 나가고 있다. 본 사업과 함께 대전시에서는 2011년 주요 시책으로 “근대 동산문화재 수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에서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에 대한 일반적 인상은 대체로 ‘무색무취’ 또는 ‘밋밋함’ 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전이라는 도시는 매우 독특한 결을 가지고 있다. 1904년 부설된 경부선 철도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도시로 급성장한 지역이지만,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며,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던 탓에 ‘산성의 도시’라 할 만큼 많은 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중·후기 ‘양송(兩宋)’으로 불리며 중앙정계는 물론 사상계를 주도했던 서인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세거지이기도 하다. 지금도 ‘회덕(懷德)’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이 지역의 완고한 정체성은 ‘첨단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의 문화재 행정은 주로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조선시대 사족들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주력해왔다. 시민지의 잔재라는 편견 속에 문화재라는 인식이 희박한 탓도 있지만, 그러는 사이 대전의 수많은 근대 유산들은 맥없이 사라지고 또 스러져갔다. DMAF의 결성과 이번 사업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개척분야에 대한 젊은 연구자들의 순수한 학문적 열정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흩어져 있는 자료의 수집 즉 ‘아카이빙’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모아진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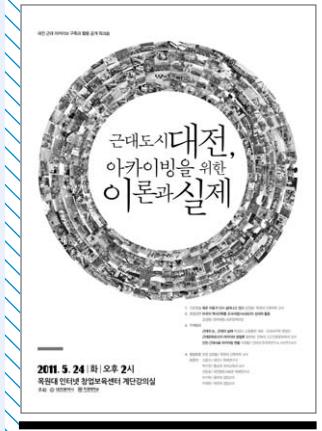
Issue & Spot



▶ 대전시청 유물기증 포스터 1



▶ 대전시청 유물기증 포스터 2



▶ 대전 근대 아카이브즈 워크숍 _ 포스터

지속 가능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느냐 하는 활용적 측면 곧 ‘컨설팅’ 분야이다. 문화부 공모 심사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업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인가 하는 선명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사업 취지상 후자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랐을 수도 있으나, 사업팀의 입장은 분명했다. 철저한 필드워크를 통하지 않은 컨설팅은 탁상공론이 될 공산이 크므로, 이 두 가지는 동등한 무게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시의 근대 동산문화재 수집과 연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전의 근대사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연초부터 충남도의 협조를 얻어 ‘충남역사문화원’에 소장되어 있는 구 충남도청 ‘도정사료실’의 근대 자료를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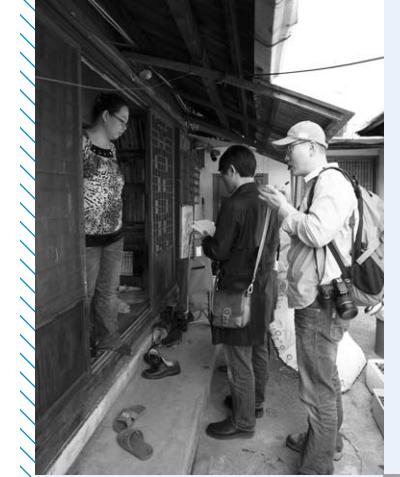
대전은 1989년 직할시로 승격, 충남도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전시와 관련된 근대 자료의 대부분은 대전시로 이관되지 못했다. 이 점은 오랫동안 대전시 학예연구사들의 깊은 한으로 남아 있었다.

실질적인 자료 이관은 성사되지 못했으나, 다행히 이번 조사를 통해 충남도에 남겨진 대전 자료의 규모와 성격이 처음으로 파악되었다.

조사팀은 약 1개월의 조사를 통해 약 200건의 자료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800여점의 자료를 촬영했다.

그 외 관내 및 타시도 박물관에 협조를 구해 대전 근대 관련 자료를 다수 확인,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촬영 작업을 마쳤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1차 마무리된 6월부터는 “추억을 기부하세요”라는 일종의 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앨범과 장롱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개인 소장 자료들을 소중한 공공의 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자료 수집은 물론, 개인 소장 자료에 대한 공적 가치를 높이고,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해 보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컨설팅 부분이다. 아직 사업기간이 중반에 이른 시점이라 평가와 제안에 해당하는 컨설팅 내용이 구체화되진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로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른바 “소제동 아카이빙”이 그것이다. 소제동은 대전역 뒤편 솔랑산 아래동네로 흔치 않은 도심 경관을 간직한 곳이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소제호라는 큰 호수가 있던 이곳은 20세기 초까지 우암 송시열이 살았던 송자고택(문화재자료 39호) 등 한옥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는 전통마을이었다.



▶ 소제동 아카이빙 조사
주민인터뷰



▶ 공공기관 조사



▶ 대전 근대 아카이브즈 공개 워크숍

그 뒤 철도부설과 함께 소제동에는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관사촌이 형성되었고, 이때부터 1960·70년대까지 독특한 근대적 경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 계획과 함께 일부는 대전시의 대표적인 슬럼가로 남아있다.

소제동은 전통과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시간의 지층이 중첩된 곳이며, 그 흔적이 그나마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사회학, 건축,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사업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나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수행했던 ‘서울 피맛골’, ‘인천 배다리 양조장 아카이빙’ 등을 모델로 한 소제동 아카이빙을 진행 중에 있다. 아직 남아 있는 일제시대 철도관사 실측, 주민 인터뷰를 통한 구술사 기록, 의식주와 관련된 한 세대의 생활용품 전수조사, 심지어는 전봇대, 간판, 맨홀뚜껑 하나하나까지, 소제동이라는 공간에 대한 치밀하고 두꺼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사업팀은 도시공간 아카이빙의 한 사례를 남기고, 그 결과물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자체의 새로운 시책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을 중심으로 근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문화부의 지원과 시의 사업은 시한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긴 호흡으로 대전의 근대를 공부하는 연구자 그룹을 만들고, 자료수집 또한 훈련받은 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제도 밖에서의 일이라면 이러한 성과들을 안정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제도 안에 안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원도심 내 근대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하여 근대사박물관을 만들고, 그 안에 누구나 쉽게 자료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 또한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역사는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고양된 지적활동을 통해 계승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록을 남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지금 ‘대전 근대 아카이브즈 포럼’과 대전시는 작지만 의미있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적은 열매를 남긴 채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실험을 계속하는 한, 그 결과는 크건 작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며 후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들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드는 법이 아닌가. 이번 사업의 결과물과 그 면면의 기록들이 후일, 대전근대역사관의 한 공간에서 또 다른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기록물로 다시 한번 아카이빙 되길 기대해 본다. IN



▶ 해외답사(대만 근대건축 답사)

필자 소개

충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조선시대 한중 관계사로 석사논문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 근대 이행기 교육사상과 그 정책으로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학연구원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각종 번역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충남대박물관과 대전선사박물관을 거쳐 지금은 대전시 종무문화재과에서 문화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기록관리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들

김계수
문화재청
기록연구사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기록관리 공통혁신 선도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록관 운영 표준화 및 내실화 방안 연구, 기록관 재난대비계획 수립 방안 연구, 행정기록물 DB구축 사업 효율화, 기록관리 혁신 포럼 및 기록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폐기 내실화, 관할 소속기관 기록관리 지도점검 등 여러 혁신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혁신성과를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 기관과 널리 공유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재청은 2007년 기록관리 유공표창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2008년 기록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또한 문화재청은 해마다 정부의 기록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객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 즉,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 기록물의 생산부터 등록·분류·정리·보존·활용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록물법에서 제시하는 기록관 단계(Records Management)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가치를 오롯이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화유산과 그와 관련된 기록, 정보, 자원들이 공공 기록물법이 규정하는 기록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으로부터 파생하는 기록정보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했다. 일반 행정기록과 다른 문화유산의 특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했고, 그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관리방법을 문화재청의 기록관이 확보할 수 있어야 했다.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의¹⁾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디지털세트 모델³⁾

문화유산의 특수성 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문화재청은 이러한 이유로 2010년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과제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 실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진행된 이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객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자원의 정의에서부터 문화유산의 관리 주체인 공공·민간기관 상호 간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록정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실질적인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²⁾.

1) 2010년 3월 개최한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의 모습이다. 이 회의에는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참석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2) 문화재청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일정으로 사업비 148백만 원을 들여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 현황 분석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 30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연구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는 정책연구과제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디지털세트의 개념은 문화유산 객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원형자원과 문화유산 지정부터 보존관리 과정에서 작성된 과정자원, 그리고 해당 문화유산을 매개로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해석자원을 한 묶음으로 세트화 함으로써 하나의 질서 속에서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보존하고 더불어 실질적인 대국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이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의 개선과 국내외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관리방안 사례를 함께 연구하여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금년에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천전략(ISP)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수행하는 ISP 사업은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그리고 문화유산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박물관, 관련 단체 등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고, 아울러 각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화유산 객체를 대상으로 한 해당 기록정보의 세트화 방안, 기록정보자원의 유통 및 공동 활용 표준화 방법론, 그리고 이를 기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허브뱅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허브뱅크시스템 개념도⁴⁾

이 ISP 사업의 결과가 도출되면 문화 유산 객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하나의 세트로 보존·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기록정보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마련한 중장기 전략을 실현하고자 단기 과제로 소속 기록관 설치와 기록관리 관학 협력체계 구축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록관 설치 추진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객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전문 학술·조사·연구 기록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능동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유일의 문화유산 연구기관으로서 문화유산의 복원·보수·정비,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문화재 보존처리 연구, 국내외 문화유산 조사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전문 학술·조사·연구 기록의 보존관리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방연구소에서 생산한 기록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문화재청이 구상하고 있는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허브뱅크 시스템」은 문화유산의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지자체, 박물관, 민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유산 관련 기록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문화유산 보존관리 총괄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이 허브 기능과 뱅크 기능을 동시에 충족함으로써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일원화·표준화·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이다.

문화재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문화유산 관련 기록의 전문적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소속 기록관 설치·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운영계획에 소속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규칙 제정,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확충,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충, 기록관리 업무의 역할 분담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록관리 총괄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기록원과 3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1년 3월 초 마침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문화재청 소속 기록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이의 후속 조치로 소속 기록관 설치·운영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특히 기록관리 전문요원 확충을 위해 중기 소요인력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기록 관리를 위해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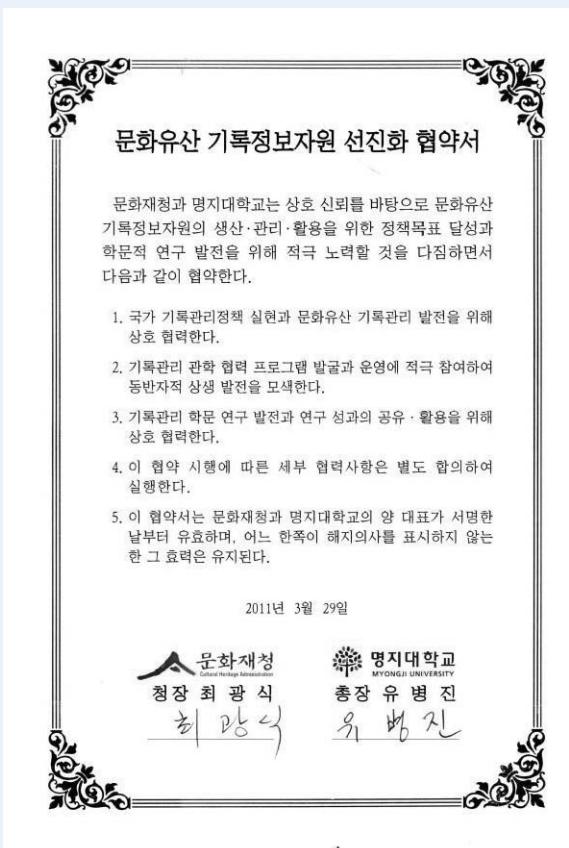
▶ 문화유산 기록관리 역할 분담 및 소속 기록관 설치 · 운영 모델5)

기록관리 관·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선진화 모색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관·학 협력 체계(이하 'MOU'라 한다)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명지대학교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선진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⁶⁾

5) 문화재청 기록관 및 소속 기록관의 역할 분담과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관리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1관 3국(20개 처리과),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적관리소, 능관리소를 포함하여 총 73개 기관(실과 포함)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문화유산 관련 기록은 현재 기록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학술·조사·연구 기록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한 소속 기록관의 설치가 전시·사랑·교류·활용·보존·증진 등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상이다.

6) 문화재청은 2011년 3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명지대학교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문화재청과 명지대학교 간 체결한 협약서 전문

이번에 문화재청이 명지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목적은, 그 동안 문화재청이 축적한 기록관리 실무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연구기관인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최신의 기록관리 이론과 방법론을 문화재청과 공유함으로써 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MOU 체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서 안에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담았는데, 첫째 국가 기록 관리정책 실현과 문화유산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둘째 기록관리 관학 협력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동반자적 상생 발전을 모색하며, 셋째 기록관리 학문 연구 발전과 연구 성과의 공유·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세부실천과제로 기록관리 인턴쉽 (Internship)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연 2회),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생산 및 관리, 서비스 방법 개발 등을 위한 정례 간담회(연 2회) 개최, 문화유산 기록 정보자원 세미나 및 컨퍼런스(연 2회) 개최, 문화재청 현장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문화유산 기록정보 자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 공동연구 등을 진행 하기로 합의하였다.

문화재청이 명지대학교와 체결한 MOU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과 대학 간에 맺은 포괄적인 협약으로서 정부의 기록관리 선진화 목표 중 하나인 '관학 협력을 통한 국가기록관리 기반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청은 단순히 기록관리 MOU를 체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 기록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전망과 다양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명지대학교와 공동으로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정례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이 갖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기록과 교육 콘텐츠 서비스, 3D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기록서비스, 문화유산 기록허브시스템의 새로운 검색도구 구상, 문화유산 기록세트의 신 개념과 모델링 등에 관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문화재청의 기록관리 최근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어느 조직이나 해당 조직에 부여된 미션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생산되기 마련이다. 기록은 그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과정과 결과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그 자체로서 역사적 사실을 증빙하는 핵심 기록이 된다. 한편으로 이들 기록은 온전히 보존되어 후대에 전승되었을 때, 기록으로서의 생명력과 가치는 배가되리라 믿는다.

문화재청에서 수행한 기록관리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를 비롯하여 소속 기록관 설치, 관·학 협력 체결을 통한 기록관리 발전 방안 모색 등 일련의 과정에는 숨은 노력들이 녹아있다. 이 지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지는 못했지만, 문화재청의 새로운 도전이 내부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활용되어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도 함께 성장해 갔으면 한다. 기록관리 분야에 늘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되었으면 하고, 이러한 도전들이 또 다른 활력소가 되어 국가기록관리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문화재청의 기록관리 동향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귀한 지면을 할애해 준 국가기록원에 감사드리고,『기록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IN

필자 소개

원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현)문화재청 기록연구사, 충남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록관리전문가포럼 대표,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강사,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 관리학과 강사를 역임하였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보존환경 개선방안」,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위한 기록관리 실무마뉴얼」, 「기록물 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문화재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청 기록관 및 기록 관리 운영현황」, 「기록관 재난대비계획 수립 방안 연구」, 「기록관리 전문가포럼의 발전 방안」, 「기록관 운영 표준화 및 내실화 방안」,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업무의 이해」, 「문화재청 간행물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기록물DB구축 사례집」 외 다수가 있다.

귀한 존재 양반 그리고 그 그늘

◆ 허인욱 대전대학교 강사



● 백성 가운데 가장 귀한 자

양반(兩班)은 원래 문반과 무반직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였지만, 가족 혹은 가문까지도 포함하게 되면서 점차 지배신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양반은 또한 사대부(士大夫) · 사족(士族) · 사류(士類) · 사림(士林)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중 사대부는 글 읽는 사람으로서의 '사' 와 관료를 가리키는 '대부'가 합쳐진 명칭으로, 원래 문관관료만을 지칭하였다. 하지만, 문관관료가 조선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관료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양반이란 현실적으로는 선조의 계보가 분명하고 그 선조 계보 중에 세상이 알만한 유명한 선조인 현조(顯祖)가 있어, 그들이 현조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이 확실하며 또한, 일정하게 대대로 사는 지역이 있으며, 그 지역을 무대로 하여 어떤 일을 해나가는 양반가문으로서의 역사와 그 역사 과정에서 축적된 양반가문으로서의 전통이 분명한 사람들을 말한다. 실은 조선시대 어느 씨족을 놓고 보더라도 시조는 같은 지라도 그 안에는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으며, 심지어는 천민도 섞여 있었다. 그 씨족의 역사가 오래되고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조가 같은 집안이라고 해도 그 집안이 양반으로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조상 중에 시조 외에 유명한 선조 즉, 현조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현조는 양반으로서의 전통과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업적을 이루하는데 성공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럼 양반은 어떻게 생활했을까?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양반전(兩班傳)」을 보자.

대체 양반이란, 복잡한 것이다. 글 읽은 이는 선비이고, 벼슬아치는 대부이며, 덕 있으면 군자이다. 무관 줄은 서쪽이고 문관 줄은 동쪽이다. 이것이 바로 양반, 네 맘대로 따를지니 비루한 일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흡모하고 뜻을 고상하게 가지며, 5경이면 늘 일어나 유황에 불붙여 기름등잔 켜고서, 눈은 코끝을 내리 보며 발꿈치를 괴고 앓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래박의(東萊博議)』를 줄줄 외어야 한다. 주립 참고 추위 견디고 가난 타령 아예 말며, 이빨을 마주치고 머리 뒤를 손가락으로 통기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 한 뒤 삼키며 옷소매로 휘팅(揮項 :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의 한 가지)을 닦아 먼지 털고 털무늬를 일으키며,

세수할 땐 주먹 쥐고 벼르듯이 하지 말고, 냄새 없게 이잘 닦고, 긴 소리로 종을 부르며, 느린 걸음으로 신발을 끌 듯이 걸어야 한다. 『고문진보(古文眞寶)』 · 『당시품휘(唐詩品彙)』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 글자씩 쓴다.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날 더워도 발안 벗고 맨상투로 밥상 받지 말고, 밥보다 먼저 국 먹지 말고, 소리 내어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 짖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술 마시고 수염 빨지 말고, 담배 필 땐 불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고, 분한 마음이 들더라도 아내치지 말고, 노하더라도 그릇 차지 말고, 아이와 여자에게 주먹질 말고, 죽으라고 종을 나무라지 말고, 말과 소를 꾸짖을 때 판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병에 걸리더라도 무당부르지 말고, 제사에 중 불러 재(齋)를 올리지 말고, 화로에 불 쬐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잡지 말고, 도박하지 말라.¹⁾

「양반전」은 강원도 정선에 사는 한 부자가 양반이 되기 위하여 돈 천냥으로 양반을 사려다가 허상을 알고 양반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인용한 글에서는 양반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다. 양반들은 절주된다해도 5경 즉, 새벽 3~5시에 일어나서는 『동래박의』를 외거나, 『고문진보』 또는 『당시품휘』를 베껴 쓰는 공부를 해야하며, 공부 외에 돈과 관련된 것은 아예 입에도 올리지 말고, 먹는 일이나 날 더워도 발안 벗고 맨상투로 밥상을 받지 말라거나 국을 밥보다 먼저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시시콜콜한 것까지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반이 조선시대에 그 지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은 특권이 그만큼 커기 때문이다. 『양반전』에서 부자가 양반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를 통해서 그 특권을 엿볼 수 있다.

하늘이 백성을 내니, 그 백성은 넷이다. 네 백성 가운데 가장 귀한 자는 선비로, 양반이라고 불리며, 이익이 막대하다. 농사 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으며, 대충 문장과 역사, 섭렵하면, 크게는 문과 급제를, 작게는 진사가 되니, 문과 홍패는 (길이가) 두 자(60cm)가 안되지만, 온갖 물건 구비되니, 그야말로 돈 자루인 것이다. 나이 서른에 진사 되어 첫 벼슬에 나가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蔭官)이 되어 응남행(雄南行 : 위품(位品)이 높은 음관)으로 섰거진다. 귀밑이 일산(日傘)의 바람에 희어지고 배가 방울 소리에 커지며,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로 단장하고, 뜰에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마음대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의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팔시겠는가. 너희들 코에 잿물을 뿐 머리끄뎅이를 회회 돌리고 수염을 낚아 채더라도 누구하나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 담와 흥계희 〈평생도 중 치사(致仕)〉

1) 『연암집』 권8, 별집 방경각외전(放璣閣外傳) 양반전(兩班傳). 이하 동일하다.



▶ 정선 〈독서여가(讀書餘暇)〉

4계층으로 나뉘는 백성들 중에 양반이 가장 귀한 존재임을 전제하면서, 나이 30이라도 과거에 합격만 하면 돈이고 명예고 다 차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양반이 과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아울러 비록 과거 급제도 못한 채 시골에 사는 별 볼일 없는 양반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마을의 소를 부리거나 일꾼을 잡아다가 자기 집안의 눈에서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정선의 부자는 이러한 양반의 특권에 대해, “그만 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한 일이요. 나보고 장차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라고 하며 머리를 흔들고 가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겠다는 말이나 혹은 이에 관련된 일을 입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박지원의 「양반전」이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양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양반들이 백성들에게 부리는 횡포와 관련해 『승정원 일기』 인조 원년(1623) 7월 5일의 기록을 보자.

사대부가 여염집을 빼앗아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많다. 또 빚을 징수하는 일로 사비를 따지지 않고 잡아 가두어 침해를 끼친다 하니 너무도 놀립다. 각별히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살펴보고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사헌부에 말하라.

사대부들이 일반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거나 빚을 징수하면서 무조건 잡아 가두는 등의 침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임금이 사헌부에 이를 규찰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1617) 2월 3일조를 보면,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조관(朝官)이 여염집을 빼앗는 폐단을 광해군이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기록이 보인다. 벼슬아치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잠재적인 벼슬아치이자 같은 지배계층인 사대부들에게 까지 확대된 것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숙종실록』 숙종 4년(1678) 1월 27일 기록에도 사대부가 여염집을 빼앗는 것을 금하게 했다는 언급이 보이며,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의 저술인 『청성잡기』 권4 성언(醒言)조에도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영조 초기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었던 듯하다.

예전에는 사대부들이 괜찮은 여염집을 보고서 요양을 한다거나 혹은 집을 빌려 혼사를 치른다는 등의 명목으로 곧바로 식솔들을 이끌고 안채로 들이닥치면 여인네들이 마치 난리라도 만난 것처럼 도망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마치 원래 자기 집처럼 태연히 거처하였다. 그 집에 비축해 둔 곡식과 가마솥 등을 그대로 쓰면서 혹은 해가 바뀌도록 나가지 않는데, 집주인은 밖에서 노숙하면서도 괴롭다는 말 한마디 못 하였다. 이렇게 집을 빼긴 여염집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아침저녁으로 끼니를 때울 뿐 아무 것도 비축할 것이 없었다.

영조께서 세자로 계실 때에 이러한 폐단을 잘 알고는 즉 위한 뒤에 법을 만들어 이를 엄금하였다. 그리하여 남의 집을 빼앗아 들어간 사람은 3년 동안 유배 보냈다.

이에 평민들이 비로소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잘못을 지나치게 바로잡는 바람에 그 폐단으로 지금은 재상이 여염집에 임시 처소를 정하고자 하여도 저지당하고, 몇 칸 짜리 초가집도 여염집이라고 하면 양반이 매입 할 수 없게 되었다. 가난한 양반이 그런 집을 샀다가 발각 되면 곧바로 유배를 당하여 양반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상께서 신해년(1791, 정조 15)에 대신들의 주청(奏請)을 계기로 기와집인 경우에는 11칸 이하, 초가집인 경우에는 칸 수에 상관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 하였다. 물론 무단으로 빼앗는 경우는 법률대로 금하였다.

영조가 사대부들이 여염집을 마음대로 점거하여 제집처럼 사용하여 백성들이 살기가 매우 고단했음을 말해준다. 사대부들을 3년 동안 유배를 보내기로 하고서야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양반들이 정당하게 구입하는 것도 한때 어려워지기도 했다고 한다. 모든 일에는 빛과 그늘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인지 백성들에게 양반은 그리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던 듯하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의 셋째 마당인 영노탈의 장면을 보자.

“구령에 사는 영노사면 구령에 있지 뭣하러 여기 왔노?”
“여기 온 것은 다름 아니고 양반놈들의 행세가 나빠서 양반 잡아 끓으려 왔다. 양반 아흔 아홉을 잡아먹고 네 하나님을 잡아 끓으면 백을 채운다. 채우면 하늘로 득천(得天) 한다.”

“내가 양반이 아니다.”
“도포를 본께 양반이다.”
“도포를 본께 양반이라.”
“오냐.”
“그라믄 도포를 벗을란다.”
“도포를 벗어도 양반이다.”
“벗어도 양반이라.”
“오냐.”
“야, 저놈봐라, 야, 이놈의 자슥야! 그 소리 좀 치워라.”

“비비비.”

“쉬~쉬, 그 소리 좀 치워라, 맛있는 것 줄끼니, 나 안 잡아 끓을래?”

“묵어봐야 알겠다.”

영노는 용이 못된 이무기를 말하는데, 무시무시한 탈을 쓰고 끊임없이 호루라기를 비비비비 불며 양반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것도 100명을 채우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양반은 어떻게든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린다. 비굴한 모습이다. 민간에서 이러한 내용의 탈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양반의 횡포가 심했기 때문이었다고 봐도 그리 큰 착각은 아닐 듯하다.

● 노동을 싫어하는 양반들

우리 속담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 김홍도 〈벼타작〉

옛날 양반 한 사람이 시중꾼을 데리고 면길을 떠나게 되었다. 어느덧 가지고 간 음식은 다 먹어 버렸는데 의외로 갈 길은 멀고 민가는 보이지 않았다. 양반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시중을 드는 하인을 보고 어서 당장 먹을 만한 음식을 장만해 오라고 호통을 쳤다. 하인은 즉시 밭에 가서 콩알 두 줌을 얻어왔다.

“아니 그게 뭐냐?”

“예 이것은 늦가을 밭에서 주운 콩알인데, 이제 곧 불에 구워 올리겠나이다.”

그러자 양반은 대뜸 호령을 쳤다.

“에끼 놈! 그래 자체 높은 양반이 나더러 너희 쌍놈들처럼 주어온 콩알을 구워 먹으란 말이냐?”

“어서 썩 다시 구해 오너라.”

그리하여 이번에는 감자 몇 개를 주어왔다.

“그건 또 뭐냐?”

“예, 감자인데 이제 곧 불을 지펴서 따끈따끈하게 구워 올리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반은 또 소리쳐 꾸짖었다.

“에끼 놈! 그래 나를 뭘로 보고 이따위를 음식이라고 가져 오느냐? 어서 썩 내던지지 못할꼬?”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기 몇 일 동안 하였는데, 더 베티지 못한 양반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하인이 얼른 불을 지펴 콩을 굽고 감자를 다시 구워 양반을 살리려 기만히 들여다보니, 어느덧 길게 자란 수염에 수척해진 몸꼴이 말이 아니었다.

“양반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째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노릇을 하지 죽고서야 어찌 양반질을 하겠습니까?”

이 말에 양반은 깨달은 바 있었던지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하인이 들고 있던 감자를 와락 잡아채 자기 입에 넣고서 하는 말이,

“옳다 옳아. 네 말이 옳다. 네가 들고 있는 감자 몽땅 나를 주고 양반은 너 해라.”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다. 재미있는 점은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양반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노비를 시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만 할뿐이다. 결국에는 양반질도 자신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음을 깨닫기는 하지만, 체면이 더 중요한 양반의 습속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문선』에 실려 있는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결식론(乞食論)」을 보자.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문제는 중대한 것이다. 하루라도 먹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하루라도 구차스럽게 먹을 수는 없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해치며, 구차하게 먹으면 의리를 해친다. 「홍범(洪範)」의 여덟 가지 정사(八政)에 먹는 것과 물자가 먼저 있으며,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다섯 가지의 가르침에도 오직 먹는 것이 맨 앞에 놓여 있으며, 자공(子貢)이 정치를 물었을 때에 곧 공자(孔子)는 먹을 것을 풍족히 할 것을 일러주었다. 이것은 옛 성인이 백성을 살피는 방법에 있어서 하루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모두 여기에 대하여 서둘러서 농사짓는 것을 가르치며, 물품을 세(稅)로 바치는 법을 마련하여 군사와 행정에 예산을 세우며,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는데에 경비를 두며, 훌아비와 과부, 늙은이와 어린이가 모두 먹고살게 되어 식량이 결핍되거나 굶주리는 탄식이 없었다. 성인은 백성을 위하여 염려하는 생각이 원대하였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천자와 공(公) · 경(卿) · 대부(大夫)는 백성을 다스리며 먹고살았고, 아래에 있는 농업 · 공업 · 상업을 하는 백성은 노동에 부지런히 힘써 먹고살았고, 중간에 있는 선비는 (집에) 들어와서 효도하며 나와서는 공경하여 선왕의 도를 지키며 후일의 학자를 기다려 먹고 살았으니, 이는 옛 성인이 하루라도 구차하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각기 직업을 두어 하늘이 먹여 살리는 혜택을 받게 했으니, 백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지극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생활하는 자는 모두 옳지 못한 백성이니, 임금의 법에 비추어 반드시 죄를 받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도전은 사람에게 먹을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당연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먹기는 먹되, 구차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구차하게 먹는 것은 의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리며 먹고사는 군주와 벼슬아치의 상위 계층과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선비의 중간계층 그리고 농업과 공업 그리고 상업 등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하위 계층으로 나누면서 성인이 각기 직업을 두어 먹고살게 했다고 한다. 노동은 농 · 공 · 상업에 종사하는 백성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조선시대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1902년부터 1903년까지 서울에 주재한 이탈리아 총영사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가 당시 조선사회를 보고 『꼬레아 꼬레아니(Corea e Coreani』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였다.

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자는 귀족 계층인 소위 양반 계층이며, 관리는 대부분 이 계층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관직에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 거기에 받아들여진 사람은 양반들뿐이다.

양반 계층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은 어떠한 종류의 일도 하기 싫어한다는 것인데, 나라의 지도부에서 이러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내부의 무질서는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들은 누구도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것은 노동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양반들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간혹 아주 빈곤한 상태로 전락한 양반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적당한 일거리 찾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양반에게는 일보다는 차라리 친구들의 도움이나 들붙어 사는 생활, 사기 또는 기만에 의지하는 것이 더 품위가 있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이런 식으로 삶을 꾸려 가는 것이 전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들의 후한 마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부유한 양반의 주위에는 엄청난 수의 들붙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손님을 이루고 있다. 서울의 아주 부유한 몇몇 가정에는 가족의 구성원 중 자신들의 생계를 도움에 의지하는 몰락한 친척들, 하인들, 양반 식객들의 수가 3~4백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 담와 홍계희 〈평생도 중 치사(致仕)〉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사회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양반을 지배계층이라고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려 하며, 타인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것이라 온전히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무리지만,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양반이라는 신분만으로 존경과 대접을 받는 양반에 대해 카를로 로제티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류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카를로 로제티는 양반의 중요한 특성으로 어떠한 종류의 일도 하기 싫어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누구도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노동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구차하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는 조선 전기의 인식이 남에게 들붙어 사는 방법으로 변화된 듯하다.

성대중의『청성잡기』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양반이 온 나라에 깔려 있으니, 음지도 조상의 공업도 다 끝나고 토지도 노예도 없으며 글도 무예도 익히지 않아 모습과 언동이 평민만도 못한 주제에 그래도 조상의 훌륭한 유업을 들먹이며 남에게 부림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한갓 남의 땅을 움켜쥐고서 이를만 소작일 뿐이지 자기는 쟁기질도 호미질도 제대로 않고 평민들을 부리려 드니, 평민들이 그 말을 듣겠는가. 이 때문에 농사일에 번번이 때를 놓쳐 땅 주인만 피해를 입게 되며, 땅 주인이 조금이라도 책망하면 마구 욕을 해대고 그나마 소출도 다 주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땅 주인이 땅을 빼앗지 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으면 팔아야 하는데 팔려고 하면 틀림없이 빼앗기게 된다. 이래서 서로 땅을 주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니, 웃칠을 한 검은 갓을 쓴 양반들이 어찌 더욱 빙궁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김홍도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성대중은 영남지역에서 소작을 주지 말아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들었는데, 노비·친구와 더불어 양반을 들고 있다. 양반들은 일을 할 줄도 못하며, 소출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양반들이 얼마나

노동하기를 싫어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부렸는가를 알려준다. 백성들에게 양반이 그리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지는 않다.『청성잡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영천(永川)에 사는 백성이 그 자식에게 훈계하기를, “양반과 사귀지 마라. 꼭 곤장 맞을 일이 생긴다. 관리와 사귀지 마라. 반드시 고된 노역에 끌려가게 된다. 종들과 사귀지 마라. 틀림없이 젊은 아내를 잃게 된다.”고 하였으니, 영남 사람들이 명언이라 하였다.

경북 영천에 사는 일반 백성이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말 가운데,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관리와 승려와 함께 양반을 들고 있다. 그 이유로는 백성은 양반과 같이 있으면 곤장 맞을 일이 생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양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백성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을 해댄 탓이라. 박지원은 「허생전(許生傳)」에서 허생의 아내를 통해 양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허생(許生)은 묵적골에 살고 있었다. 줄곧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터 위에 해묵은 운행나무가 서 있고, 사립문이 그 나무를 향하여 열려 있으며, 초록 두어 칸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허생은 글읽기만 좋아하였고,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셈이다. 하루는 그 아내가 몹시 주려서 훌쩍 훌쩍 울며 하는 말이,

“당신은 한 평생에 과거(科舉)도 보지 않사오니 이럴진대 글은 읽어서 무엇하시려요.”라고 하였다. 허생은, “난 아직 글읽기에 세련되지 못한가 보오.”

하고 깔깔대곤 했다. 아내는, “그러면 공장이 노릇도 못하신다는 말예요.”

하였다. 허생은, “공장이 일이란 애초부터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소.” 하니, 아내는, “그럼,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셔야죠.” 한다. 허생은,

“장사치 노릇인들 밑천이 없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겠소.” 하였다. 그제야 아내는 곧, “당신은 밤낮으로 글 읽었다는 것이 겨우 어찌할 수 있겠소 하는 것만 배웠소그려. 그래 공장이 노릇도 하기 싫고, 장사치 노릇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소.”

하고는 몹시 흥분하는 어조로 대꾸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글공부만 하는 남편 허생에 대해 그의 아내는 물건을 만들거나 장사라도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글공부밖에 한 적이 없는 허생은 배운 적도 없어 할 수 없다고 하자, 아내는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배를 깊은 상황에서도 글만 읽는 무능한 남편에 도둑질이라도 하라고 한다. 이는 비단 허생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허생전」은 허례허식에 빠진 양반사회를 비판하고 부국이민(富國利民)의 경제사상을 내세운 사회 개혁적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없고 말로만 떠드는 양반들에 대한 조소를 박지원은 그렇게라도 드러내고 싶었던 듯하다.

아내의 바가지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허생은 부자인 변씨에게 만냥의 돈을 빌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을 10배로 해서 갚는다. 하지만 변씨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그는 “내가 한때의 주림을 참지 못해서 글읽기를 끝내지 못했으니, 그대의 만냥을 부끄러워할 뿐이로서”라고 하여 한탄하기도 했다. 구차하게 먹고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깨끗하면서도, 결국 허생도 시대적인 한계는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변씨에게 자신의 능력을 듣고 찾아온 이완(李浣)에게 허생은 사대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위 사대부란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이맥(彝貓)의 땅에 태어나서 제멋대로 사대부라고 뽐내니 어찌 양심하지 않느냐. 바지나 저고리를 온통 희게만 하니, 이는 실로 상중에 있는 사람의 차림이요, 머리털을 한 데 묶어서 송곳

같이 찌는 것은 곧 남만(南蠻)의 방망이 상투에 불과하니, 무엇이 예법(禮法)이니 아니니 하고 뽐낼 게 있으랴. 옛날 번오기(樊於期)는 사사로운 원망을 갚기 위하여 머리 잘리기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자기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오랑캐 옷 입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거늘, 이제 너희들은 대명(大明)을 위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면서 오히려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끼며, 또 앞으로 장차 말달리기·칼 쓰기·창 찌르기·활쏘기·돌팔매질 등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소매를 고치지 않고서 제 딴은 이게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쓸모도 없는 작은 것을 예법이라 하여 그것에 신경을 쓰면서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명분만 들먹이며 실행을 하지 않는 사대부들을 향해 일갈을 하고 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정작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며 행동하지 않거나, 노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양반의 전체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려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가 갖는 한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자기 합리화 속에서 활력을 잃은 양반 사회의 지속이 조선의 몰락으로 이어졌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도 혹시나 조선 후기 양반사회같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 만족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문제이다. IN

이 글은 필자의『옛 그림속 양반의 한평생』(돌베개, 2010)에서 내용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입니다.

필자 소개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역사학도로서 전통 무예, 애니메이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옛 그림에서 만난 우리 무예 풍속사」,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등을 저술하였다.

모바일 시대에서 기록정보 서비스를 말하다

❖ 김재평 국가기록원 공업연구사

I.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1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1천만을 넘었으며¹⁾, 스마트폰 관련 업계 및 언론에서는 올해 안에 2천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전용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757개 공공기관 웹사이트 중 35곳(4.6%)에 불과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²⁾.

* 참고 : 모바일 서비스 관련 주요 용어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 PC에서와 동일한 웹페이지 화면을 제공하나,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 화면을 확대/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단점이 있음
예 : www.naver.com, www.daum.net, www.seoul.go.kr

모바일 웹

- 풀 브라우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되도록 별도 제작한 웹페이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바일용 웹브라우저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번 구축해 놓으면 최신 정보가 항상 제공되고, 사용이 편하다.
예 : m.naver.com, m.daum.net, m.seoul.go.kr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폰용, 안드로이드폰용, 윈도우모바일폰용 등 플랫폼에 따라 각각 개발됨. 모바일 웹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예: 은행뱅킹 등)도 구현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버전이 바뀌면 사용자가 매번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정보 이용 채널이 많아지고 정보 이용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기록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개념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에서 단 몇 번의 터치 만으로 국가기록을 검색하고, 기록 정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해보자.

II. 스마트폰 등 모바일 서비스의 특징

그렇다면 모바일 서비스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보는 스마트폰의 장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출장, 여행 등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 컴퓨터를 켜는 번거로움 없이 즉석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즉석에서 검색하는 것이 일상생활로 자리잡고 있다.
-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웹·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포함된 GPS(위치정보 활용), 카메라, 중력/가속센서, 멀티터치(예 : 문서 · 사진 확대시 편리) 등의 기술을 잘 활용할 경우 기존 PC 사용자의 경험을 뛰어넘는 다양한 서비스와 응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특성에 따른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작은 화면 크기로 인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거나, 이용이 불편할 수 있다.
- 모바일 단말기의 기술적 제약(PC에 비해 느린 성능, 간소화된 운영체제)으로 인해 PC와 동등한 기능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 데이터 이용료가 PC에 비해서는 아직 비싸다.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의 매력은 매우 크다. ‘스마트폰 혁명’이라 불릴 만큼 금융 · 교육 · 언론출판 · 공공서비스 · 오락 · 쇼핑 · 방송 · 여가 등 우리 생활 전반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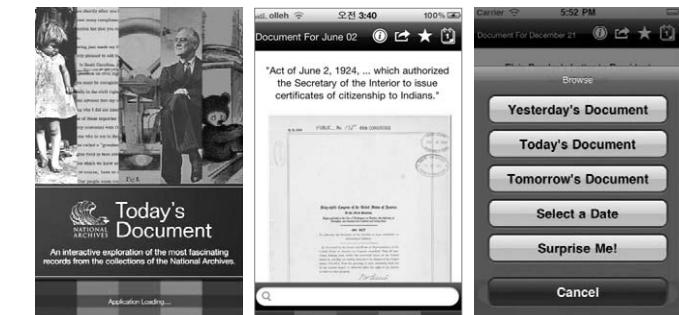
한편 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스마트폰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 ·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III. 기록정보와 관련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내 · 외 사례

현재 모바일용으로 제공되는 기록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부 외국의 국가기록원에서도 몇 가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에서 기록문화 및 기록정보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자 한다³⁾.

(1) 외국의 사례

미국 국립기록청의 “Today’s Document(오늘의 기록)” 앱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서,

1) 2011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2) 2010년 10월 25~26일자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언론 보도 자료 참고

3) 본 고에서는 편의상 Apple사의 앱스토어(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매일 동일 날짜의 역사적 기록물을 1건씩 소개하고 있다.

영국 국가기록원의 “The National Archives” 앱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교통 · 디자인 · 군주제 · 공공 · 전쟁 · 지도 등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주요 사진기록물과 설명을 간략히 제공하고 있다.

영국 국가기록원의 “Old Money” 앱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역사기록물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구 화폐를 신 화폐 가치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활용 예

“1761년에 버킹엄 궁전은 왕실에 21,000파운드에 팔렸다”
“1599년 이전에 배우었던 셰익스피어의 연봉은 약 100파운드로 추정된다”

– 이러한 화폐 가치는 오늘날로 치면 얼마에 해당할까?

(2)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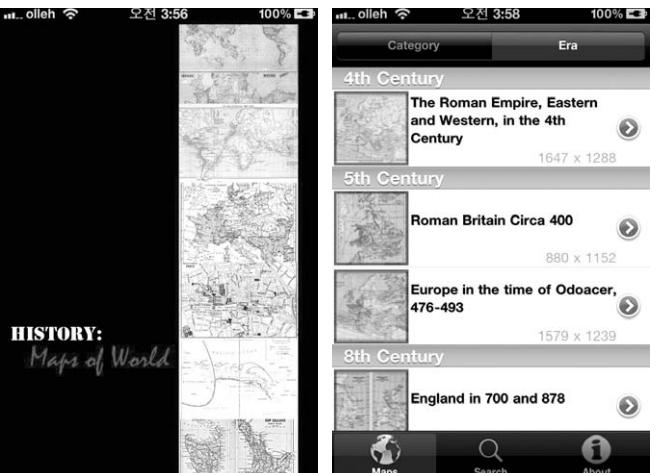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지도로 만나는 대한민국” 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10종을 대상으로, 고지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고지도를 구글맵 기반의 현대 지도와 중첩시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민간 개인 개발자 제작 사례

민간 개인개발자 제작 “History : Maps of World” 앱



개인 개발자(조승빈)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미국 · 유럽 · 북남미대륙 · 아프리카 · 아시아 · 중동 · 오세아니아 등의 고지도를 관심유발 및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민간 개인개발자 제작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앱



개인 개발자(young seo)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개인개발자 제작 “세계속의 한국 문화 유산” 앱



개인 개발자(이현종)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유산과 함께 조선왕조실록, 의궤 등 세계적 기록유산의 사진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은 기록정보와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일반 PC와 동등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용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진기록물 및 간단한 소개자료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별도의 웹서버를 갖추어야 하는 모바일 웹 방식과는 달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개인 개발자도 자유롭게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보면, 기록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국가기록원의 모바일 기록정보 서비스 추진 현황 및 전망

국가기록원은 현재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57편의 기록정보 콘텐츠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기록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나라기록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기록정보 콘텐츠 현황 (총 57편)

컬렉션 (13편)

국무회의관련 컬렉션 / 관보 컬렉션 / 내고향 역사알기 컬렉션 / 대통령 컬렉션 / 독립운동관련문 컬렉션 / 반민주 행위자 조사 · 심사기록물 컬렉션 /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컬렉션 / 일제강제연행자명부 컬렉션 /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 정책정보 컬렉션 / 조선총독부 기록물컬렉션 / 지역관련 컬렉션 / 참여정부 정책간행물 컬렉션

토픽 (21편)

6 · 25전쟁 / 5 · 18 민주화운동 / 경부고속도로건설 /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 국제 스포츠 대회 /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선거의 역사 /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 남북회담 / 다시보는 2002 FIFA 월드컵 / 독도 / 사건기록으로 보는한국현대사 1~4 (김창룡저격사건/진보당사건/3 · 15 부정선거/필화 사건) / 산림녹화 / 산업단지 개발 / 새마을운동 / 엄마랑 아빠랑 어린이날 기록여행 / 연표와 기록 / 원자력 진흥정책 / OECD 가입

주제 콘텐츠 (1편)

공공질서, 외교 등 국정분야별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 6, 404건

온라인 전시관 (6편)

건국60년 특별전 /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 / 국제기록문화전시회 / 기록이 있는 영상카페 / 사진 대한민국 / UN의 눈으로 본 사진전

이용자참여 콘텐츠 (5편)

기록으로 살펴보는 의식주문화 / 노래로 배우는 한국현대사 /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우리 경제의 발자취 / 대한민국 희망기록 / 함께 만드는 기록세상

기타 (11편)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 / 나는 대통령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 /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 웹툰으로 보는 기록사랑 이야기 / 이달의 기록 /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보는 어제와 오늘 / 중앙행정기관 변천연혁정보 / 카툰 공문서 / 훈장전시관 / 헌법이야기

다년간에 걸친 웹접근성 개선 및 웹브라우저간 호환성 개발 등을 통해, 현재 스마트폰에 내장된 웹브라우저에서도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방식을 통해 기록물을 검색하고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새로운 IT기술 출현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하고자 「10년도에 「신개념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2011년도 국가기록 모바일·온라인 서비스 사업」에서 처음으로 국가기록원의 모바일 기록정보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의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기존 나라기록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기록정보 콘텐츠를 모바일 단말기에 적합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 모바일 웹 기록정보 서비스 구축

-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 환경에 최적화된 기록물 검색 서비스 구축
- 기록물 검색, 온라인 사본신청 기능 개발
- 방문열람 서비스 안내 기능 개발(위치도면, 주소, 교통편 등)
- 우리원 기관 소개(국가기록원 발자취, 조직도, 업무내용 등)

• 모바일 웹을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 모바일 콘텐츠, 기록물검색, 방문열람 서비스 및 기관소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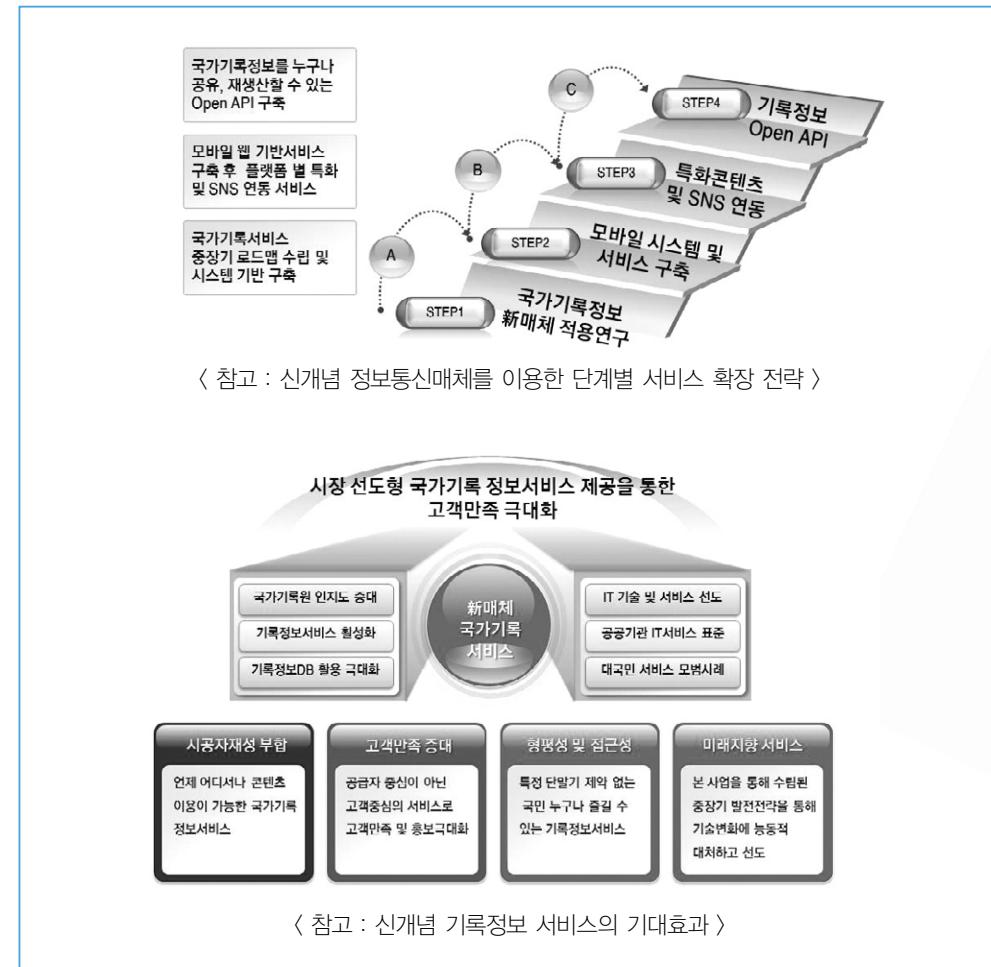
※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우폰 등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

• 기 구축 콘텐츠의 모바일화

- 기 구축 콘텐츠 중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정하여 모바일에 최적화하여 서비스 예) 교육콘텐츠, 온라인 전시 콘텐츠 등 3편 이상 선정하여 구축

모바일 단말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조작할 때의 불편함이 없이 기록물 검색 및 사본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모바일용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록정보의 이용자 계층이 더욱 넓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와 같은 모바일 기록정보 서비스 인프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맞춤형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신개념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0. 11.)

모바일 서비스가 단순히 “작은 단말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작은 프로그램”은 아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편리함, 신속성, 그리고 친숙함을 통해 이용자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인 것이다. 기록정보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이 비록 작은 화면에서 작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대국민 알권리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 그리고 기록문화 확산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IN

필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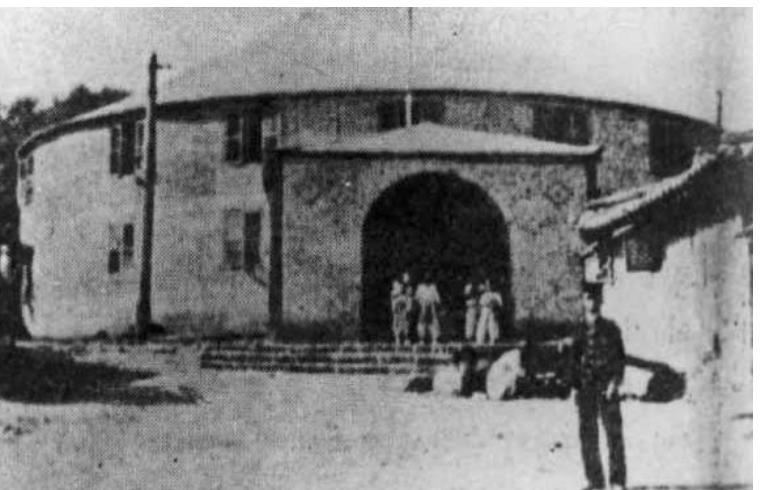
충남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석사)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모바일단말용 무선인터넷 연동 기술을 개발하였다. 현재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과에서 「국가기록 모바일·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 수집과 보존의 체계화를 위한 예술정보화의 방향

▣ 이호신 국립예술자료원 서비스팀장

1. 여는 말

‘원각사(圓覺社)’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연장으로 알려져 있다. 약간의 논란이 있는 하지만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처음으로 공연된 1908년을 대개는 우리 신연극의 기점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2008년에는 연극계에서 신연극 도입 백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원각사’가 우리 연극사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연장 <원각사>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원각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의 광화문 새문안교회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과 <십청가>, <춘향가>, <수궁가> 등과 함께 <은세계>가 상연되었다는 사실 정도가 고작이다. 공연장은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었는지? 각각의 공연들은 어떤 모양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관객들과는 어떻게 호흡을 나누었는지?

당시 공연의 모습을 되살려 내거나 어림짐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오늘 우리에게 그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라고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옛 신문기사 몇 조각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백년하고도 몇 해가 더 지난 지금 우리가 그 공연장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공연들의 모습을 되살려내고, 짐작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어느 곳과도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공해로 여겨질 만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록의 수집과 보존은 여전히 백 년 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문예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전시는 약 2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작 이 가운데 몇 년 뒤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대부분은 국가적인 수집과 관리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채 급격하게 소실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불과 몇 년 전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연극연출가나 배우의 관련 기록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소재 파악조차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예술자료 관리와 활용의 열악함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해 국립예술자료원이 새롭게 발족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전시와 관련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 보존,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미 디지털형태로 생산되어 활용되고 있는 여러 예술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아카이빙하고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저장소를 구축하는 사업에 무엇보다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은 국립예술자료원이 추진 중인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의 구축방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간략하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술자료의 종류와 특성을 소개하고, DA-Arts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2. 예술자료의 종류와 특성

예술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자료는 매우 다양하다. 실질적인 활동의 목표이자 결과물인 예술작품을 비롯하여, 그러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자료들이 함께 생산된다. 또한 유형의 실체를 가지고 생산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작품 생산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나 단체, 공간에 관한 정보, 작품의 생산과 향수와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도 예술 활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한 정보에 해당이 된다.

<표 1>은 예술 활동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그 내용과 쓰임새에 따라서 구분¹⁾한 것이다. 그 내용과 쓰임새에 따라 예술자료를 작품기록, 홍보·평가기록, 현장도구, 생산자정보, 통계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작품기록은 작품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작품과는 구별이 된다. 예컨대 미술작품은 작가가 만들어낸 특정한 객체만을 일컫는 것이지만, 작품기록은 해당 작품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홍보·평가기록은 예술작품이나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기록과는 구별이 된다. 현장 도구는 예술 활동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증거적인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생산자정보와 통계정보는 유형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작품의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07)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방안> 25쪽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표 1〉 예술자료의 내용과 쓰임새에 따른 구분(예시)

작품기록	홍보평가기록	현장도구	생산자정보	통계정보
그림(이미지)	포스터	의상디자인	예술가	행사통계
사진	팸플릿/전단	무대디자인	예술단체	관람통계
악보	사진	조명디자인	공연장	
대본(희곡)	관람평	현장 소도구	전시장	
무보	평론	의상/악기		
공연실황영상	보도자료	회계장부		
음악녹음	신문기사			

예술자료 역시 일종의 기록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록물로서의 몇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료의 생산과 유통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술자료는 매우 비조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행정기록물의 경우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생산이 되고 관리되지만, 예술자료는 예술가 개인이나 영세한 민간 단체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중가요나 만화와 같이 일부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한 장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별도의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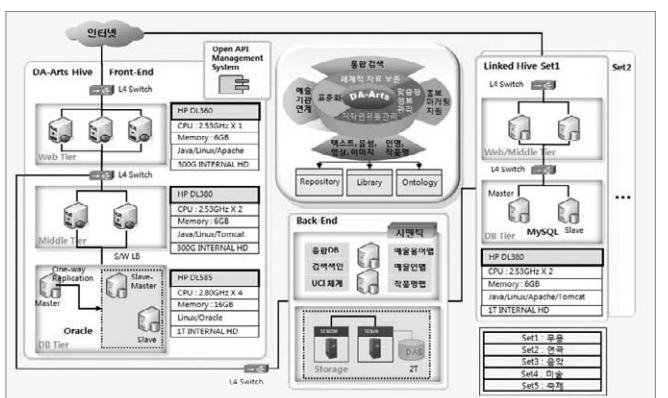
둘째, 자원보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술자료는 생산 시점에서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보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쉽사리 휘발되어버릴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예술자료의 생산과 유통은 개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보존의 체계적인 경로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특히 공연예술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고유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공연 작품의 보존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그나마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공연의 흔적과 자취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예술자료의 수집과 보존은 여타 다른 분야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셋째, 자료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술자료는 분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동일한 작품을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다른 주체가 공연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여러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해당 작품에 관한 자료를 한 곳에서 모두 소장하여 수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예술자료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을 자료로서 총체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분산된 정보를 하나로 엮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공연이나 전시에서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록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분산된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구축 방안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는 우리나라 예술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그리고 활용을 위해서 국립예술자료원이 2011년부터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부진한 국내 예술자료 관리 실태를 개선해서 열악한 환경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예술 활동의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고, 예술자료만의 고유한 특성을 온전히 반영해서 예술가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DA-Arts 시스템의 간략한 구축 방향이다.

1) 공동 정보저장소의 구축



[그림 2] DA-Arts 시스템 개념도

DA-Arts의 기본 개념은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정보저장소이다. 오늘날 예술 현장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고 있지만, 지금껏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해서 필요한 시점에 곧바로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창고는 제공된 바가 없었다. 실제로 국내 예술단체 가운데에는 디지털기록물을 확보하고 있으나 마땅한 정보저장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된다. DA-Arts는 이런 예술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예술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자료를 곧바로 디지털아카이빙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예술정보 창고이다.

우선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창고로서의 역할에서 출발 하지만, 저작물의 판매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연계하는 디지털마켓으로의 역할로 확장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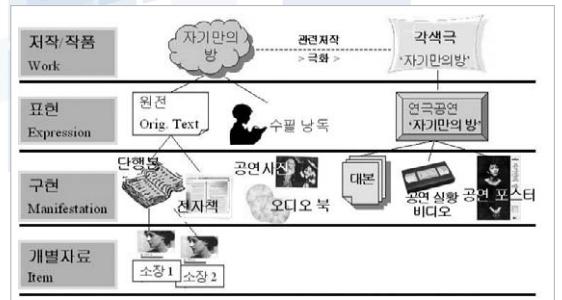
2) 메타데이터의 클러스터화와 표준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라는 의미로, 데이터가 가지는 속성값을 기계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을 일컫는다. 메타데이터는 자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자료 자체를 직접 보지 않고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다량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서는 매우 필수적인 항목이다.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느냐에 따라서 정보 제공의 방법이나 정보 검색의 틀 자체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에서 메타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DA-Arts가 수용하는 데이터는 문학을 제외한 음악, 연극, 무용, 전통연희 등의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로 크게 대별이 된다. 따라서 DA-Arts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자료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어야 하고,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종사자들의 정보 검색 행태와 합당하게 들어맞아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DA-Arts 시스템은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각각 구분하여 메타데이터를 설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예술자료의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이 수차례 반복해서 공연이나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하나의 활동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작품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공연이나 전시를 하나로 모아주고, 하나의 공연이나 전시에서 발생한 서로 다른 매체의 자료들을 구분해야만 특정한 예술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맥락의 온전한 보존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자체를 계층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층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엮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3] FRBR개념에 따른 공연예술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성



[그림 4] 작품정보 제공 화면 (예시)



[그림 5] 공연정보 제공 화면 (예시)

DA-Arts는 이러한 공연예술자료와 시각예술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가 제시하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개념을 메타데이터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FRBR은 메타데이터를 저작, 표현, 구현, 개별자료,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여 개념과 실물이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념이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공연예술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설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미술작품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변형된 체계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의 메타데이터 체계를 도입하여 자료가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3>은 FRBR개념을 반영한 공연예술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특히 메타데이터의 제공 단계를 <그림 4>와 <그림 5>처럼 작품정보와 공연(전시)정보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로 메타데이터가 구축되면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작품과 관련된 자료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작품에 대한 공연연보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작품이나 공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물정보, 단체정보, 용어정보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디지털 정보사전으로서의 역할로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확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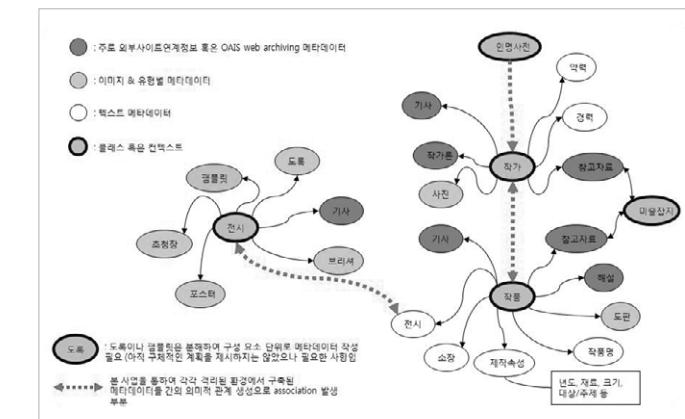
이러한 작업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겠지만, 예술사 연구와 예술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콘텐츠 그 자체의 수집에 비금간 만큼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여러 기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명실상부한 통합검색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개별기관들이 저마다 고유한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흔히 표준화라고 하면 통일된 형식의 표준을 마련하고 개별기관들이 그 체제를 수용하는 방안이 이야기되지만,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들을 이러한 패턴으로 표준화 작업에 동참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독자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메타데이터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etadata Registry)를 개발하여 각 기관들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맵핑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의 사용으로 개별 기관들은 독자적인 형식의 메타데이터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통합된 검색시스템에서는 표준화된 체계 속에 용해되어 검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정보검색의 시각화와 데이터의 융합 서비스



[그림 6] 정보검색의 시각화(예시)

지금까지의 정보검색은 대개 키워드 검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특정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되는 검색어를 파악해서 입력해야만 했다. 검색어로 무엇을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상이한 검색 결과를 얻게 되고, 검색어를 통한 검색의 확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DA-Arts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색인어를 지도화한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여 검색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구성될 예정이다. 시각화 검색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시맨틱 웹 기술을 도입하여 정보검색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필자 소개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정보관장, 정책홍보부장을 거쳐 현재 국립예술자료원 정보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논저로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방안 연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연구>,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기존의 정보검색은 단어의 구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어가 가지는 의미 단계로 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형동의어나 동형이의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형태를 가진 단어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검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맨틱 웹은 기존의 구문 기반의 정보검색에서 벗어나 정보검색을 의미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시맨틱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형동의어나 동형이의어의 구별은 물론이거니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 관계까지도 파악하여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소설가 이광수와 사물놀이 연주자 이광수를 서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광수와 교류를 맺은 작가나 연주자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작품과도 자연스럽게 검색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의미기반 정보검색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인 LOD(Linked Open Data)를 활용하게 되면, 다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의 융합 서비스도 가능해져서 신문사, 대학 도서관 등의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나 신문기사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정보제공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이나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술지논문, 각종 신문기사 등도 검색 결과로 융합(Mash up)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 정보이용자들이 한 번의 정보검색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IN

'오늘의 날씨입니다'

- 기상청 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 정석권 기상청 기록연구사



흘끗 보기 – 기상청이 걸어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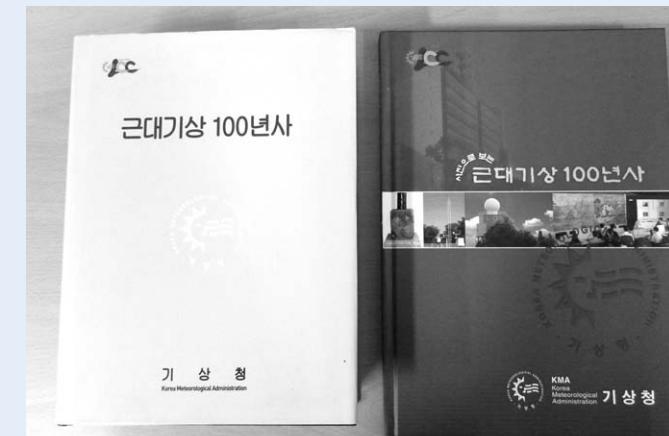
2004년은 기상청에게 매우 뜻 깊은 해였다. 근대 기상업무가 시작된지 100년이 되는 해로 대대적인 기념식과 함께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904년에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등 5개소에 임시기상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근대 기상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강제 국권 찬탈에 의해 조선총독부관측소로 업무가 이관된다. 광복 후 미 군정청 문교부 관상국에서 잠시 기상업무를 맡았다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국립중앙관상대직제가 제정되어 국립중앙관상대가 신설되었다.

이후 1963년 중앙관상대로, 1981년에는 중앙기상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0년에 기상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기상청은 본청 8개의 국 단위 기구와 30개 처리과, 9개의 1차 소속기관과 53개 2차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약 1,300여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상청 기록관리의 어제와 오늘

기록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상청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후발주자라 할 수 있다. 2005년 중앙행정기관에 기록 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면서 기상청도 전문요원을 채용하였으나, 만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전문요원이 2번이나 바뀌었고 상당시간의 공백기간까지 있었다. 이로 인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기록관리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동안 기상청의 기록관리는 2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첫 단계는 2008~2009년의 2년간으로 기록관리 업무의 기본 틀을 닦은 기간이었고, 이후 현재까지는 한 단계 성숙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간의 노력을 통해 현재 기상청은 기록관리의 기본 틀을 잡고 내실화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직원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 근대기상 100주년을 기념하여 100년간의 기상청과 기상업무 역사를 정리하여 발행한 '근대기상 100년사'



▶ 근대기상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상청 현관 바닥에 설치한 기념 표지



1단계 기록관리 터 닦기(2008년~2009년)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기록물분류기준표였다. 처리과와 기록관, 국가기록원간의 분류기준표가 상이하여 단위업무의 관리는 물론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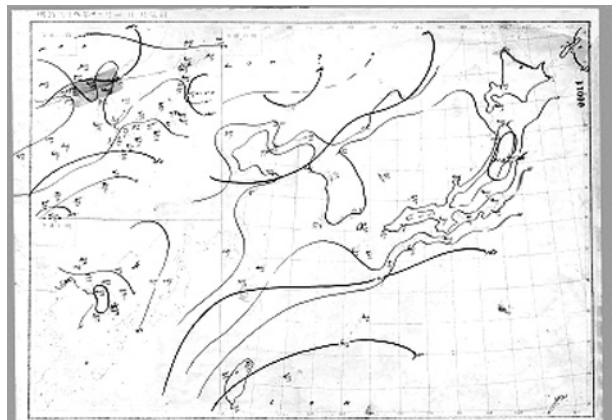
먼저 관련 부서와 업체,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의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어 각 부서의 연혁과 업무이력을 소급하여 분류체계를 검토·조정하고 임시단위업무와 미편철 기록물을 정리하는 등 수 개월의 노력 끝에 정상적인 단위업무 관리와 생산현황 보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물 생산 현황 보고를 완료하기도 했다.

2008년 초까지 기상청은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서고 등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본청의 기상관측기록물은 다행히 서가에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기록물 목록이 없어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일반기록물의 경우는 사정이 좋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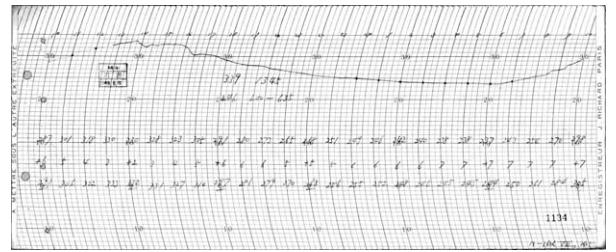
지하 서고에는 각종 물품과 캐비닛 등이 들어서 있었고, 캐비닛 안에는 과거 문서와 서적 등이 가득하였다. 또 이전에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들이 상자에 담겨 마치 성벽처럼 캐비닛 사이의 빈 통로를 메우고 있었다. 기록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서고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였다. 캐비닛을 정리한 후, 이동식 서가와 항온항습기, 비밀기록물 전용서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상자에 담아둔 기록물을 모두 풀어헤쳐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처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모두 이관받아 정리하였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전체 기록물 목록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서비스 하였고 서고에서는 모든 기록물을 1분 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힘을 썼다. 임용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국에 있는 담당자를 모두 본청으로 불러 모아 기록관리 인식 교육을 실시했다. 저 멀리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기상청에도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있다는 것과 기록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이후에도 매년 수차례에 걸쳐 직원 교육에 힘써오고 있으며 개별 방문을 통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기상청에는 오래전부터 미뤄오던 큰 과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전국 각지의 각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23만 7천권에 달하는 각종 기상기록(일기도, 온도, 습도 등 각종 기상관측 기록)을 이관하는 일이다.



▶ 현존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근대식 일기도



▶ 기온 자기기록지 – 1945. 8. 15 대구

기상청은 협준한 산 정상에는 물론 바다 건너 울릉도 까지 약 100년간 생산된 기상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보존환경이 좋지 않은 창고 등에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어 중요 기록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이관이 시급했다. 이에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가을까지 1년간에 걸쳐 본청 및 소속기관에 있는 기상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고 이는 100년이라는 연속성과 역사성을 가진 동일 유형 기록물의 이관으로는 우리나라 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였다.

내적인 틀을 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기록관리 규정 현황을 조사하고 기상청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록관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각 부서의 기록관리 담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처리과·지도·점검을 통해 부서별 미흡사항을 진단하여 개선해나갔다. 또한 그동안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서면 회의로 이루어지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정비하여 법령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였고, 대면회의를 통해 기록물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하였다. 폐기 결정된 기록물은 파쇄 전문차량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파쇄하여 기록물의 평가와 처리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노력과 일련의 변화들을 통해서 기록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시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기록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겨났고 하나의 고유한 업무영역으로서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인식과 실재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여전히 기록관리는 귀찮기도 하고 조금 미루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더디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변화를 통해 희망을 보게 된다.

2단계 디딤돌 놓기(2010년~현재)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시도와 함께 다양한 부분에서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10년에 실시한 가장 큰 사업은 전자문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용역사업을 통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생산된 전체 전자기록물을 일괄 이관하여 본격적인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로 돌입하였다.

직원들에게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공식 오픈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록관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기록물평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문요원의 노력과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모든 행정업무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으로 기록의 생산의무와 함께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절차성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기록물평가 업무의 내실화 및 기관 내 인식제고를 위하여 개별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상세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여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부분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개선하려 시도하였다. 먼저 비밀기록물을 기록관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았다. 기상청은 그동안 비밀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누적하여 관리하여 관리부담과 함께 행정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각 처리과별로 생산 및 관리 방법이 상이하였다. 이에 비밀기록물의 생산에서 평가·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관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이관 대상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일괄 이관하는 등 비밀기록물이 법령에 따라 관리 및 평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기상청 비밀기록물 관리방법



2011. 3.

기상청
운영지침

▶ 기상청 비밀기록물 관리 방법

과도한 열람제한과 비공개 생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서 열람범위 및 공개여부 설정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간행물의 발간등록 누락을 방지하고 미납본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간행물 발간등록 업무를 행정 자료실로 일원화하여 간행물 발간등록 관리와 납본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기도 하였다.

시청각 기록물과 행정박물 관리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주요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 부서인 대변인실과 협력하여 각종 시청각 기록물의 메타정보 획득 및 등록 방안, 이관 방안, 그리고 시청각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가치 기준 등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각 기관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 보존하기 위하여 사진기록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행정박물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생산되는 주요 행정박물의 유형에 따라 관리대상 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기상청의 기록관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관 전체 업무와 기록물에 대한 분류와 분석기준, 그리고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에 대한 선별기준이 필요하다. 때로는 동일 기록물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보존가치와 국가 차원의 보존가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기준과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비단 기상청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주요 정책과 사업, 주요 행사와 사건시 해당 기록들이 철저히 생산·등록되도록 하고, 관련된 시청각·행정박물 등의 기록물을 생산시점에 수집 및 이관할 수 있는 종합방안이 필요하다.

또 하나, 데이터세트의 문제도 있다. 새천년에 들어 와서 기상청은 각종 기상 관측 기록들을 데이터세트

형태로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의 장기보존 문제와 함께 이관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기록관리의 내일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한지 만 5년이 지났다. 그리고 새로운 5년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동안 각 기관 담당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다. 사실 헌신과 노력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뜨거운 열기와 앞이 보이지 않는 흙먼지로 뒤덮인 황무지를 훌로 개척해나가는 사람에게 헌신과 노력이라는 말은 너무나 건조한 언어이다. '뭐다 놓은 보릿자루'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온 가족이 모여 있는 남의 집에 혼자 손님으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차가운 변방에 훌로 벼려진 듯한 소외감과 외로움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베거운 짜움이다.

어찌 됐든 이러한 아픔을 통해 기록관리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틀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내실이 필요하다. 사실 기록관리는 형식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영역이다. 아니 좀더 과격하게 말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한계가 있다.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여전히 기록관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업무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깊이를 더하고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둘 때가 올 것이라는 어느 옛 글귀처럼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이를 것이다.

국가기록관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역사를 훼는 바늘이다. 역사와 전통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창조된다. 그러나 사명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기관과 기관, 학계와 현장, 중앙과 지방, 국가기록원과 기관간의 이해와 협력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양 위에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자. 이 땅에 성숙한 기록문화가 찬란히 꽂힐 때까지. IN

역사와 전통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창조된다.

”

국가기록관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역사를 훼는 바늘이다.



필자 소개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9기)을 졸업하고 현재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만화기록의 재발견

한국만화박물관 in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심현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관리연구팀 전임



▶ 허영만 화백의 대표작 '식객'의 원고

최근 '한국만화의 현재' 라 평가받는 허영만 화백이 15만여 장으로 추정되는 평생의 육필원고 일괄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기탁하였다. 공영방송 9시 뉴스에 보도 될 만큼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아마도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우리 '만화'와 '만화 원고'의 가치가 재조명 되는 순간이었다.

만화는 일반적으로 '그림'이라는 미술적인 요소와 '글'이라는 서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허영만 선생의 대표작인 '식객'을 예를 들면 원고 한 장 한 장의 그림 자체는 예술작품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으며, 주인공인 '성찬'과 '오봉주'의 대결구도 안에 벌어지는 옴니버스식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작품이 되기도 한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 문화에 대한 민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문화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 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화는 여러 문화적 요소들이 응집된 우리의 훌륭한 종합문화유산이다.

뿐만 아니라 만화는 본연의 문화유산적인 가치 외에도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원천소스(OSMU, One-Source, Multi-Use)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에서 만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만화는 게임 및 캐릭터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등 문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만화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진흥원의 만화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는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문화 산업의 키러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만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한편으로 사회악으로 까지 치부되었다. 70~80년대 '어린이 날'에는 남산에서 어김없이 만화 화형식이 거행되었으며,

90년대에도 만화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삭발 투쟁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만화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를 모색하던 부천시의 만화에 대한 애정과 만화계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 1998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전신인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만화의 가치증대'를 지상과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진흥원의 전략과제는 크게 '만화산업 기반 육성', '만화창작 역량 강화', '만화문화 인프라 확대',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류 활성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진흥원은 만화가 및 만화 관련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만화비즈니스센터(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별도)'와 전시공간인 '한국만화박물관(前 Museum만화구장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만화박물관'에는 진흥원의 전략과제인 '만화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만화도서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야경

왼쪽이 한국만화박물관, 오른쪽이 만화비즈니스센터로 2010한국건축 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만화도서관 일반열람실

만화도서관은 한국만화박물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열람실, 아동열람실, 영상열람실, 보존서고로 구성되어 있다.

만화도서관의 자료관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소장자료는 크게 박물관자료와 도서관자료로 구분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별도로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는 박물관 부속시설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박물관과 도서관의 자료가 비교적 동등한 위치를 갖는데 이는 시설 설립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진흥원이 부천만화정보센터 시설 공공시설로는 오히려 박물관 보다 도서관이 먼저 설립되었다. 도서관의 경우 부천에 위치한 ‘부천시립북부도서관’의 3개 층 중 1개 층을 임대하여 개관하였다. 반면 박물관의 설립은 보다 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서관 인근에 자리 잡지 못했고 ‘부천종합운동장’의 한 쪽에 개관하게 되었다. 두 시설 모두 10년 남짓 별도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다가

1) 하루에 한 권씩 발매된다는 의미에서 일일 만화라는 명칭이 붙었다. ‘일판 만화’라고도 한다. 주로 대본소를 통해 유통된다.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 만화규장각, 2009)

2009년 진흥원의 개원과 함께 한 건물로 합쳐지게 되었다. 지금은 진흥원의 박물관경영팀에서 통합관리 하지만 시설에 대한 정체성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편이다.

만화도서관의 장서는 25만여 권으로 크게 만화도서(만화단행본, 학습만화), 만화자료(정기간행물, 이론서) 그리고 영상자료로 구분된다. 수집의 방법은 크게 구입과 기증으로 나뉘는데, 구입도서는 주로 보존서고에서 보존되며, 기증도서를 중심으로 열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구입의 경우 진흥원 개원 시부터 현재 출판되는 모든 만화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일(대본)만화¹⁾를 제외한 전수를 구입하고 있다. 도서구입은 주로 만화전문총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전까지 ‘내원’, ‘서울’, ‘학산’ 등 만화전문출판사의 도서가 주를 이룬 반면에, 현재는 일반출판사들도 기존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탈피한 만화를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의 모든 만화책이 구입을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기증 자료는 이미 도서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열람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화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기증된다. 진흥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에 1999년부터 2011년 5월 현재까지 약 5만3천여 권의 도서를 기증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실물자료의 수집 외에도 출판만화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만화와 관련된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집된 우리나라 출간만화에 대한 기본 정보는 모두 디지털만화규장각 누리집(<http://www.kcomics.net>)을 통해 일반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도서관의 수서업무에 활용되고 진흥원에서 자료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만화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강된다. 이렇게 구체화된 데이터는 다시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포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만화박물관의 자료관리

박물관자료의 현황

박물관자료의 수집은 가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도서관보다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수집은 만화원고, 단행본, 정기간행물, 작가와 관련된 자료, 그 외 만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 등 출판물은 수집의 시점에서 출판된 지 30년 이상의 자료로 한정 하지만 만화사 및 전시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별도로 시대연한을 두지 않는다.

한국만화박물관 박물관자료 소장현황(자료연대별) (단위 : 건)

구 분	합계	원고	단행본	잡지	신문	원화	관련자료
합계	8,361	1,359	5,993	464	31	201	313
1890년대	1	—	—	—	—	—	1
1900년대	1	—	—	—	—	—	1
1910년대	—	—	—	—	—	—	—
1920년대	10	—	8	1	—	—	1
1930년대	33	—	13	2	17	—	1
1940년대	15	—	2	7	3	—	3
1950년대	148	28	57	35	5	—	23
1960년대	1,548	371	1,125	32	—	—	20
1970년대	2,889	359	2,185	266	4	—	75
1980년대	2,673	93	2,374	98	2	2	104
1990년대	437	150	211	22	—	8	46
2000년대	535	345	8	—	—	174	8
미상	71	13	10	1	—	17	30

▶ 만화정보관리시스템 관리자용 메인페이지

도서정보관리에는 ‘기본서지정보’, ‘추가서지정보’, ‘소장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부가정보관리에서는 ‘인명정보’, ‘출판사정보’, ‘캐릭터정보’, ‘코드관리’, ‘기관정보’, ‘용어사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각 ‘정보’의 항목들은 다시 세부 항목을 이룬다.



▶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베스트셀러인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고, 1958



▶ 진흥원의 박물관자료로 故길창덕 화백이 피우던 담배와 금연의 의지가 담긴 메모

박물관자료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만화 최초의 베스트셀러인 故김종래 화백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고이다. 1958년 발표된 '엄마 찾아 삼만리'는 남편의 죄로 멀리 타향으로 팔려나간 어머니를 찾아가는 '금준' 이의 여정을 그린 만화로 대단한 인기 속에 1964년 까지 10판이 출간되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운 작품이다.

한 편의 수묵화 위에 정교한 펜션 터치를 가미한 그림과 사실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전쟁 직후의 암울한 사회상을 대변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엄마 찾아 삼만리'는 김종래를 최고 인기작가로 우뚝 서게 하였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후진들의 '교과서'로도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데 '며털도사', '임꺽정' 등 한국적인 색채를 가득담은 작품들로 유명한 이두호 화백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장의 반열에 오른 많은 작가들도 공공연히 '김종래' 표 만화를 보고 만화가의 길을 결심했다고 말할 정도이다. 아마 만화와 관련된 자료가 국가의 지정문화재로 등재된다면 현존하는 후보군 중 수위를 차지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본다.

故김종래 화백은 만화사적 업적을 인정받아 사후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는데 만화가로는 드물게도 훈장을 생전에 그것도 두 번이나 수훈한 작가가 있다. 한 번은 한국전쟁 중 무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한 번은 우리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한 故길창덕 화백이 그 주인공이다. '꺼벙이'와 '순악질 여사' 등 우리 명랑만화의 대부로 칭송받는 그는 생전에 상당한 애연가였다. 이를 아침 조간 신문을 보면서 한 갑의 담배를 피울 정도였는데, 늦은 저녁 작업을 마친 후 재떨이 주변으로 꼬깃꼬깃하게 뭉쳐놓은 빈 담뱃갑을 보고서야 하루에 얼마나 담배를 피었는지(생전에 故길창덕 선생 스스로도 평균 5갑 정도였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를 기늠할 정도였다고 한다.

만화창작의 고통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실제 이후 금연에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고인이 생전 흡연의 후유증으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아프기만 하다.

이처럼 박물관에서는 만화가의 육필원고뿐만 아니라 만화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항온·항습설비가 구비된 수장고에 보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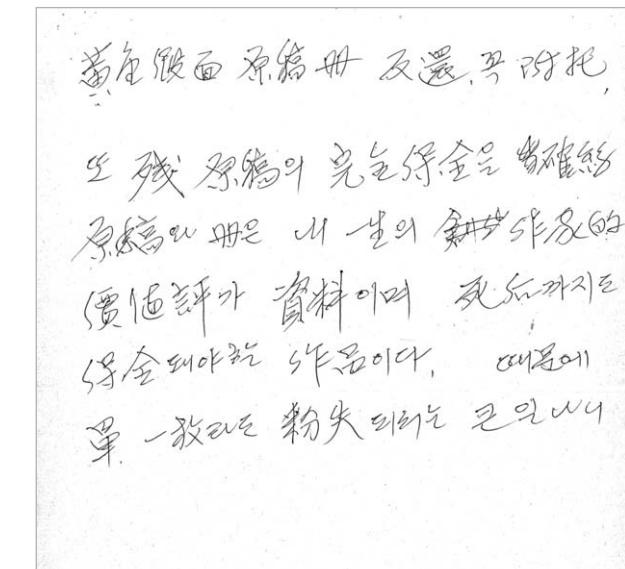
박물관자료의 수집방법

박물관자료의 수집방법은 크게 구입, 기증, 기탁으로 나뉜다. 구입이란 자료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대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기증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기탁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보존·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구입은 다시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 구입하는 정기구입, 경매참가 등 발굴된 자료를 구입하는 상시구입 그리고 전시 등의 목적으로 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는 특별구입으로 구분된다. 이중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된 정기구입의 경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의 소장자를 발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매해 매도신청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증과 기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있다. 기증은 자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반면에, 기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잠시 진흥원에서 보관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남의 것을 무엇 하러 공을 들여가며 어렵게 보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출판의 수단으로만 치부되어왔던 작가들의 육필원고를 과학적으로 보관하고 자료가 온전히 후대에 전승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작가들은 소유권 까지 이전되는 기증에 부담을 갖고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기탁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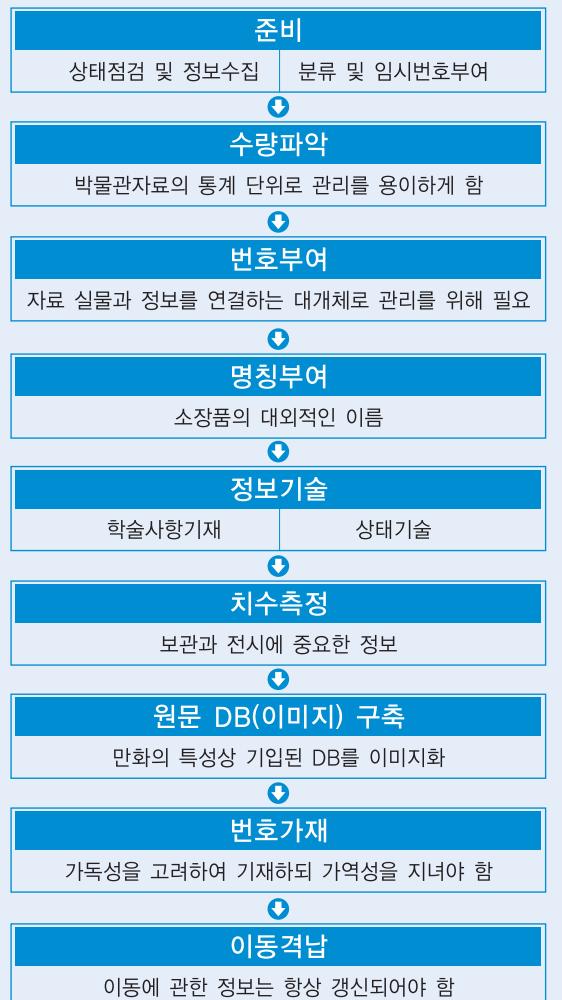


▶ 故김종래 선생의 메모

출판사에서 원고를 반납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기 위해 쓴 글로 추정된다. 끝내지 못한 메모의 내용 중 '원고와 책은 내 일생의 작가적 가치평가 자료이며 사후까지도 반드시 보존돼야 할 작품이다. 때문에 단 한편이라도 분실되서는 큰일나니……'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고인이 당시의 원고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전까지의 수집이 구입과 기증에 집중된 반면 지금은 작가들의 자료기탁을 집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기탁은 비록 최근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많은 작가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두에 언급한 허영만 화백의 사례에서부터 '명태자연'의 최경아 작가, '리니지'의 신일숙 작가가 평생의 원고를 기탁해 왔으며 故고우영 화백의 초기작인 '대야명'과 현지 보다도 유럽에서 더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박건웅 작가의 '노근리 이야기'의 원고도 기탁되었다. 최근에는 '도깨비 감투'와 '로봇찌찌'로 유명한 신문수 화백이 약 6만여 장으로 추정되는 육필원고의 기탁의사를 전해오는 등 기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중복된 도서를 중심으로 박물관



자료를 개인 및 기관들과 동등자료로 바꾸는 ‘교환’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의 귀중자료를 박물관의 수장고로 관리 전환하는 ‘이관’ 등 박물관자료를 보다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박물관자료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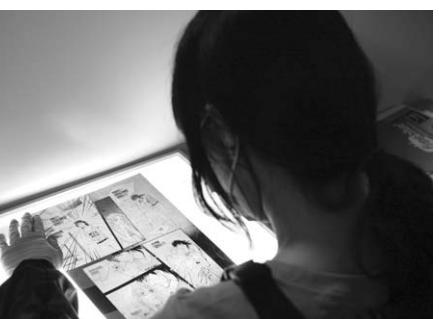
박물관자료는 한 박물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나,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 박물관 각각의 활동영역이 정해지는 만큼 수집과 함께 자료의 등록도 매우 중요하다.

등록의 과정과 방법은 박물관의 그 어떤 활동보다도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등록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앞서 등록된 소장품에 관한 수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불가피한 이유로 등록체계를 변경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막대한 시간, 예산, 인력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소장품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등록체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또 검토되어야 한다. 등록을 일관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장품등록담당원(registrar)의 역할이 강조된다.

등록 시 생산되는 데이터는 크게 ‘일반사항’, ‘출판사항’, ‘자료 관리사항’, ‘이동사항’으로 구분된다. 일반사항은 ‘가번호’, ‘등록번호’, ‘명칭’, ‘이명칭’, ‘주수량’, ‘부수량’, ‘치수’, ‘제작연도’, ‘작가’로 출판사항은 ‘출판사’, ‘페이지’, ‘총권수’, ‘판형’, ‘발행일’, ‘초판발행일’, ‘가격’으로 자료관리사항은 ‘입수연유’, ‘입수일자’, ‘입수처’, ‘입수가격’, ‘등록일자’, ‘자료입력자’, ‘상태’, ‘상태적 특징’으로 이동사항은 ‘장’, ‘열’, ‘단’, ‘박스번호’로 각각 세분화되어 입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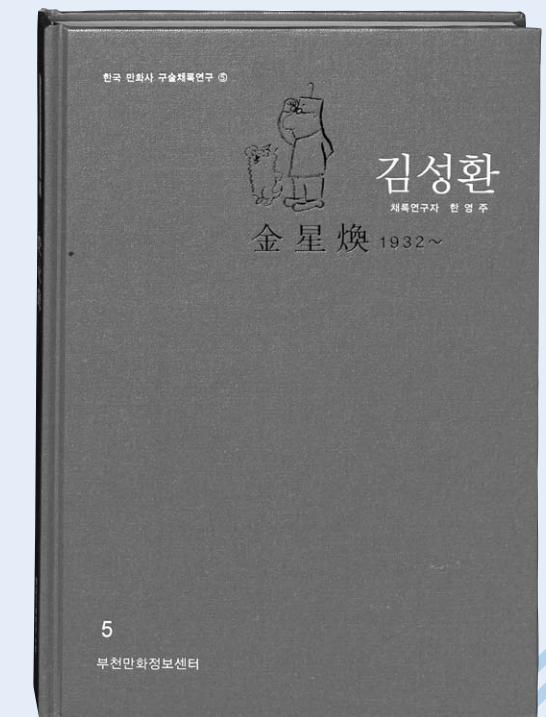
등록의 과정 중 다른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한국 만화박물관에서



▶ 박물관자료의 수장고 정리 및 등록작업



▶ 오버헤드스캐너를 활용한 디지털이미지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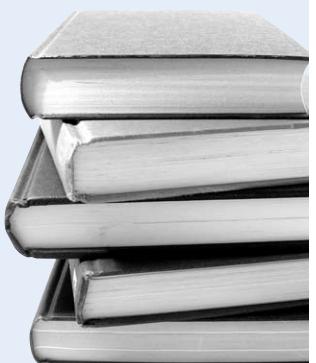
▶ 한국만화사구술체록연구 – 5. 김성환

특히 신경 쓰는 분야는 ‘원문DB(이미지) 구축’으로 그 목적은 박물관자료에 대한 현재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물론 원고는 낱장별로, 도서의 경우 책의 모든 내용을 디지털이미지화 하여 저장한다.

평면적인 소장자료의 특성상 사진 촬영보다는 스캐너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산한다. 이미지 생산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 모든 자료는 가치의 경증을 따지지 않고 그것이 어떤 자료이던지 간에 손상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둘째로 어떤 사유에서라도 이미지 생산을 위한 자료의 훼손을 금지하며, 셋째 자료 자체의 고유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기울기 등)외에는 보정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도서에 비해 손상의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디지털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장비는 오버헤드스캐너를 활용하고 있다. 도서의 경우에는 아직 오버헤드스캐너로는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페이지스캐너를 활용하여, 외주 용역을 통해 소화하기도 한다.

이미지는 추후의 활용을 위해 최소 광학해상도 300dpi의 압축하지 않은 파일로 생성하고, 디지털자료의 보존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상 백업본을 생산하여 이원화 관리하고 있다.



박물관자료의 활용

활용되지 않는 자료라면 아마 보존의 가치는 많이 상쇄될 것이다. 한국만화박물관에서도 타 박물관처럼 등록이 완료된 자료는 전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만화도서관의 열람실에는 디지털열람을 위한 PC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축된 DB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만화의 특성상 저작권의 문제가 걸려있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박물관내에서는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매년 진흥원에서는 만화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잊혀진 우리 만화 명작 중 선별하여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도록 고전명작 만화 복간사업(한국만화결작선)’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구축된 DB를 십분 활용해 사장될 위기에 있는 우리만화의 명작들이 세상에 다시 빛을 보이고 있다. 복간 사업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는 소멸위기에 있는 한국만화사의 구술자료를 조사·연구·수집하여 만화사 연구와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만화사구술채록연구’를 진행하여 만화사를 복원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나가며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현재 진흥원이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보존과학분야의 도입에 있을 것이다.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만, 손상된 자료를 수복하는 역할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수장공간의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수장고의 수장 가능수량은 도서 약 90,000여 권, 원고는 약 260,000여 장이다. 현재 도서수장대의 이용률은 10% 이내이지만, 원고의 수집 수량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이용률이 80.8%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수장공간의 부족으로 더 이상 자료를 수집 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를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실물자료뿐만 아니라 요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원고도 보존하기 위한 전용시설인 ‘한국 만화자료원(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시설의 설립 전 까지는 아직도 많은 논의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키리 콘텐츠인 만화원고를 소중히 활용하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조성되길 바란다.

얼마 전 허영만 화백이 자료를 기탁하면서 독자들에게 ‘만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은 전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IN



필자 소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박물관미술관학과에서 소장자료 관리를 전공하였다.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진속 생활역사 : 조선 궁궐 이야기

❖ 백승옥 국가기록원 사서주사



▶ 미스코리아 진선미 선발대회
(1964, CET0057080)



▶ 전국초등학교 어린이사생대회
(1964, CET0048358)



▶ 전국주부백일장이 열리고 있는
경희루 (1967, CET0064609)

▶ 광화문 준공식(1968, CET0021197)

궁궐은 한 나라의 중추가 되는 장소로, 서울에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등의 조선시대 궁궐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민족 혼을 짓밟기 위하여 철저하게 궁궐을 훼손하였다. 경복궁은 ‘조선물산공진회’, ‘조선박람회’ 등 박람회를 거치면서 많은 건물들이 헐리어 나갔고, 근정전은 그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세워지면서 조선 제일의 법궁으로서의 위상을 잃었다. 또한 창경궁은 순종 왕을 위로한다는 미명하에 그 안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등이 세워지고 또한 일반에게 공개되어 왕의 공간인 ‘궁’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원(園)’의 의미로 변용되었다.

해방이후에도 여전히 궁궐은 박람회장, 산업전시관, 미술관, 동물원, 놀이동산과 같은,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80년대부터 ‘변형과 왜곡’의 역사를 바로잡아 위락시설이 아닌 궁궐의 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궁궐의 복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다.

조선 궁궐 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궁궐에서 펼쳐진 다양한 사건·행사와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조선 제일의 법궁 | 경복궁

‘경복궁’(景福宮)은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에 처음 지어진 궁궐로, ‘하늘이 내린 큰 복’이라는 뜻을 지녔다. 1395년에 완공된 경복궁은 왕이 거처하며 정사를 펼친 조선 최초의 법궁(法宮)이며 정궁(正宮)이었다.

정부수립 이후 경복궁은 국가 주요행사 및 파티의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국외 귀빈들의 주요 방문 장소로 사용되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 설립되고 경천사지10층 석탑, 북한산 진홍왕순수비 등의 문화재가 경복궁 안에 자리잡았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하면서 문화재도 옮겨졌으며, 광화문 및 영주문 복원,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등으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 광화문 복원공사 현장
(1968, CET0035670)



▶ 경복궁 영주문 복원공사 착공
(1975, CET0047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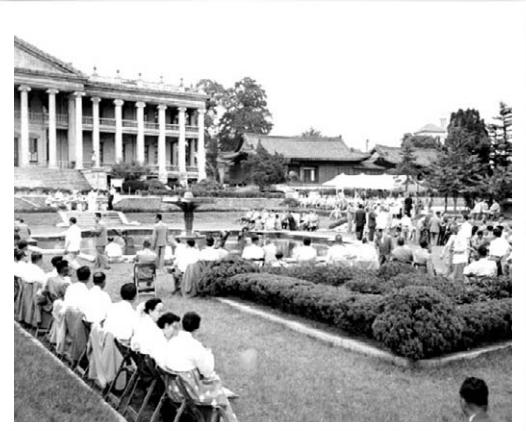
▶ 구조선총독부건물 철거 (1995, CET0071751)



▶ 경복궁 근정전과 경천사지10층석탑 원경
(1976, CET0066205)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궁 | 덕수궁(경운궁)



▶ 자유당전국대의원파티 (1959, CET0045206)

덕수궁은 세조의 큰 손자인 월산대군의 개인 저택이었으나, 임진왜란때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와 행궁(行宮)으로 정하였고, 광해군 때에 ‘경운궁(慶運宮)’으로 불렸다.

덕수궁이란 궁명은 고종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경운궁에 머물 때 물러난 왕에게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붙여졌다고 한다.

광복 이후, 덕수궁은 산업박람회, 경제개발5개년 전시관, 국전, 추모전 등 각종 전시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정전반대데모 및 남북 당국간 대회촉진 천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의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예술제, 어머니날 행사, 연주회, 사생대회, 소풍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61년에 시청 쪽 담장을 철거하고 철책으로 대체하였다가, 1968년에 다시 담장으로 바꾸었다. 같은 해 7월에 담장 이전 공사로 대한문은 담장에서 떨어져 홀로 세워졌다. 도로상에 고립된 대한문은 1971년에 이설되었다.

석조전 서관은 1973년부터 198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었으며, 1998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으로 개관되었다.



▶ 독서전시회 (1957, CET0057855)



▶ 덕수궁 모형전시관 전경
(1966, CET0038826)



▶ 덕수궁 대한문 분리 전경
(1968, CET0047543)

가장 수난을 많이 겪은 궁 | 창경궁

창경궁은 성종 때에 세 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수강궁터에 새로 지은 것이다. 창경궁은 한때 2,000칸이 넘는 큰 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것을 광해군 때 다시 건립하였다. 창경궁은 다른 궁과 달리 동향으로 지어졌는데, 태후가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동쪽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은 다른 어떤 궁보다 큰 수난을 겪었다. 1907년 이후 일제는 순종을 위로 한다는 미명하에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많은 건물을 헐어버렸다. 이름도 ‘창경원’으로 고치고 1909년부터 동·박·식물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창경궁은 일반 대중의 위락시설로 변질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시작한 야간 벚꽃놀이는 6.25전쟁으로 잠깐 중단되었다가 1952년 4월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1964년에 일본식 건물인 수정궁을 철거하고 1966년에 팔각정 형태의 새로운 수정궁을 준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민족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 보존 등을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많은 유적이 정비되었다. 1981년 정부는 ‘창경궁 복원 계획’을 정하고 1983년에 그 동안 관리하고 있던 동·식물을 서울대공원으로 옮겼다. 같은 해에 ‘창경궁’으로 이름도 복원하였으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창경궁 중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 창경궁의 상춘객(홍화문) (1973, CET0066136)



▶ 창경원(창경궁) 식물원
관람 (1957, CET0020685)



▶ 창경원(창경궁) 야간 벚꽃놀이
(1960, CET0047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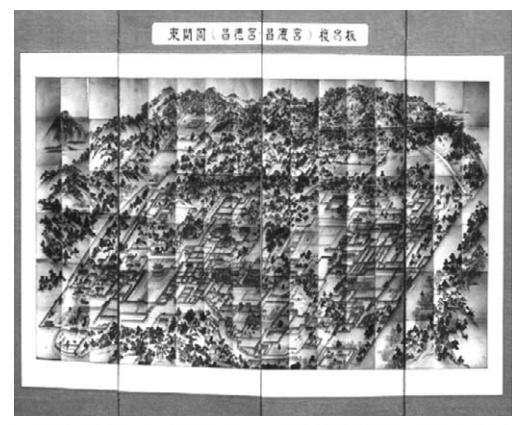


▶ ‘어린이날’ 기념 창경원(창경궁) 무료
개장 (1975, CET0068908)



▶ 창경원(창경궁) 공작사 준공식
(1975, CET0047632)

유네스코가 인정한 아름다운 궁 | 창덕궁



▶ 창덕궁·창경궁 동궐도 병풍 (1979, CET0047197)



▶ 수해복구 작업현장 (1972, CET0066984)

창덕궁은 태종 5년에 정궁인 경복궁의 이궁(離宮)으로 지은 궁궐로 창경궁과 더불어 동궐(東闕)이라 불리웠다. 창덕궁은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되었고, 1917년 내전 일파이 소실되는 대화재가 일어났다. 이때 창덕궁을 복구하기 위하여 경복궁 내의 교태전을 비롯한 강녕전 동·서 행각 등의 건물이 해체되었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증진 할 때까지 총 258년 동안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임금들이 거처하며 정사를 편 궁궐이다.

북한산 매봉 기슭에 세운 창덕궁은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자연과 조화로운 배치가 탁월한 점으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개화의 물결이 일면서 창덕궁 안에는 19세기 서양식 내부 장식이 전통 궁궐 양식과 섞여 들었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변형되었다. 1970년에 창덕궁 후원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일본식 정원을 한국식으로 변경하였고,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창덕궁 인정전 일곽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였다.

창덕궁 낙선재는 순정효황후, 덕혜옹주, 영친왕과 이방자여사 등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족이 기거했던 곳으로 1989년까지 사람이 살았다. IN

필자 소개

전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를 거쳐 현재 기록편찬문화과에서 소장기록물 콘텐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기사는 국가기록원 사진 기록콘텐츠 「사진 대한민국」에서 요약한 것으로 전체 내용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나라기록 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 '온라인 전시관' 콘텐츠로 접속하면 된다. 「사진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상과 사회변화상이 생생하게 담긴 소장 사진기록물(20개 주제, 956점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2008,『창경궁이야기』,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7,『서울육백년사 : 문화사적편』,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3,『서울의 문화재 제1권 : 건조물』,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6,『서울육백년사 : 연표』,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9,『시민을 위한 서울역사 2000년』,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 서울학연구소, 1994,『역사기행 서울궁궐』, 서울시립대학교.
- 우동선·박성진 외, 2009,『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효령출판.



▶ 아동사생대회 (1960, CET0053219)



▶ 순종의비 순정효황후윤비 창덕궁 낙선재로 환궁 (1960, CET0037025)



▶ 조종련계 재일동포 창덕궁 인정전 관람 후 (1976, CET0064042)



'연평도의 봄' 보도사진의 기록

◆ 강윤중 경향신문 기자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사를 그날그날 담아내는 신문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사진은 더없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기록이지요. 청문회에 나간 고위직 후보자가 돈을 주었다는 자와 일면식도 없다며 발뺌을 하다가도 바로 옆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한 장에 “그건…”하고 진땀을 빼는 일도 있었지요. 최근 미군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과 관련해 끔찍한 최후 사진의 공개 여부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써의 사진 한 장이 가진 의미와 파괴력을 새삼 일깨우는 사건들입니다.

현장과 사진기자, 사진기자와 기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현장의 최일선에는 사진기자가 있습니다. 사진기가 본 대상은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하나하나 모아집니다. 기록된 사진은 그 시점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고, 뒷날 다시 꺼내졌을 때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날그날 지면으로 다루는 사진도 중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진을 자료로 가지고 있느냐가 신문사 경쟁력의 척도인 시대가 되었지요.

기록자로서의 사진기자와 보도사진의 이해를 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봄이 오는 길목에 연평도를 찾았던 저의 취재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날. 섬을 찾았던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급히 섬을 벗어나려 하는 동안 사진기자들은 추가 포격의 경고와 위험 속에서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천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구조대와 소방관계자, 복구인원들만 입도가 허락됐습니다. 매일 아침 배 뜨는 시간에 맞춰 항구에 몰려들었던 기자들은 이를 후쯤 입도가 허락되었지요.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뉴스들이 연일 지면을 뒤덮으면서 저희 경향신문 역시 일주일 단위로 사진기자를 번갈아 투입했습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추운데다가 먹고 자는 문제까지 수월하지 않은 곳에서 타사와의 경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 누구나 속에 작은 갈등의 싹이 돋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하고 자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무를 따져가며 데스크가 지명해 출장을 보내는데 어찌된 일인지 출장은 저를 피해갔습니다. 좋아해야 하나, 섭섭해야 하나. 표정관리가 쉽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한편 갑갑해 집니다. 사진기자라는 존재는 큰 현장과 둥떨어진 곳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모양입니다. 현장을 지키는 것이 사진기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뉴스도 잣아들 때쯤인 2월 18일. 경향신문 기획물인 <포토다큐 ‘세상’>의 마감을 1주일여 앞두고 연평도로 향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할까,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현장중의 현장’인 연평도를 밟지 못했던 것이 가슴 한쪽에 걸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연평도 출장을 결정한 이후 마음이 좀 개운해졌습니다. 즈음해서 섬을 떠났던 주민들이 이른 봄바람과 함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다시 시작하는 주민들의 삶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기록하겠다며 연평도에 생애 첫 발을 디뎠습니다.

민박집에 짐을 풀자마자 카메라를 메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던 포격 현장을 먼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문과 TV의 네모난 앵글 속에 머물던 현장이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찌억찌억 발걸음을 뗄 때마다 들려오는 깨진 유리창의 아우성, 포격에 내려앉은 가옥 위로 흐르는 바람, 그 바람에 실린 매캐한 냄새 등 오감으로 현장이 느껴집니다. 긴장감과 긴박감은 떨어지지만 현장감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요. ‘바로 이것이 현장이구나.’ 늦게 왔지만 참 잘 왔다며 자족했습니다. 주민의 아픔보다 현장에 대한 감상에 빠져든 것에 일말의 죄책감도 들면서 말입니다.





'포토다큐'라는 기획물은 대여섯 장의 사진과 글로 이뤄지는 지면입니다. 보통 호기롭게 시작하나 막상 시작하면 막막해져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여러 차례 경험으로 막막함에 대한 대처 방안은 진작부터 마련돼 있습니다.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발품'입니다.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메인 사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며 종일 마을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정직한 대가로 돌아옵니다. 쓸쓸하고 적막했던 섬은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활기를 띠었습니다. 집안의 둑었던 때를 벗겨내고 어질러져 있던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외벽과 담장에 새로 페인트칠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하루해는 무척이나 짧았습니다. 길을 오가며 주민들에게 말을 붙여봅니다. 그간의 얘기도 들을 겸 사진정보도 얻을까 해서지요. 심신이 피로한 주민에게 카메라를 든 기자의 존재는 때론 비호감으로 다가가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기자네요"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할 말 없어요. 바빠요. 저리 가세요." 짐짝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쭈뼛쭈뼛하다 힘들게 꺼낸 말에 돌아온 냉랭한 반응에 '내가 이거 왜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의 따뜻한 웃음에 기분이 금세 풀리기도 했습니다.

썰렁했던 학교운동장과 인적이 드물었던 골목에 끼리끼리 어울린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웃음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바닷물이 빠지자 할머니들은 유모차를 밀고 갯가로 나가 굴을 땖지요. 항구에는 어민들이 통발과 부표를 손보며 봄 꽂게잡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인부들이 동원돼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깨지고 뒤틀린 창을 새로 갈아끼우고, 겨우내 얼었던 보일러와 수도관 수리가 한창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물녘까지 마을을 채우던 망치소리가 찾아들자, 연통에 연기를 피워 올린 집집에서 흘러나오는 저녁 준비하는 칼질 소리가 완연한 봄 공기에 떠나왔습니다. 집과 골목에 오랜만에 켜진 등이 연평도의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는 다양한 장면을 골고루 기록합니다. 마감시간은 정해져 있고 섬을 나가면 다시 들어올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장소에 적응이 되면 시간은 가속이 붙게 마련입니다. 예정했던 5박6일이 금방 지났습니다. 부지런히 다녔고 발품 판만큼을 기록했습니다. 늘 그렇듯 손을 터는 시점에는 겸허해지고 한편으로 아쉬움을 곱씹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됐다'며 찜찜함을 애써 밀어냅니다. 떠나는 날 아침, 짙은 안개가 훅싸인 마을을 작별하듯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고 민박집에서 밥을 먹으며 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인천항을 떠났어야 할 배가 안개로 뜨지 않았답니다. 시계(視界)가 확보되면 배를 띠울 예정이랍니다.

비슷한 날씨였던 전날도 정상적으로 배가 들어왔던 터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요.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결국 여객선은 뜨지 못했습니다. 안개처럼 짙었던 외로움은 하루 더 연장됩니다. 이날 오후 터널터널 베릇처럼 마을을 걷다가 한 노인이 연방 개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망원렌즈를 갈아 끼고 먼발치에서 다가가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셔터가 요란을 떨며 고조되어가는 소리가 '이게 메인, 이게 메인' 하고 외쳐댔고 나의 오른손 검지는 이에 화답하듯 힘을 잔뜩 준 채로 셔터를 더 깊숙이 눌렀습니다. 할아버지의 개 '누령이'는 석 달 만에 돌아온 할아버지 부부를 집 앞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버리고 떠나 걱정했던 누령이가 굶어 죽지고 않고 살아있어 대견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답니다. 애초에 내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간결한 이 사진 안에 다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배가 떴다면 이 장면은 지면에 실리지 못했을 겁니다. 발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확인하고 메인사진은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는 놀라운 징크스를 다시 한 번 경험했습니다. 결국 이 사진이 기획지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주민들의 남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보듬기보다 '마감'에 더 몰두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못내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3개월 간 피란생활의 피로와 조금은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셔터 소리를 인내해 주신 연평도 주민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다음에 연평도 오면 민박집에서 돈 쓰지 말고 우리 집 빈 방에서 묵어요. 돈 안 받을 테니". 누령이 할아버지가 건네 온 말씀입니다. 너무나 추웠던 겨울과 봄 사이에 찾았던 연평도에서의 일주일. 참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 간직할 것 같습니다.

상처를 딛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연평도 주민의 삶은 이렇게 한 페이지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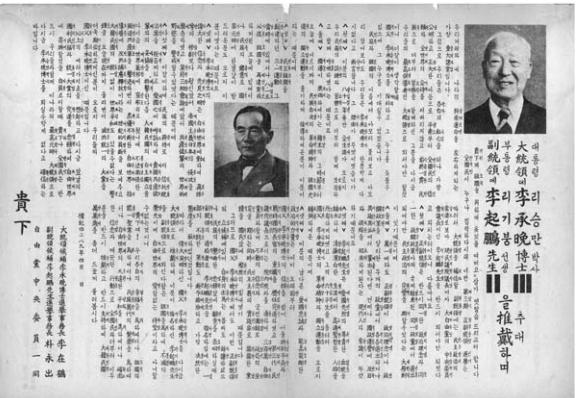
필자 소개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2000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12년째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으로 따뜻해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사진기자 야구단 '앵글스' 주전급 선수다. 제47회 한국보도사진전 시사스토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다수 보도사진상을 수상했다.



나의 기록인생 “추억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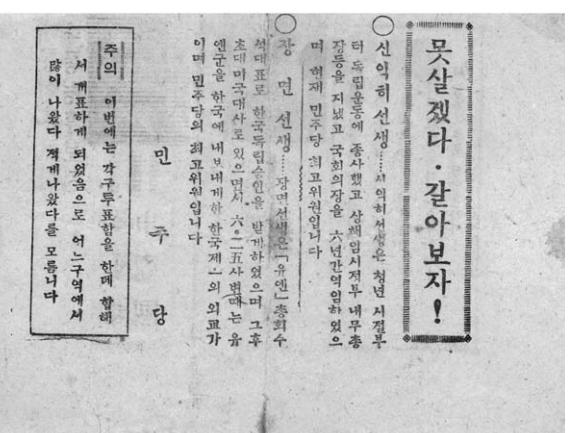
양해광 창원 향토자료전시관장



▶ 1956년도 제3대 대통령 선거 홍보물 (8절규격)



▶ 1956년도 제3대 대통령 선거 홍보물 (앞면)



▶ 1956년도 제3대 대통령 선거 홍보물 (뒷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했던 시절. 종이가 하도 귀해서 간혹 선거철이면 뾰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지프차에서 손가락으로 기호표시를 하며 뿌려주던 선거출마자의 홍보용 전단을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주우려고 기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동란을 겪으며 혼란스럽고 고단했던 삶의 모습에서 편리하고도 풍요로운 오늘날 까지 숨 가빴던 질곡의 흔적들을 차마 잊기에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그저 모으고 모은 잡다한 것들을 통해 나는 그리운 추억여행을 한다.

그 때 그 시절을 회상케 하는 향토자료전시관 마련

지난 2007년도 연말. 34년간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받은 퇴직금에다, 유산으로 남아있던 농지매각 대금을 보태 근근이 마련한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입구의 ‘창원향토자료전시관(사단법인 창원향토문화보존회)’에는 날마다 심심찮게 내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 미제 싱거표 재봉틀.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어! 레코드판, 이사할 때 다 버렸지.”

“야! 자유의 벗, 새 농민, 선데이서울도 있네.”

“저기 우리 할아버지 피우셨던 풍년초, 새마을담배도 있구나.”

“야! 창원의 옛 모습이 저랬던가?”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으며 숙연해지는 표정에서 갖가지의 추억어린 사연들을 들어보게 된다. 이렇듯 중장년층 세대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청소년 세대들에게는 부모님들의 삶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건립된 아담한 향토자료전시관에는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진을 비롯한 향토근대사자료 약 2만 8천여 점이 빼곡하게 전시돼 있다.



▶ 창원향토자료전시관 전경



▶ 창원향토자료전시관 내방객들이 전시자료를 관람하고 있다



▶ 경상남도청 청사전경 (1974. 6.)



▶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 창원의 중앙광로 개설공사 착공 당시의 모습 (1978. 4.)



▶ 창원의 중심지 중앙광로가 완공된데 이어 부산에 있던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모습 (1983. 7. 1.)

빈 익 빈 이 근대화 나 썩 은 정 치 뿌 리 뽑 자	
場 所	尹 潤 善 演
日 時	朴 郑 漢 漢
草 梁 驛 廣 場	己 永 守 俊 金 金 朴
演 說 設 會	善 出 長 河 池 池
說 會	大 總 領 會 補
會	統 連 會 補

신 민 당

▶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연설회 홍보전단



▶ 평화로운 초가삼간 모습 1974. 4 창원시 동읍 석산리



▶ 창원군 풀베기 대회 광경 1970. 9 주남저수지 일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만 했던 식량의 증산을 위해『증산·수출·건설』이라는 국정지표에서도 증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잘 살아보자며 새마을운동과 함께 다수학품증인 통일벼 재배를 강권했던 시절의 모습.

비료가 모자라 퇴비를 장만하기 위해 산과 들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풀베기에 나섰던 모습. 지게와 양은대야에 흙을 페 담아 이고 지고서 공동객토작업, 경지정리작업에 나선 사람들의 모습. 내리내리 아홉이나 되는 땔을 낳아 겨우 아들 하나 얻어 올망졸망 모여 찍은 10 남매의 기념사진 등등을 보면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는 사람들에게서 기록사진의 위력(?)을 실감하곤 한다.

무엇이든 하찮은 것이라도 함부로 버리질 못하는 성격의 내가 사진의 매력에까지 빠져 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진도 그저 단순한 기념사진을 찍거나 예술성 있는 수준급의 작품 사진을 찍고자 하는 취미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암울했던 보릿고개 시절인 1960년대에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를 맞았던 우리 세대들은 어느 세대와 달리 혹독한 가난과 불편한 세상에서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으로 급변했던 과정을 한 편의 기록영화를 보듯 지켜보며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왔다.

그 때 그 시절, 비록 힘든 세상이었어도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고 마음만은 늘 여유롭고 넉넉했으며 사방팔방의 산천의 모습도 사람들의 심성을 닮아 전통농경사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그러했던 세상이 19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에 즈음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것들이 함부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방금 전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에 몸서리치며 모으고 간수하며 변하는 삶의 모습들을 사진찍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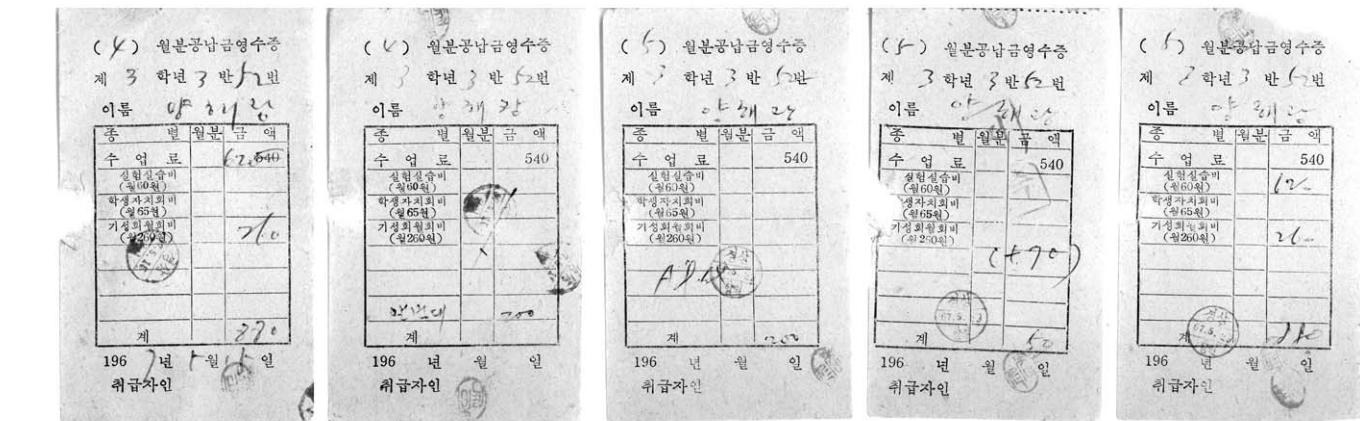
가정의 일상용품에서부터 형제·자매들에게서 내리내리 물려받은 국정교과서, 학용품을 비롯하여 신변잡화류, 각종 영수증 따위의 증명서류, 심지어 과자류의 포장지까지 모으는데다 기록사진까지 애지중지 보관해 오면서 스스로도 힘들고 부끄러운 구질구질한 괴僻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 1960년대의 기차 정기 통학 승차권 (명함규격)



▶ 1973년도 육군병장 휴가증



▶ 1967년도 고교3학년 수업료 납부 영수증

다양한 기록을 수집할 수 있었던 공직생활은 행복했고 그리운 시절로 남아

1974년 스물다섯의 나이에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공인(公人)으로서 민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의 세상모습까지도 사진기록을 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내게는 필연이었고 행운이었다. 더구나 공직생활을 통하여 사진기록과 관련이 많은 문화공보, 문화관광 업무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절반이나 됐던 것은 다양한 세상모습을 어느 누구보다도 세밀히 기록할 수가 있었던 기회였기에 사실적으로 표현한 ‘향토수필집’과 ‘화보집’ ‘방언집’ 등 6권이나 펴낼 수가 있었음은 무척이나 큰 행운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직장생활에서 적성에 꼭 맞는,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그리 흔치가 않은 일 이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공직생활은 참으로 행복했고 그리운 시절로 두고두고 기억으로 남아 있다.



▶ 향토근대사 관련 서적들

그러나 그런 세월 속에서도 때로는 너무 힘든 나머지 회의감에 빠져 문득 문득 내면에 잠재된 파괴적 본능이 솟구쳐 괴로워하기도 했다. 그냥 가벼이 취미정도로 여기며 남들처럼 편하고 여유롭게 살 수도 있었던 것을 굳이 무리하게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희생을 감당케 하는 것이라 갈등의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럴 때면 조선시대 말기인 1861년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만들었던 고산자(古山子) 김정호의 노고를 짐작해보며 스스로를 다독여 힘과 용기를 내며 버티었다. 오직 걸어서 다니는 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오늘날처럼 첨단촬영장비나 측량장비도 없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

면서 전국 산천 방방곡곡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종이에다 일일이 그림을 그려 완성했던 그 고초에 비하면 오늘날의 기록이야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다.

더구나 대동여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기록이지만 기껏 우물 안 개구리격인 내가 살아온 고장일대의 기록도 제대로 못한다면 근대 향토변천사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견딜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비단 한 시대의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그리운 추억을 남기는 세상 모습의 기록을 계을리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보람이었고 행운이라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고 했던가,

그럴 무렵 아내가 차렸던 의류가게의 수입이 그런대로 좋아 가게에 큰 보탬이 되어 사진 기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한 부담이 줄게 되자 한결 수월한 여건에서 욕심껏 충실히 기록 활동이 가능했다.

내가 살아온 고장 창원(昌原)은 오늘날 경상남도의 수부도시로서 조선시대 말기 창원대도호부(昌原大都護府)에서 1910년 마산시(馬山市)를 분리 시켰고, 1955년 진해시(鎮海市)를 탄생시켰으며, 1980년 4월 1일에는 국내최초의 계획도시 창원시를 탄생시켰다. 이어서 1995년 1월 1일에는 기존 창원군(昌原郡)과의 도농(都農)통합시로 출범했다가 다시금 지난 2010년 7월 1일자로 마침내 100년 전의 창원대도호부 시절처럼 3개시가 통합하여 110만 인구의 대도시로 다시 태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행정구역 변천이 가장 빈번했던 고장으로 이러한 일련의 변화 굴곡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나의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뻔히 눈앞에 벌어지는 변화상을 그저 스쳐 버린다는 것은 향토사의 공백기를 초래하는 것이고,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내게는 안타까운 고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 경상남도청 청사전경 (1974. 6.)



▶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 창원의 중앙광로 개설공사 착공 당시의 모습 (1978. 4.)



▶ 창원의 중심지 중앙광로가 완공된데 이어 부산에 있던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모습 (1983. 7. 1.)



▶ 개청 당시 창원시청 청사 주변 일대가 허허로운 들판으로 비어있는 광경 (1980. 4. 1. 창원시 용호동 일대)



▶ 창원지구 출장소에서 창원시로 개청하는 광경 (1980. 4. 1.)



▶ 도·농복합시로 통합창원시로 거듭 태어난 창원시 발족 광경 (1995. 1. 1.)



▶ 기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시가 「통합창원시」로 출범하는 기념식장에서 박완수 시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2010. 7. 1. 창원성산아트홀)



▶ 통합창원시 청사 앞에서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기념사진 (2010. 7. 1. 창원시 청사 앞)

소중한 기록일수록 분실을 대비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야

그러나 체계적인 기록보존관리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이었다. 산천 경관이나 고장 일대의 변천과정을 소상히 기록할라 치면 날씨와 시각이 맞아야 하고, 당초의 구도와 일치되는 촬영지점을 찾아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공휴일이어야 했다.



▶ 전통 농촌마을인 도계동 일대의 옛 모습 (1969. 12.)



▶ 계획도시로 구획정리 공사 중인 창원시 도계동 일대의 옛 모습 (1988. 6.)

특히 결정적인 과정, 이를테면 도로개설공사 때의 착공 전 본래의 모습을 미리 기록을 하지 못했다면 낭패이듯이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시간 다툼이 있어야 한다.

그저 막연하게 기억에 의존한 이야기로서 전해 듣는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과장, 축소, 왜곡되어 ‘옛날에는 호랑이도 담배를 피웠다더라’는 식의 억지 전설로까지 변질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록의 중요성이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기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거창하게서리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으나 적어도 변화무쌍한 이 시대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만큼은 진작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던 나는 그래서 지나간 기록으로 그리운 추억을 달래며 살아간다. 흔히들 ‘파괴는 창조의 시작이고 과감하게 버리면 더 나은 발전이 있다’고 했지만 함부로 파괴하고 버리고 나면 이내 다시금 그리워서 괴롭기조차 한 나의 유별난 성격을 어찌하랴?

내가 사는 주변의 더불어 살아가는 아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소중한 추억의 대상이며, 계절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산천의 모습도 언제나 그리운 추억의 마당이기에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나의 사진기록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어언 40여 년 동안 기록해 놓은 사진원판인 필름이 30여만 장이나 넘어 이제는 밤잠을 자지 않고 한 장 한 장 뒤적여 살펴볼라 쳐도 시간적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꽤 중요한 것들만 틈이 나는 대로 선별적으로 디지털화해서 안전하게 이중, 삼중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

웬만한 사진작가들은 자신의 사진을 한 장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내세우며 적당한 흥정도 하지만 비록 졸작이지만 내가 기록한 사진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기꺼이 제공하면서 공유하게 돼 감사하다며 도리어 내가 그 분들에게 적당한 사례(?)마저 하고 싶다.

왜냐하면 소중한 기록일수록 만약의 사고로 화재 또는 분실 등으로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지혜로운 우리의 조상님들께서는 동일한 자료들을 여러 개씩 만들어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했던 것처럼, 별 것도 아니지만 나의 기록 자료들도 분산해서 보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기록 자료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과거와 미래를 들춰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록자료 속에서 언제나 나는 그립고도 행복한 긴긴 추억여행을 할 수 있다. IN



▶ 1969년~2010년까지의 향토근대사 관련 사진첩

필자 소개

1974년 창원시 농촌지도소 근무를 시작하였다. 2007년 34년간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09년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전망대 부근에 창원향토자료전시관을 개관하였다. 향토자료전시관에는 평생 수집한 사진필름, LP판, 포스터, 책자, 생활용품 등 근·현대 생활사자료 3만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 사단법인 창원향토문화보존회장, 마창수필동인회장 등 지역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넷띠 5기, 그 첫 발을 떼다

◆ 박선희 제5기 나라기록넷띠 회장

넷띠 5기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다시 찾은 국가기록원은 학부시절 견학 차 왔던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준비를 하고, 여유를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먼저 도착해 있는 꽤 많은 또래의 학생들을 보며 또 다른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전공, 서로 다른 생활과 환경 속에서 이제껏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이렇게 넷띠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인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넷띠는 ‘internet’과 친한 친구의 순 우리말인 ‘아띠’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와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대사이다.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역사를 커뮤니티를 활용해 전달하는 역사 알리미로, 국가기록원의 행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고 국가기록원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다가올 2016년 제 18회 ICA 총회 유치관련 글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등 넷띠라는 이름아래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지만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바로 내가, 국가기록원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생각에 약간의 부담감과 함께 봄볕의 햇살 같은 따스한 설렘이 전해 왔다. 문득 Ben Stein이 말했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번 넷띠를 통해서 또 다른 100여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접점을 찾게 된 것이고,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연결 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서 스쳐 지나갔다.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있는 시간도 잠시, 발대식 시작시간이 다가왔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후, 넷띠 5기의 대표로, 일원으로서의 선서가 있었다. 기대와 설렘이 일던 마음이 책임감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그리고 넷띠로 함께 하게 될 한 명 한 명을 격려하면서 나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때 그 순간 가졌던 마음가짐을 결코 잊지 않고 매 순간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물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가진 열정의 맛과 농도도 변하지 않기를 선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선서를 끝내고 그 다음 순서로는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이번 넷띠 5기로 활동하게 될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발대식에 모인 80여 명 남짓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국가기록원장님께서 직접 위촉장을 전달해 주셨다. 마지막 한 명까지 수여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또 치면서 마음으로 격려하고, 넷띠로 선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위촉장 수여 후에, 넷띠 5기의 대표로서 간단한 인사말과 포부를 이야기했다. 미리 준비해 간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것조차도 어찌나 떨리던지 지나간 그때의 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하다. 앞으로 1년 동안 넷띠 안에서 좋은 인연, 좋은 만남, 좋은 추억을 쌓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는 마지막 말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들리던 박수 소리에 안도했던 기억만 어렴풋이 떠오른다.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자리에 앉아 이경옥 국가기록원장님께서 전하는 축하 인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카오스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이 모여 하나의 의미 있는 연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점 잊기 놀이가 떠올랐다. 종이에 흘뿌려진 점을 하나하나 이어나가면 강아지나 꽃, 새나 집 등이 그려지는 그런 놀이 말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종이 위에 찍혀진 점들이 그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이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주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그림이 탄생한다. 나는 점 잊기 놀이에서와 같이 넷띠의 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점을 이어가고 있음을, 그림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 점 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뒤이어 간단한 토론과 질문사항이 이어지고 발대식은 마무리 지어졌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대통령기록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대통령 사진이나 재임기간의 중요 문서 및 동영상 기록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외국 정상 등 외국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선물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청와대 집무 책상을 재현한 체험 코너에서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전시관을 둘러 본 후, 식당으로 올라가서 지역별로 나누어진 10개의 팀별로 앉아 간단한 다과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돌아가는 차편으로 인해 다른 팀의 조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지 못해 아쉽지만, 일 년 동안 함께 할 국가기록원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이 넷띠 5기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짜릿한 지적 엔터테인먼트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IN

필자 소개

현재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학협동과정을 전공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 홍보를 위한 제5기 나라기록넷띠 온라인 서포터즈 회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상 고은진(대전선화초등학교 2학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강창우(청심국제고등학교 1학년)

제4회 기록사랑 나라사랑 백일장 수상작 “참여와 체험의 기록문화 한마당 축제”

요컨대, 내 메모는 내 물심양면의 전진하는 발자취이며, 소멸해가는 전 생애의 설계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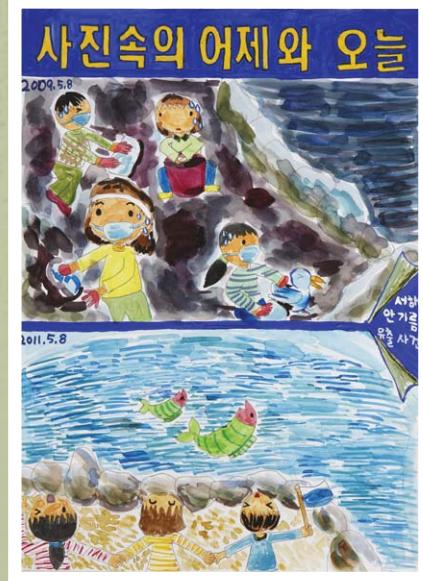
여기엔 기록되지 않는 어구의 종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에 걸친다는 것이니, 말하자면 내 메모는 나를 위주로 한 보잘 것 없는 인생 생활의 축도(縮圖)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쇠퇴해가는 기억력을 보좌하기 위하여, 드디어 나는 뇌수(腦髓)의 분실(分室)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하윤의 수필 '메모광' 중 일부



금상(국가기록원장상)
홍유미(대전 대덕구 법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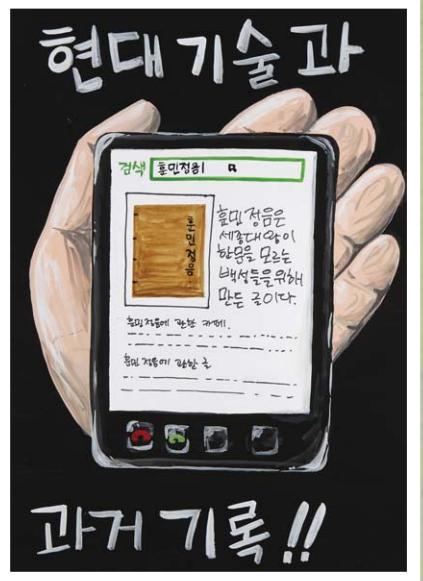
은상(국가기록원장상)
정유진(한밭초등학교 5학년)



동상(국가기록원장상)
이다애(가양중학교 3학년)



특별상(대전광역시장상)
황의원(대전갈마초등학교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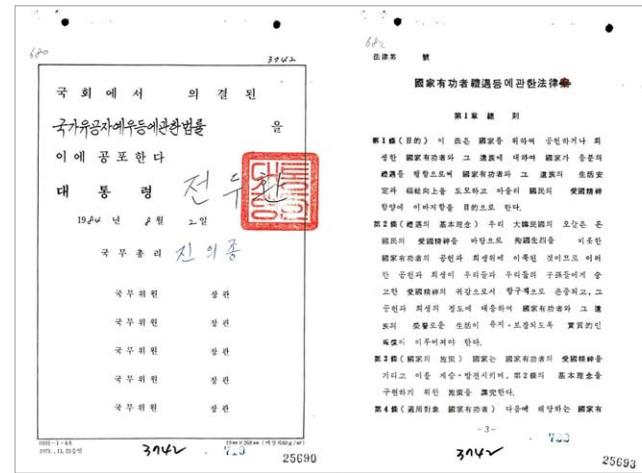
온상(국가기록원장상)
곽소은(복수고등학교 2학년)



특별상(대전시교육청교육감상)
윤서안(삼천중학교 1학년)

* 국가기록원 소식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보훈정책 관련 기록물 공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훈정책 관련 기록물을 6월 22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 (<http://www.pa.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 기록물은 문서 5건, 시청각 기록물 3건 등 총 8건으로 「이 기록, 그 순간」코너에 게재되었다.

1950~70년대 보훈관련 법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규정하였다.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제정된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7)은 戰歿·戰傷軍警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1962)은 4.19혁명 관련자 및 유족, 일제강점기 순국선열과 越南 귀순자의 지원을 규정하였다.

산발적으로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령은 중복되거나 불균형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치중해 있었다. 1983년 12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문서 「원호대상자 사기진작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의 “원호대상자”라는 명칭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련 법령을 통폐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1984년 5월 원호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문건은 향후 정책의 주안점을 ‘물질적 지원’에서 ‘정신적 예우’로 전환하면서, 생존여부나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국가에 공이 있는 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유족의 경우도 유공자 예우의 일환으로 대우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의미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런 내용은 1984년 8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독립기념관 김용달 부소장은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를 ‘시혜’ 대상에서 ‘보훈’의 대상으로 격상시킨 획기적인 법률로, 우리의 보훈정책이 물질적 보상만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宣揚’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的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희생된 많은 국가유공자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http://www.pa.go.kr/online_contents/history/history01/1322028_4955.html

국가기록원, UN에서 수집한 6·25전쟁 관련 희귀 영상·사진 소개



6·25전쟁 61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UN 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한국 전쟁 관련 희귀 시청각기록물 등을 소개했다. 이번에 수집한 기록은 6·25전쟁 당시 파견한 UN군과 한국 재건을 목적으로 UN에서 설치한 UNCURK(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활동상황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들 기록물은 그 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시모습과 전시 남한사회 생활상을 생생한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UN 영상기록과 함께 국내에 그 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진기록도 수집·공개했다.

전시 부산으로 피난한 국회의 개원 모습(1952)을 비롯해, 전시 종합대학(이화여대)의 강연 모습, 전시 상이용사의 전역식

(1951) 등은 매우 희귀 사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한국근현대사 연구뿐만 아니라, 후대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발전방안 세미나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 설계안 선정계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6월 15일(수)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 회의장에서 「대통령기록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이 개관한 이후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여 대통령기록관의 향후 비전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지며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션별 주제는 ▲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 대통령기록관리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관과 유관기관의 효율적 협력관계 모색 ▲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 그랜드 디자인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2014년 세종시에 건립되는 대한민국

* 국가기록원 소식

대통령기록관에 관한 내·외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구심으로서 대통령기록관의 역할에 대해 재정비할 수 있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찾아가는 지역 순회전시회' 개최



국가기록원은 '기록 사랑 정신'과 '기록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기록사랑 이야기』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지역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011년 6월 14일(화) 대구 (경상북도교육청 1층)를 시작으로 6월 22일

춘천(춘천평생교육정보관 전시실), 7월 6일 전주(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각각 개최된다.『기록사랑 이야기 지역 순회전』은 "역사 속 기록사랑", "생활 속 기록사랑", "기록을 남긴 사람들", "기록남기기(체험코너)" 등 4개 이야기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역사 속 기록사랑 이야기』 코너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는 조선시대 여인의 애절한 사랑의 편지, 며느리에게 전한 한글유서,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생활을 기록한 일기 등이 전시되고『생활 속 기록사랑 이야기』 코너에는 친구와 함께했던 학교생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생활일기,

교사의 학습일지, 비망록 등이 전시된다.

또 「기록을 남긴 사람들」 코너에는 '기록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박연묵(박연묵교육박물관)·양해광(창원향토자료전시관)씨의 손때 묻은 일기, 가계부, 사진 등이 전시된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일상의 사연을 담은 기록 하나하나가 훗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록문화를 접할 수 있게 이번 전시회와 같은 소규모의 '찾아가는 순회전시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이달의 기록」 '현충일 행사' 관련 기록물을 선정



국가기록원은 6월 「이달의 기록」으로 '현충일 행사'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1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현충일 제정 및 행사관련 문서 9건, 대한 뉴스 4건, 행사 사진 3건' 등 총 16건이다.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1956년 4월 19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45호)」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최초로 제정하고, 그 해 6월 6일에 첫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무회의록(제1회-127회)』에 수록된 「현충기념일 제정과 공휴일 제정에 관한 건(제39회)」(1959. 4. 16, 총무처)에 의하면, '전몰 군인의 추도식을 매년 6월 6일에 거행하기로 하고, 이를 현충기념일로 제정하는 동시에 매년 6월 6일을 공휴일로 의결' 했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기념일 제정경과, 주요행사 등 관련 기록을 살펴봄으로서 현충일의 의의를 되새기고, 온 국민이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monthly/MonthlyVerIndex.jsp>

5월 「이달의 기록」으로 기록으로 다시 보는 '가정의례준칙' 선정

국가기록원은 5월 「이달의 기록」으로 '가정의례준칙 제·개정'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가정의례준칙 제·개정 관련 문서 10건, 계동 영화 2건, 홍보 사진 3건' 등 총 15건이다.

1969년, 당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연한 과시 소비적 의례문화의



확산을 억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의례준칙」(1969.3.5, 대통령고시 제15호)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준수율이 낮아 1973년에 허례허식 행위를 법적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의례준칙」(1973. 5. 17. 보건사회부령 제411호)으로 개정하였다.

1973년 개정 「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6680호)」에는 기존 의례(혼례·상례·제례)의 범위에 회갑연을 추가하여 가정의례의 간소화 범위를 더 강화하고 기존의 71조에서 24조로 대폭 단순하게 규정하여, 장례는 3일장으로, 청첩장 발송 금지, 함 챙이 금지, 단체명의의 신문 부고 금지 등 기존의 의식절차를 더 생략하고 간소화하였다.

가정의례준칙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제77호)으로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강화」(1969)에는, 공무원과 각급 관공서가 솔선수범하여 준칙의 보급과 계동에 앞장서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보건사회부에서 국무회의 보고

* 국가기록원 소식

안건으로 제출한 「가정의례준칙 보급실천 추진상황 및 계획(제69회)」(1969)에는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계동 강연회·좌담회 개최, 해설서·담화문·표어 배부, 계동영화 제작·상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당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만연한 허례허식을 일소(一掃)하고 전근대적인 전통 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근대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monthly/MonthlyHoril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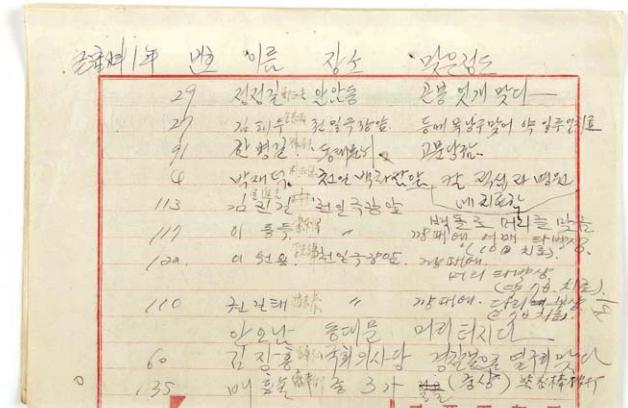
국가기록원 「중간기록관리시설」 착공



국가기록원은 4월 12일 정부대전청사 서문 옆 터에서 「중간기록관리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행사엔 이경옥 국가기록원장, 유상수 정부청사관리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하반기 완공될 중간기록관리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510m²) 규모다. 여기엔 종이기록물 80만권을 보관 할 수 있는 서고(3,967m²)와 전시실, 열람실 등이 만들어진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간기록관리시설 신축으로 기록물의 보존·관리는 물론 열람·전시 기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기록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4·19 관련 기록물 복원·복제 지원 추진



국가기록원은 4·19를 맞이하여 민간영역에 흩어져 있는 「4·19 선언문」 등 역사변화의 시대정신이 담긴 민간기록을 적극 발굴하여, 보존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복원·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기록원은 그 동안 서울대학교 도서관소장 독도(조선해) 관련 지도, 박목월 시인의 친필 원고 등을 복원·복제하여 역사적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기여하여 왔다.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4·19관련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고대

신문」, 「부상학생 현황」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시에 작성된 「4·19선언문」 원본은 관련단체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원본 소장자가 국가기록원에 복원·복제를 요청하면 무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복제·복원 전문 장비와 기술을 토대로 국가 주요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이번 기회에 「4·19선언문」 원본이 발굴되어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월 「이달의 기록」으로 “1950년대 문맹퇴치 운동” 관련 기록물 선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월 「이달의 기록」으로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문맹국민 완전퇴치계획(1953),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실시안(1954), 군 입대 예정 문맹장정 교육에

관한 건(1958) 문서 3건, 전국 문맹퇴치교육 공로자 표창식 (1953), 대학생 농촌 문맹퇴치 계동활동 (1962) 사진 2건, 문맹 퇴치운동(1962), 문맹퇴치운동(대학생 농촌계동 활동 등)(1994), 문맹(국회의원 선거, 전쟁 등)(1994) 동영상 3건 등 문서 3건, 시청각 5건 총 8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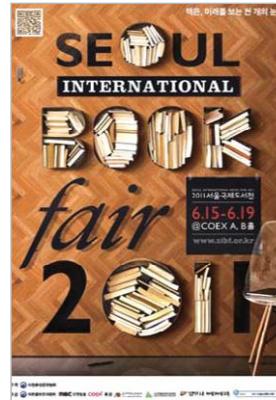
해방 이후 우리 글(한글)을 되찾으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제가 되었던 “문맹퇴치운동”은 미군정기(1945~1948)를 거쳐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은 1960년대 초 국민재건운동본부가 주관한 문맹퇴치운동, 대학생들의 농촌계동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한 문맹퇴치사업은 해방 당시 약 78%(만 12세 이상 인구 10,253,138명 중 문맹자 7,980,902명)에 달했던 문맹률을 1960년에 28%로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문맹해소 노력 결과, 국민들의 민주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음은 물론, 한글 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성인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평생교육의 방향이 형성되는 시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1950년대의 문맹퇴치운동은 선거의 참여율을 높일 목적으로 ‘작대기식 투표방식 개선’을 표방하여 민주주의의 굳건한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점은 물론, “국민의 문맹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국내 기록관리 소식

2011 세계국제도서전 개최



세계 각국의 도서와 국내 유명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1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은, 미래를 여는 천 개의 눈'을 주제로 오는 6월 15일부터 19일 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가 후원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가 주최한 2011 서울 국제도서전은 올해로 17회째 열리는 국내 최대 도서 전시회이다. 이번 도서전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아랍에미리트 등 23개국 571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인문 사회, 문학, 과학, 예술, 철학, 아동 도서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13개국 28개사의 저작권 에이전시들이 참여하여 저작권 비즈니스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난 3월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실시한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고 싶은 작가와 출판사' 설문 조사 결과 상위 20위에 랭크된 출판사가 도서 전시, 작가 초청 행사, 특별 전시 등으로 모두 참여하게 된다.

올해로 초조대장경이 발원된 지 천 년을 기념하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 일성록과 5·18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문화 유산 등재 등을 기념해 '우리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전'을 특별전으로 마련하고 팔만대장경판을 직접 탁본하는 체험 시간도 마련되었다.

『일성록』,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성록』(국보 제153호)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2011년 5월 25일 자로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 됐다. 또한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는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2013년 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총 9개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일성록(日省錄)은 2009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기록물로서, 2010년 3월 22일 신청서를 제출해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소 위원회 심사에서 "등재권고" 결정을 받아 이번에 최종 등재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에서 2010년 3월 29일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해 "조건부 등재권고"를 받았으나, 추가 자료 보완 등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된 기록물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문우리의 기록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통일부, 북한공개정보센터 추진



통일부가 언론과 국제기구, 웹사이트 등에 산재한 북한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아 북한공개정보센터(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공개된 자료지만 각국에 어렵게 흩어져 있던 것을 '위키리크스'처럼 한 데 모아서 일반인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센터에 구축된 정보는 통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산업과 인문, 지리, 인물 등 북한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북한 종합DB'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남대 대통령역사문화관 개관

청남대관리사업소(충북 청원군 문의면)는 전직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대통령역사문화관'을 6월 20일 개관하였다. 지난해 4월부터 3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역사문화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기획전시관과 이벤트관, 청남대관, 대통령관 등을 갖췄다.

대통령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이 외국순방 때나 외교사절로부터 받은 장식용 식기와 의장도(刀), 지휘도(刀) 등 127점이 전시된다.

이 선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임차해 온 것들로 청남대 측은 연말까지 전시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임차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함양군 기록문화 관리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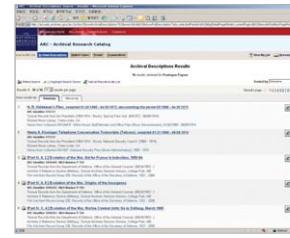
경남 함양군은 5월 12일 군청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사무소 기록물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록문화 정립을 위한 기록관리 분야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기록관리 역량제고 및 인식전환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관리 절차를 익혀 함양군 기록관리 업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과 팀장을 맡고 있는 박지태 학예연구관을 초빙해 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함양군 기록관리 현황 및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 해외 기록관리 소식



국립기록관리청(NARA)과 대통령도서관 소장 베트남 관련 국방부 기록물 공개



2011년 6월 13일 국립기록관리청과 케네디, 존슨, 닉슨 대통령도서관에서 공식 베트남 관련 국방부 T/F팀 보고서(일명 펜타곤 문서 : Pentagon Papers)가 공개되었다. 이는 1971년 6월 13일 뉴욕 타임즈에 의해 베트남 관련 기록을 유출 이후 꼭 40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은 총 7천 페이지 중 34%에 해당하는 2,384페이지 분량이다. 관련 기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http://www.archives.gov/>
- John F. Kennedy Library : www.jfklibrary.org/
- Lyndon Johnson Library : www.lbjlibrary.org/
- Richard Nixon Library : www.nixonlibrary.gov/



국가기록원(TNA) 교육 콘텐츠 '1960년대 영국' 오픈

영국 국가기록원(TNA)은 2011년 6월 6일 교육 웹사이트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1960년대 영국' 컬렉션을 오픈하였다.



이 컬렉션은 저항, 청년 문화, 여성, 고용, 경제, 패션, 모더니즘, 신기술, 인종문제 등과 관련된 40건 이상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새로 완성된 우체국 타워, 아폴로호 달착륙 전보문, 비틀즈 매니아의 영향에 관한 서신, 모드족과 폭주족에 관한 보고서 등의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컬렉션은 1960년대 영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하여 역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스스로 역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탐구하도록 할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 Sixties Britain :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topics/sixties-britain.htm>



호주 국가기록원(NAA)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상 수상



유네스코는 호주 국가기록원(NAA)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편찬과 디지털 기록물 보존 분야에서의 혁신적

선도를 높게 평가한 결과이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3만 달러의 상금은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2년에 한 번씩 수여되고 있다. NAA는 이 상금을

장차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투자로서 예비 복원 전문가인 학생들이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지상 수상식은 오는 9월 2일 청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 <http://www.ica.org/8457/news-events/the-national-archives-of-australia-awarded-with-the-unesco-jikji-memory-of-the-world-prize.html>



"역사기억의 문" 열다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공중앙외선전 사무국에서는 창당90주년 특집기사 발표와 언론 취재행사를 거행하였다.

국가당안국 부부장·중앙당안관 부관장 리밍화(李明华)는 취재기자들에게 소개한 주요 원본자료는 다음과 같다.

- 《상양사목립신론(商鞅徙木立信论)》1912년 6월 마오저뚱(毛泽东)이 19세 중학생시절 작성
- 1920년 11월 중공 상해초기 조직조안
- 《중국공산당선언》1921년 7월 중국공산당 최초 강령 등이다. 진귀한 당안 원본들과 함께 마오쩌뚱, 쪽우언라이, 덩샤오핑 3명의 지도자 관련 영상도 소개되었다.
- 소개된 영상으로는 1954년 9월 15일 마오쩌뚱의 제1기 전국인민 대회 제1차 회의 개막연설문, 1975년 1월 13일, 쪽우언라이 선생의 제4기 전국인민대회 제1차 회의 정부업무보고, 1988년

덩샤오핑의 전자산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북경 시찰 당시 연설 등으로 생동감 있는 화면과 위인의 음성 등은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느끼게 하였다. 이어진 언론발표회에서 국가당안관 국장·중앙당안관 관장 양동츄안(扬冬权)은 기자들에게 국가당안국 중앙당안관의 창립, 직무, 소장당안의 범위와 특징 및 당안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는 중앙당안관이 소장한 당안자료는 중국공산당 역사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의 원본기록이며, 중국공산당 역사, 신중국역사 및 중국 현대역사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자료임을 설명하였다.

중앙당안관 소장당안은 2010년 현재 125만권으로 약 1억여 페이지이며 서고길이는 1,377m이다. 또한 각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등 자료 234만 책 등을 소장하고 있다. 그 중 공산당과 주요 국가지도자 및 원로 무산계급혁명가, 저명사회활동가의 필사원고, 서신, 신문 등이 당안자료 중 보유수량이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완전성을 갖춘 것은 마오쩌뚱의 필사원고 등 모두 약 4만여 건이다. 양동츄안(扬冬权)은 국가당안국 중앙당안관은 앞으로도 더욱더 당안을 공개할 것이며, 중국 국가당안 공개의 방법과 청구에 따라 당안관 내에서 국내외 이용자의 당안 조사 및 열람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양동츄안(扬冬权)은 당안안전, 당안공개와 열람활용, 당안보존복원, 국제당안계 교류문제 등에 대해 현장에서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취재가 끝나자, 전시장에 진열된 진귀한 당안들은 각 부문 기자들이 한동안 떠나지 못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역사의 기억"을 함께 하며, 또한 다시 한번 역사기억의 문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였다.

출처 - 중국당안보 2011. 6. 2

* 해외 기록관리 소식

먼지 가득한 소중한 추억

- 난징시 당안국 당안관 150만장 국민호적카드 시민 공개



푸아오스(傅抱石)씨의 난징 거주 당시의 호적카드



바이슈엔옹씨의 어린시절 호적카드

이것은 귀중한 역사유산으로 기록보존 및 중화민국시기의 난징시 전체인구의 신분과 거주정보를 반영하여, 중화민국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 중 송메이링(宋美齡), 편청(陈诚), 바이종시(白崇禧) 등 저명인사의 호적카드는 아주 고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06년 말, 난징시 당안국 당안관은 중화민국시기의 “수도 경찰청”에 남아 있던 150여 만장의 호적카드를 이관 받았다. 4년 동안 난징시 당안국 당안관 종사자들은 중화민국시기 난징호적 카드에 대해 정리, 편집녹음, 디지털화 작업 등을 완성하였다.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일 직전에 사회에 공개하고, 검색·열람·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화민국시기의 호적제도는 매우 엄격하였다. 카드는 호적카드,

개인카드 두 종류로서 호적카드유형은 현재의 가구부(戶口簿)에, 개인카드는 현재의 신분증에 해당한다. 모든 카드는 남자, 여자 두 종의 대분류와 성씨에 따라 배열되었다. 호적카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녔다. 가구 이외에 업무직장 또는 군대 편제의 일부분을 가구로 하고 호주는 바로 상사지도자였다. 노동자는 고용주 이름으로 등록을 하였다. 이는 외부유입인구의 현황을 카드 상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징 연구를 위해 당시의 유동인구와 산업분포, 난징 주둔 군사 현황 등을 제공해 주는 완전한 자료이다. 당시 사진기술이 널리 보급 되지 않았던 이유로, 일반인들이 사진 찍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널리 소비가 일어나진 못했다. 따라서 호적 카드는 반드시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인물형상, 특수 표지, 지문 특징 등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인물의 특징을 기록한 형상기록을 통해 사진을 대신하였다. 지문기록의 보장을 위한 규범과 준칙 마련하였는데, 그 규정에서는 지문을 “기”(箕), “두”(斗) 두 종류로 나누어 각각 “X”와 “O” 표시로 사용하였다. 이밖에, 개인카드 내 작성된 내용 역시 아주 상세하고 확실하다. 1장이 14mm×8mm 크기인 작은 개인카드 상에는 성명, 성별, 연령, 주소, 본관, 교육정도, 직업, 호주관계, 신분증 등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이외에, 외모특징, 공민선서 일자, 장소, 병역 등의 정보 등이 있어, 양면 모두 28여개 항목이 있다. 동시에 개인카드는 원손잡이, 곱보얼굴 등 개인의 중요한 특징 등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호적카드 당안군의 공개로 사회 각계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끝임 없이 학자와 시민들이 난징시 당안국 당안관에 찾아와 조사·열람·활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이 당안군은 근대 난징의 인구와 사회, 경제

현황 뿐만 아니라, 난징의 도시발전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얻기 어려운 귀중한 원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을 위해 가족변천사, 이민, 계승, 친척찾기 등의 업무에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중국당안보 2011. 5. 23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등 해외 저명 전문가 중국방문

- “디지털시대의 당안홍보” 관련 중국당안계 인사와 정보공유



“125”(十二五)개년 발전계획 중 당안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중국 당안사업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당안종사

자들의 시야를 확대하며, 해외 당안사업 발전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당안국은 6월 9일 “세계당안의 날”에 북경에서 “디지털 시대의 당안홍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광동성 당안국장 쉬다장(徐大章) 등이 중국 측 대표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초청된 해외전문가는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브리즈번(布里斯班) 국제당안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昆士兰)주 당안관 관장 데이비드·스웨이프터(戴维·斯威夫特), 싱가폴 국가당안국 관장 빠관화(毕观华), 덴마크 코펜하겐시 당안국 관장 앤더스·크리스티·버크(安德斯·克里斯蒂安·巴克), 미국 미시간대학 벤터리(本特利) 역사도서관 분관장 낸시·바터차이터(南希·巴特莱特), 미국 국가당안 및 문서국정책 및 계획부 대리주임 마리안·하티카, 유엔 교육과학 인문조직 당안처 처장이자 국제당안 이사회 부주석 존스·베이얼 등이다.

그들의 발표 주제는 각각 “제17차 국제당안대회 및 홍보활동”, “당안홍보”, “당안의 사회홍보: 대중의 당안의식 제고”, “공동체 의식강화 : 당안종사자 열람 및 창작의 가치”, “미국 국가당안관은 어떻게 대중의 당안문화 인식을 제고 하였는가”, “국제당안이사회의 홍보 현황 및 당안홍보의 국제동향” 등이다. 이번 세미나는 6월 9일 1일간, 북경만수(万寿) 호텔(北京万寿宾馆)에서 개최되었으며, 6명의 해외전문가와 2명의 중국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출처 - 중국당안보 2011. 4. 27



Japan

공개문서와 디지털 화상(畫像)의 신규 추가분 공표

국립공문서관은 2010년도에 입수한 역사공문서 등 31,197책을 2011년 3월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내각관방 등 모두 18개 국가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기록물 중에는 내각관방의 ‘경제전략회의 간담회(1998년)’, 문부과학성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관계(1949년~1979년)’, 국토교통성의 ‘전국종합수자원계획(1999년)’, 방위성의 ‘전보수신대장[오키나와방위국](1972년~2008년)’ 등이 포함되었다. 각 기관별 신규 공개기록물 목록은 <http://www.archives.go.jp/info/shinkibunsho.html> 참조 또 국립공문서관은 2010년에 작성된 역사공문서 등의 디지털 화상의 추가분도 함께 공표하였다. 이 중에는 중요문화재 등이 303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체결 때의

* 해외 기록관리 소식

내각인 제3차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의 '각의(閣議) · 사무 차관 등 회의자료(1951년)' 19,409 컷을 포함하여 모두 142만 컷의 화상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rchives.go.jp/info/index.html> 참조

『아카이브즈(Archives)』 제43호 발간

3월 30일 발간된 제43호에는 2010년 국립공문서관에서 개최한 공문서관실무담당자연구회의(1월 25일~27일)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과 분임별 토론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정리 · 소개되어 있다. 우선,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후쿠다(福田) 총리내각 전후부터 참여한 미야케 히로시(三宅弘) 변호사가 정리한 2003년의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보존 · 이용 등을 위한 연구회」 → 내각관방장관이 주재한 「공문서 등의 적절한 관리,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간담회」 → 「공문서관리의 본연의 모습에 관한 유식자회의」(「시대를 가로지르는 기록으로서의 공문서관리의 이상적 모습」이라는 제하의 최종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 이후 법안을 국회에 상정)까지의 논의 과정을 포함한 법률의 입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약 40명의 공문서관 실무담당자들의 분임토의 결과를 「조례안」으로 종합하여 향후의 기록관리 연구 재료로 만들어내는 모습은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사례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제43호에서도 전호인 제42호의 특집 「지방자치체에서의 공문서관 기능의 정비」라는 주제를 이어받아서 시모노세키(下關) 문서관과 야시오시립(八潮市立) 자료관 등의 활동, 그리고 2010년 8월 10일 새롭게 개관한 다카야마시(高山市) 공문서관의

설치 과정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http://www.archives.go.jp/about/publication/archives/043.html> 참조

‘국제 기록의 날’ 기념 강연회 개최

2011년 6월 9일 ‘국제 기록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개최한 강연회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문서관 설립(1971년 7월) 기념 행사를 겸해서 진행되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2011년도 전국공문서관장 회의’(약 80명 참가)에서는 후쿠시마 대지진 및 원전사태와 관련하여 후쿠시마현(福島県) 역사자료관과 이바라키현립(茨城县立) 역사관으로부터의 피해상황 보고 등이 있었다. 아마도 ‘전국공문서관장 회의’가 끝난 후 국제기록의 날 행사가 이어서 개최된 듯 보이는데, 공문서관리에 관한 취재집필에 노력해온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증정하고, 학계 연구자들의 기념강연이 이루어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rchives.go.jp/news/110614_01.html과 http://www.archives.go.jp/news/110614_02.html 참조

공문서관리법제(法制) 세미나 개최 지원

재단법인 행정관리연구센터에서는 6월 21일,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나 전국의 공문서관 등에서 공문서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법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및 각종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공문서관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된 것으로, 학계 연구자, 내각관방의 공문서관리 담당관과 국립공문

서관의 전문관 등이 강의를 담당하였다. 강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공문서관리법 제정 의의와 공문서관리에 관한 앞으로의 과제 등
- 법률, 정령,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행정기관 등에서의 공문서 관리의 실무 포인트
- 가이드라인, 국립공문서관 이용 등 규칙에 근거한 역사공문서 등 관리의 실무 포인트

http://www1.biz.biglobe.ne.jp/~iam/data/seminar_20110621.pdf 참조

제1회 ‘피재(被災) 문화재’ 구조사업 정보 공유 · 연구회 세미나 개최

‘태평양연안지진문화재등구원사업(문화재구조사업)’ 발족을 계기로 도쿄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문화청 및 관련 기구, 관계단체 등과 연계하여 도쿄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후방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5월 10일 도쿄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된 제1회 피재 문화재 구조사업 정보공유 · 연구회 프로그램의 정식 주제는 “피재(被災) 문화재 구조의 초기대응 선택 방법을 넓힌다 – 생물열화를 극력 억제하는 한편 이후의 수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다. 이 세미나의 프로그램과 이후 토론 자료들을 종합하여 만든 『자료별 초기대응 메모 다이제스트』는 재난대비 연구 및 매뉴얼 마련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이다. 세미나의 각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 인도네시아 아체 및 동북지방의 쓰나미로 재난 당한 문화 유산의 구출활동에 대해서

- 종이서류의 곰팡이를 억제시키는 염수의 효과에 대해서
- 스컬치 팩킹법(squelch packing)
 - 프라하홍수 때 재해입은 문화재구조에 사용된 스컬치 팩킹법
 - 스컬치 팩킹법에 대해서 – 인필스식 탈공기 밀폐기를 사용해서 –
 - 방석입죽 주머니를 사용한 스컬치 팩킹법의 검토
- 진수(眞水) · 염수(鹽水)에 잠긴 유화(油畫), 일본화의 상황 5월 10일의 세미나 발표 자료 및 토론자들로부터 받는 자료들을 추가 종합하여 만든 ‘다이제스트’의 내용은 <http://www.tobunken.go.jp/~hozon/rescue/rescue20110510.html> 참조

전사료협(全史料協), ‘공문서 등의 보존 · 보존에 관한 요망(要望)’ 활동 전개

전국역사자료보존이용기관연락협의회(전사료협)는 ‘동일본대진재’ 사태로 인한 동북지역의 전사료협 기관회원의 안부확인 정보를 확인하는 등 동북 지역의 기록물관리기관들의 피해 및 대처 상황을 빨빠르게 전개하였다.(3월 13일자 첫 번째 소식 이후 4월 14일자로 아홉 번째 소식을 올렸으며, 대진재 관련 페이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http://www.jsai.jp/shinsai/index.html> 참조)

한편, 전사료협은 문화청의 요청으로 조직된 통칭 ‘문화재 등 구조’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4월 25일에는 협의회를 열어서 ‘동일본대진재 임시위원회’(가칭) 조직을 준비하여 공문서 등의 구원활동에 보다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해지역의 시청 지하시고의 대량으로 수침된 공문서의 구조 활동을 전개

* 해외 기록관리 소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관 뿐 아니라 기록물관리기관(아카이브즈)의 구원이 필요한 다른 기록물의 구조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사료협 기관회원의 직원들과 개인 회원들에게 '전사료협 구조 요원'으로서 등록해 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는데, 8월까지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사료협은 피해 지역의 훼손, 산일되어 가는 많은 기록물들의 보존과 훼손자료의 구제·복원이 매우 '긴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이 과제에 대한 정확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5월 27일 전국지사회(知事會), 전국시장회, 전국정총회(町村會)에 요청하였다. 향후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www.jsai.jp/info2011/info20110603.html> 참조

국립공문서관, 기록물의 '수복'(修復) 관련 동영상 제작·제공

국립공문서관은 동일본대진재 발생 직후 관장 명의로 '위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능한' 지원 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공문서 등의 수복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2분 32초)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동시에 현 시점에서 대응 가능한 수복 방법의 순서 등을 「수침(水浸) 자료의 처치방법」이라는 제목의 별지로 만들어서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쿄문화재연구소와 도쿄문서구원대의 홈페이지를 링크시켜서 재해 기록물의 '수복(修復)' 관련 정보의 공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http://www.archives.go.jp/top/110520_01.html 참조.

'도쿄문서구원대', 재해 입은 종이 자료의 복구 지원활동 착수

전 국회도서관 부관장 야스에 아키오(安江明夫)씨를 대표로 재해지역에 유기된 문서 등의 구제·복구를 위해 결성된 자원봉사 조직인 도쿄문서구원대가 발족되었다.(6월 1일로 추정) "Save our documents! Save our history!"를 슬로건으로 내건 도쿄문서구원대는 재해 지역에서 '구출' 된 서적, 사진 등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문서복구시스템의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지역에서의 처치시스템 설계와 간단한 기능 및 훈련 실시 활동을 의미하는데, 도서관과 기록물관리기관(아카이브즈) 외에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업, 사찰,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자원봉사 그룹에 따르면 재난지역에서 '진공동결건조' 등 응급처치된 종이 기록들을 평평한 상태로 되돌리는 '처치복구 시스템'을 2일 정도의 기능·훈련을 받으면 곧장 가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문서복구시스템'의 공개설명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http://toubunq.blogspot.com/2011/05/blog-post_9687.html 참조

save MLAk, 재난지역 지원과 관련 '긴급 토의'를 개최

'MLAk'는 박물관·미술관(M), 도서관(L), 문서관(A), 공민관(公民館, K)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로 이 기관의 종사·관계자들이 중심되어 'save MLAk'라는 동일본 재난지역의 현황과 구원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4월 23일 학습원대학에서 일본아카이브즈학회 총회에 앞서 "동일본대진재 피재(被災) 지원과 MLAk-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의를 개최하고, 'MLAk'에 관련된 이들이 함께 모여 재난지역에서의 실질적 구원활동에 대한 현안을 토의하였다.

savelibrary · savemuseum · savearchives · savekominkan의 각 사이트를 통합한 save MLAk에서는 재해정보와 구원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접악하는 동시에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문서관, 공민관들의 가능한 지원 활동을 재해 지역 시설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수집해서 게재하고 있다. wikipedia를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할 수 있도록 한 이들의 활동 방식은 재난대책 관련하여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활동은 <http://savemlak.jp/wiki/saveMLAK> 참조

일본아카이브즈학회, 2011년도 대회(4월 23일 ~24일) 개최

일본아카이브즈학회는 도쿄의 학습원대학에서 2011년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4월 23일)의 총회에서는 이 학회의 '아카이브즈 자격 인정제도 검토위원회'가 작성한 「'아카이브즈 자격 인정제도'에 관한 답신」이 공표되었다. 둘째 날(24일) 오전에는 이 학회 소속 각 연구회의 자유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넓어져가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ز라는 기획 주제 하에, '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공공방송에 의한 인터넷과 시대의 콘텐츠 전개 : NHK 전쟁증언 아카이브즈의 시험', '디지털 아카이브의 15년 : 이것이 의미하는 것' 등의 소주제들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http://www.jsas.info/modules/news/article.php?storyid=70> 참조 일본아카이브즈학회 회장의 자문에 대해서 '검토위원회'가 답변한 형태로 공표된 답신의 내용은 「아카이브즈 자격과 아카이브즈 등록에 의한 자격제도의 창설」로 압축할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jsas.info/modules/news/article.php?storyid=72> 참조

기록관리학회, 2011년 연구대회(5월 27일~28일) 개최

기록관리학회는 히카이도 오타루(小樽) 상과대학에서 "지역연계 사회에서의 기록정보관리의 이상적 모습을 전망한다"라는 주제로 2011년 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다카야마 마사야(高山正也) 국립공문서관 관장의 「공문서관리법 시행과 기록정보의 위기 관리」라는 제목의 특강도 포함된 이 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rmsj.jp/katsudo/event/taikai/2011taikai.pdf>

영미 소식 : 조영주(국가기록원 사서주사보)

중국 소식 : 강현민(국가기록원 사서주사보)

일본 소식 : 이경용(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국가기록원 발간 자료

1



성공적인 기록물 관리 이렇게 합니다

본 가이드북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이해 및 실무를 돋기 위해 제작되었다. 수록내용은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표준, 지침, 매뉴얼 등에 기반하여 기록물의 종류, 생산, 접수, 편철 방법에서부터 기록물의 이관, 폐기까지 기록물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



대통령 선물과 세계문화

〈대통령 선물 기술서Ⅲ : 대통령 선물과 세계문화〉는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통령 선물 2,900여 건 중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물 60건을 선정해 선물에 담긴 세계 각국의 문화·역사적 의미를 어린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만화와 일러스트를 곁들여 수록하였다.



3



국가기록 2010백서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공공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며, 기록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공공기록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본 백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국가기록원이 중점 추진해 온 주요 업무들을 담고 있다. 한 해 국가기록원의 발자취를 담은 기록으로,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기록관 담당자들과 연구자 등 기록관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그림으로 읽는 한국 근대의 풍경

| 저 자 | 이충렬 | 출판 | 김영사
| 발행일 | 2011년 6월 3일
| ISBN-13 | 9788934950882



국내외 화가들의 작품 86점, 일본 통감부와 외무성의 비밀 문서, 미국 국무부 문서와 재판 기록, 〈고종실록〉, 〈순종실록〉의 기록, ‘황성신문’, ‘독립신문’ 등의 기사까지. 풍부하고 정확한 사료와 그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한국 근대사의 숨겨진 이면을 집요하게 추적해 밝혔다. 희귀 사료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그림들도 다수 수록되었다.

3

박정희 할머니의 행복한 육아일기

| 저 자 | 박정희 | 출판 | 견는책
| 발행일 | 2011년 6월 27일
| ISBN-13 | 9788993818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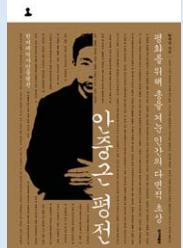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글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차녀이기도 한 박정희 할머니의 그림 육아일기이다. 현대사의 격동기인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다섯 남매를 키우며 손으로 써내려간 육아일기를 책으로 묶었다. 교회에서 버린 낡은 악보 뒷면에 쓰고 배냇이불 홀청으로 표지를 만든 실제 박 할머니의 육아일기는 그 자체로 귀중한 역사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로 보존돼 있다.

2

안중근 평전

| 저 자 | 흥재문 | 출판 | 한겨레출판
| 발행일 | 2011년 5월 20일
| ISBN-13 | 9788984314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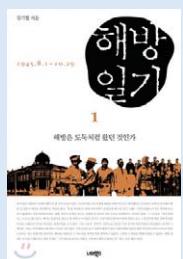


이 책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에게총을 겨누었던 독립운동가 안중근 평전이다. 〈안중근 평전〉은 안중근이 이토 저격 후 뛰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자시의 삶을 기록한 〈안응 칠역사(安應七歷史)〉를 비롯하여 그간의 많은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하였다. 본 평전을 통해 안중근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 이토 저격 사건의 전말 및 재판 과정, 그리고 그의 사후에 벌어진 일들까지를 오롯이 그려낸다.

4

해방일기 1권 해방은 도둑처럼 왔던 것인가

| 저 자 | 김기협 | 출판 | 너머북스
| 발행일 | 2011년 5월 2일
| ISBN-13 | 9788994606040



해방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대장정에 오른 역사학자 김기협이 2010년 8월 1일부터 〈해방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일 해방 전야부터 1948년 8월 31일 대한민국 건국 무렵까지의 기간 동안 ‘65년 전의 오늘’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해방일기 제1권〉은 해방 전야부터 1945년 10월의 일본의 항복까지를 다루고 있다. 시간별로 해방 전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해방’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기록인 IN

2011 SUMMER + Vol.15

기록원(IN)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계간 정보지입니다.

- **발행인**

이경옥 / 국가기록원장

- **편집위원회**

추경균 / 기록정보서비스부장(위원장)

강성천 / 기록편찬문화과장

김형국 / 정책기획과

이주현 / 표준협력과

이강수 / 특수기록관리과

김영선 / 기록편찬문화과

유환석 / 기록편찬문화과

고종오 / 기록정보화과

최찬호 /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 원고 모집

국가기록원 계간지 「기록인 IN」은 독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록관리 및 문화소식과 현장에서의 느낀 소감·제안 등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기록인 IN」 편집담당자

| 전화 | 042-481-6393 | 팩스 | 042-481-6371 | 이메일 | yhkim1@korea.kr

- **편집실**

윤대식 / 기록편찬문화과

김양희 / 기록편찬문화과

김은진 / 기록편찬문화과

김현정 / 기록편찬문화과